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

이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입니다.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

CONTENTS

04	여는 글
06	함께한 도서관
11	함께한 작가, 예술가, 문화활동 강사
14	과정
16	도서관 이야기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고 나서
214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만족도 조사
216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진행과정 설문 조사

여

는

글

문화란 놀이이자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평소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과 '친밀성'라고 생각하고 있다.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 타고 와서 친구를 만나 놀다가 책 한 권 읽고 가는 곳. 그런 편안함이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해왔다. 찾기 쉽고 이용하기 쉬워서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 참새방앗간처럼 쉽없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이 작은도서관이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현관 앞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신발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동네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작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부딪치며 책을 보니 누가누군지 금방 알아보고 그 사람이 읽는 책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게 된다. 그러다 서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 나누게 되면 이용자와 운영자의 거리감은 확 줄어들게 된다. 이용자가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마음을 내고 도울 일을 찾는다. 어느새 작은도서관의 식구가 되는 것이다. 운영자 역시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고민이 뭔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살펴볼 수 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의 마음 상태도 보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도서관 문화를 만들고 싶었다. 조용하고, 개인학습하고, 이용자와 대화는 민원이 중심인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같이 놀고 같이 읽고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도서관 말이다. 그런 도서관이 바로 우리 동네 있는 도서관이면 좋겠다 생각했다. 이는 제도와 정책을 넘어서 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만드는 문화라 생각했다.

오랜 활동을 통해 습관처럼 되는 것,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했다.

바로 이것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작은도서관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한 목적이었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며 매달 마지막주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활동 소식은 기쁨과 즐거움, 환희 그 자체였다. 작가와 함께 읽

은 책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만들었다. 책이 연극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시가 되었다. 평화를 노래했고, 환경을 돌아보았고, 나의 이야기를 작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참여자 그리고 작가가 만들어 낸 훌륭하고 자랑하고 싶은 최고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되었다. 참여한 작가들은 작은도서관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고 작은도서관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 지 알게 되었다. 작가의 노래와 시, 글, 그리고 몸짓을 통해 표현된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더 큰 하나가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진행을 위해 뒤에서 애쓴 사람들 덕분에 100개의 작은도서관과 작가, 예술가들이 만날 수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가 되면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림자처럼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고 지켜봐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품었던 도서관과 문화예술의 결합, 책과 문화예술의 결합이 작은도서관이 사람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한 책공간이 되는 길이었다고 자부해본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박 소 희



함께한 도서관



01 서울특별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8길 36 시흥1동 주민센터 5층	02-2104-5649
꿈마루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문로 55(이문동, 동안교회) 비전센터 2층	070-7457-1190
게넷골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33 상일동 주민센터 2층	070-8845-7430
기쁨이자라는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길 25 극동아파트상가 202호	02-6083-6747
어린이도서관 '꿈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길 59	02-2243-2315
세곡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세곡동 주민센터 2층	02-445-0297
아이누리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13-10 연희동 자치회관 (1층)	02-330-8775
작은도서관함께크는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3길 28	02-428-4868
생글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2길 35	02-992-7500
고맙습니다하난곡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0가길 20-7	02-868-8994
삼성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4층	02-568-9984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길 30	02-2060-1742
나무와열매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63-9 2층	02-736-3766
올리브나무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27(옥수교회 4층)	02-2297-9756
초록숲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81 지하1층	02-313-4785
서초포레스타3단지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8길 22, 304동 주민공동시설 1층 작은도서관(신원동, 서초포레스타3단지)	070-8159-2809



02 경기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옥천고읍내작은도서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21	031-771-5703
힐숲작은도서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22 힐스테이트서천 커뮤니티	031-202-2064
늘푸른자연학교 작은도서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성주로 946	070-4203-8139
제니스 가족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탄현동, 일산 위브더제니스)	031-900-7955
가능동 작은도서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5(가능동, 가능동주민센터)	031-870-7068
화도에서아미랑 작은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031-593-8493
아름다운 꿈의 작은도서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1 태천빌딩 501	031-896-9101
예다움 작은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55(숲속마을2단지내) 관리사무소옆	031-901-0931
해님달님 작은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34(2층)	031-8025-3000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위례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2	070-7798-1137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86번길 38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031-729-9451
도창작은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145 에이스아파트 관리동2층	031-313-8125
리슈빌작은도서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236 계룡리슈빌 관리사무소 2층	070-4788-1125
석수골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9길 20 2층	031-439-2707
푸른 작은도서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165 미사강변푸르지오 UZ센터	031-795-3797
안산시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031-407-1877
주은풍림 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4079 주은풍림 아파트 관리동 1층	031-618-0062
서후술 작은도서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통절길 69-3	031-773-6433
사랑나무가족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6(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32-661-3034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122-1	070-8849-1391
신길새빛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빛길 55번지(삼익아파트 관리동 3층)	031-492-2707
고양 작은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음로19-11(1층)	031-963-4321
통미마을작은도서관	경기도 평택시 통미로 3	031-8094-1313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117번길 48 상3동주민센터 3층	032-322-9702
민들레작은도서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0번길 12-2(성남동 2480번지) 1층	031-722-3336
강상 작은도서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60 (2층)	031-775-7483
인스빌작은도서관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공로18번지 신안인스빌아파트내도서관	031-575-6485
작은도서관북까페사랑아이엔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86번길 5-11 삼대빌딩 4층	070-8899-0620
북소리 작은도서관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159 현진에버빌2단지관리동 지하	010-9127-0890
꿈에그린 작은도서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0(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031-980-4725
리버팰리스 작은도서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52 한양수자인 106동 커뮤니티센터 1층	070-4454-9834
도척 작은도서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도척면 행정복지센터 2층)	031-760-5641
에버빌 작은도서관	경기도 이천시 안흥로 60(갈산동, 현진에버빌)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	070-8889-3988
효성백년가약작은도서관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865(비전동 1089)	031-692-9048



03 인천광역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향촌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향촌휴먼시아 1단지 @ 내)	032-461-1734
돌맹이국도서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 23 지하	032-542-7110



04 대전광역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문학마을작은도서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22(유림공원내)	070-4192-1677



05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소정 작은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구길 204, 복지회관 2층	044-301-6061
조치원 작은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101, 3층	044-862-5647



06 충청남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성성푸른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111, UZ센터 1층	041-568-3457
성환읍다문화작은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3길 7, 1층 (성환읍사무소)	041-587-5002
여우네도서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신장로 233-27(마서면 여우네도서관)	041-956-2020
늘푸른 작은도서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762-78번지	070-4253-8626



07 충청북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해품터 직지 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종고개로 337번길 23 관리동 지하	043-253-6400
충북대학교병원 바람의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산동)	043-269-7272
오창우림필류1차 작은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13, 우림필류1차 아파트 관리동(지하)	043-217-1611
도토리숲 작은도서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27번길 26(1층)	070-8831-4561
청천작은도서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 1346	043-832-7772



08 대구광역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23길 8-1 2층	053-961-3307
서변동작은도서관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57길 6 유니버시아드레포츠허브 1층	053-320-5194
아이빛도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82, 지하1층(유천동, 월배아이파크)	053-643-7917
책마실작은도서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26 우방하이츠상가지하	053-324-0615



09 부산광역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낮개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429번길 22(다대동)	051-266-0027
당리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20번길 25(당리동)	051-201-5930
어린이도서관 동화랑놀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19, 2층	051-819-6150
연산3동새마을문고 밤골작은도서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련로24번길 33 밤골작은도서관	051-665-4513



10 울산광역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월봉도서관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39번길 23	052-226-2377
책마루 작은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103-20 아이파크3단지 복리동2층	052-281-7785
화정작은도서관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주민센터 1층 화정작은도서관	052-209-3950



11 경상남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대산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355번길 20	055-291-6457
리첼 작은도서관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187 관리동 지하 1층	055-321-7764
숲소리북카페 작은도서관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55번길 초전해모로루비채4단지아파트 관리동1층	010-5578-2327
신월평생학습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48 신월민원센터 2층	055-287-0667
월산주공작은도서관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103(부곡동월산주공11단지) 관리동3층	055-311-0261
U.보라작은도서관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176번길 71 반도보라@ 관리동2층	055-324-3335
장유대우작은도서관	경상남도 김해시 팔판로 71, 푸르지오5단지아파트 복리동 2층	055-312-4489
천주평생학습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14(의창동주민자치센터 內)	055-299-3407
팔판작은도서관	경상남도 김해시 덕정로 68, 팔판마을 부영e그린3차 관리동 지하1층	055-312-9822



12 경상북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경상북도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구포동,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3층 작은도서관	054-476-6444
송도 송향작은도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동로 162(태왕아너스 관리소 2층)	054-246-6688
평해작은도서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7길11	054-788-6654



13 광주광역시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풍경채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216(신용동,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커뮤니티센터 3층	062-571-0064



14 전라남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꿈돌이 작은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142 블루오션빌딩 2층 강남동태당 2층	061-287-0306
아낌없이주는나무 작은도서관	전라남도 무안군 삼합읍 남악로 74번길42 회룡마을주공아파트	061-287-1949



15 전라북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꿈꾸는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2길17 부영1차 꿈꾸는작은도서관	063-531-3260
동산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 7길, 26-1	063-842-2253
버들논도서관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	070-4175-0914
실버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정읍시 금봉1길 190(관리동 2층)	063-533-0955
웅달샘 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51 관리사무소 2층	063-247-5260
우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2층)	063-245-8455
중산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 4길 11 (중산공원 내)	063-714-2278
책마루 어린이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 2길 21(롯데마트 뒷편)	063-252-1612
초록우산작은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0(서서학동 986-5)	063-282-7230



16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명	주 소	연락처
보목곶터 작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83-1	064-732-3506
예촌작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37	064-767-5200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함께한

작가 | 예술가 | 문화활동 강사

- 강무현 > “나만 몰랐던 잠, 신비한 꿈 이야기”
- 강무홍 > 마법의 두루마리 타고 즐거운 역사여행
- 강상구 > “끄적끄적 시를 쓰고, 흥얼흥얼 노래 만들기”
- 강숙연 > 엄마사용법 작가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사용법
- 강영미 > 춤춤거미줄 만들기
- 권오준 > “전래동화 이야기, 판소리로 살아나다”
- 권오현 > 너는 특별해
- 길정선 > 우르르 산토끼와 함께 하는 놀이 여행
- 김강곤 > 고니와 함께 떠나는 시노래기행
- 김경희 > 작은도서관에서 만나는 그림책이야기
- 김규택 > 나와 이야기
- 김리라 > 친구에게 비밀 초대장 보내기
- 김문경 > 내 다육 친구!! 반가워~
- 김미혜 > 꽃과 개와 눈물과 시적인 순간
- 김병하 > 그림책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이야기 & 미니그림책만들기
- 김선희 > 국악 이야기 음악극 만들기(어화둥둥 내 딸이야)
- 김성진 > 우리 가족 사용법
- 김수민 > 내이름팝업북
- 김은의 > 나를 가꾸는 글쓰기
- 김정은 > 리사이클 디자인 모빌
- 김희님(김희임) > 놀이랑! 책이랑?
- 라정민 > 팔랑팔랑 애니메이션
- 류은지 > 책을 만드는 유령들 (독립출판의 이모저모)
- 문재현 > 특별한 꿈을 꾸는 나만의 친구 - 스핀지인형으로 만들기
- 민승준 > 애들아! 나무랑 놀자. - 나무와 함께 떠나는 평화놀이
- 박서진(박정희) >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까?

- 박정선** > 그림자랑 놀자
- 박정은** > 도서관 속 작은 극장 <오늘은 연극한Day>
- 토끼와 자라의 수상한 만남
- 박종채** > <두꺼비가 간다> 박종채작가의 그림책이야기
- 박지숙** > 책이랑 바느질-책 속 주인공아, 나와라!
- 박지원** > 이야기탐험단, 책을 만나다!
- 박채란** > 내 마음속, 기대고 싶은 <벽>
- 박형섭** > 조선시대 비행기가 있었다고?
- 박혜선** > 동시랑 놀자-동시로 연극하기, 사투리 동시, 환경동시 읽으며 우리 환경 살리기, 동시 쓰고 내가 심사위원 되어보기. 그림책아, 놀자-이야기 이어가며 마음이 열리는 나무 만들기
- 배소현** > 얼씨구 절씨구 그림책 전래놀이
- 배정임** > 째깍째깍째깍
- 백정민** > 영화감상과 영화원리를 통한 영화 읽기
- 서정오** > 우리 옛이야기의 힘과 매력
- 성진숙** > 전래놀이와 함께하는 역사동극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송기영** > Classic Guitar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
- 신종수** > 나무야 놀자! (부제:세상에 버릴 나무는 없다)
- 신준수** > 숲체험
- 안미영** > 내 얘기 좀 들어볼래?
- 안선화** > 나도 정크아티스트다. -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 안수일** > 제주도 한바퀴
- 연경이** > 그림자극 연극놀이
- 오진희** > 우리마을 사계절 미니그림책 만들기/지구를 살리는 보드게임 만들기
- 오치근** >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
- 위명화** > 울퉁불퉁 돌맹이의 변신-의미 없는 것은 없다
- 유준재** > 그림책속으로의 여행
- 윤광웅(바바트)** > 방울을 딸랑거리며 반겨주는 명랑한 내 친구! 안녕달 작가의 메리인형 만들기

- 윤미숙** > 빨간 우체통아, 놀자!
- 윤일호** > 시쓰기로 나를 찾고 나만의 빛깔 찾아가기
- 윤태규** > 우리 아이, 왕따 당하지 않고 공부도 재미있게 아주 잘 하는 방법 있다
- 이미경** > 동화와 함께하는 그림자극
- 이송현주** > 도토리 삼형제와 조물조물 조형물
- 이승규** > 나도 어린이 애니메이션감독!
- 이외수** > 한지를 이용한 나만의 작품만들기
- 이은경** > 책 속의 주인공 나와라!!
- 이정석** > 책노래 만들기 - 라퐁텐우화집
- 이정인** > 전래동화 이야기, 판소리로 살아나다
- 이종수** > 시와 함께 즐겁고 기쁘게 때론 화도 내면서
- 이종일** > 어린이글노래 공연과 글쓰기
- 아이야 너를 노래하렴(내 말과 글이 노래가 되어요)
- 이효립(이은혜)** > 누구나 꽃이야! - 이야기로 피어나 몸짓연극공연만들기
- 정란희** > 어린이 대상 - 책과 함께 신나게 노는 법, 성인 대상- 역사와 함께 달리는 여자들
- 정숙영** > 도서관 플리외르 체험 "나도 책 고쳐볼래요!"
- 정혜원** > 귀명창과 나만의 평화아리랑 만들기
- 최경화** > '깜박 깜박 도깨비'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 이야기로 들려주는 책공연 <깜박 깜박 도깨비>와 전래놀이
- 최명희** >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까야
- 최향숙** > 우리 동네 숲에는 무엇이 살까
- 한성민** > 지구별에서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기
- 한승주** > 생활드로잉
- 허은실** > 나만 몰랐던 잠과 꿈 이야기
- 허지현** > 그림책 속 행복을 수 놓다
- 황명수** > 아낌없이주는나무-원목 소품 만들기
- 황혜림** > 한땀한땀 개구쟁이 데이빗!



1. 사업명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2.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 문화 취약 지역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활동 운영 지원을 통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 ◎ 작은도서관의 인력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능력 강화

3. 개 요

- ◎ 기 간 : 2019. 2. ~ 2019. 12.
-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 주 관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 장 소 : 전국 100개 작은도서관
- ◎ 내 용 : 매월 마지막 주(월요일~일요일)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작은도서관에 전문 문화예술가 또는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여 작은도서관에서도 전문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진행

◎ 사전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9. 2~3월 (권역별 1일, 총 4일)
- 장 소 : 4개 권역별
- 참석대상 :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와 참여 작은도서관 담당자

◎ 현장점검 실시

-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에 프로그램 진행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과 현장의 점검 및 문제점 파악

- 현장점검 계획 : 수혜 작은도서관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과정, 효율성, 수혜자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 확인과 내실 제고

- 일 정 : 2019년 2월~12월
- 대 상 : 사업 시행 도서관
- 실사평가위원 : 권역별 1~2명 내외 총 5명으로 구성
- 조사내용 : 사업 운영 현장 점검, 사업 실무자 및 담당자의 개선 및 요구사항 반영

◎ 설문 조사

- 관계자 및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도서관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

시 기	내 용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 문화프로그램 기획, 전문강사 발굴 ◎ 사업시행기관(도서관) 선정 ◎ 개별도서관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매칭 ◎ 권역별 워크숍 진행 ◎ 홍보물 제작 배포
2월~12월	◎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진행
2월~12월	◎ 현장 점검
12월	◎ 결과 보고서 제작 배포
20년 1월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4. 성 과

- ◎ 도서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독서문화활동 운영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었다.
- ◎ 질 높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동이 보급되었다.
-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 작은도서관 역할이 강화되었다.
- ◎ 작은도서관의 인력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

도서관 이야기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고 나서

게넷골 작은도서관

서
울

나는 게넷골 작은도서관이다!



우연한 계기로 일하게 된 게넷골 작은도서관이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다 빠져나간 동네에 있던 주민센터인지라 구립작은도서관의 위탁체인 새마을문고 조직이 없어져 운영이 중단된 도서관이었다. 이사업체에서 꽃은 책들을 정리하고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살려가던 중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을 접하게 하고픈 마음이 커져서 지원했고 선정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강사님들과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전체 일정이 다 마무리된 후 도저히 평일 시간으로 인원을 채우지 못할 거 같아 주민센터와의 협의 후 마지막 주 토요일로 변경했다. 주민센터에서는



근무할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도 협조해 주어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었다. 도서관 안에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없어 장소를 강좌실로 옮겨 진행하였다. 칠판과 테이블, 의자만 있는 공간인지라 진행하는 강사님들과 참여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좀 더 따뜻한 공간에서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한지라 아쉬움을 접었다.

다른 도서관에서 진행된 글과 사진으로 사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수준은 역시 달랐다.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에서 활동하며 게넷골 작은도서관에서 일한 거라 두 곳에서 진행된 문화가 있는 날을 10가지를 경험했다. 올 한 해는 정말 “문화가 있는 날”만으로도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진 한 해였다.

첫 시작은 3월에 이승규 강사님의 “나도 어린이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다. 첫 시작부터 고학년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부담이 되었지만 오히려 내용면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고, 부모님들은 어릴 적 추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인 4월에 만난 유준재 작가님은 강동구에 3~4번 다녀가신 작가님이어서 홍보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오히려 경험해 본 기대감으로 또 참여하는 분도 있었고, 작가님의 여유 있는 설명과 실크스크린 체험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이었다. 세 번째인 5월에 김규택 작가님은 워낙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특성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지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 ‘바나나전’을 만들었다. 네 번째인 8월에는 “누구나 꽃이야!”의 이효립 선생님을 만나 뵈었다. 만나 뵈기 전부터 기대감이 높았고, 역시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아끼는 마음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선생님의 완벽한 준비물까지. 보자기만으로 만들어진 꽃이며 한 편의 연극을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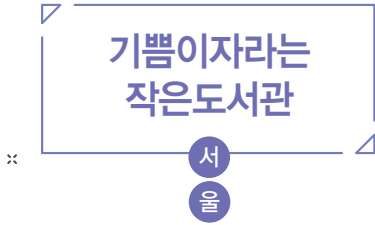


가는 과정 정말 즐거웠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일로 참여하지 못했다. 여섯 번째인 10월에는 이정석 선생님을 뵈었다. 짧은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찾아낸 단어들로 즉석에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강사님의 노련함과 전문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즐거운 활동이었다.

다시 한번 구립작은도서관에도 “문화가 있는 날”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내년 이 “문화가 있는 날”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게 넷 골
작은도서관



나는 기쁨이자라는 작은도서관이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자리한 나를 처음 찾아온 사람들은 많이 놀란다. 생각보다 작아서 놀라기도 하고,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며 놀라기도 하고, 와서 떠들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어 놀라고, 알찬 책들이 많아 놀라기도 한다. 하지만 작은도서관이다 보니 큰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에서 하는 문화가 있는 날, 작가와의 만남 같은 행사를 하기에는 좀 벅찼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기쁨마음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6명의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귀하고 멋진 시간을 선사해 주셨다.



www.smalllib.org

가장 먼저 정란희 작가님이 오셔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여성이 많았음에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고, 하늘을 나는 독립군 권기옥님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히 3.1운동100주년을 맞아 3월에 진행한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낳았다.

최향숙 작가님과는 우리가 일상에 치여 보지 못한 들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우리 동네를 거닐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들꽃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주워온 메타세콰이어 솔방울로 팔찌도 만들어 보고 나뭇잎 탁본도 하면서 엄마들이 어린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허은실 작가님과는 어린이들이 꿈에 대해 즐기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한성민 작가님과는 아프리카를 함께 여행하였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대화하는 작가님 덕분에 도서관이 들쭉들쭉했다. 특히 공존그림그리기는 어린이들의 놀라운 상상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이승규 감독님과의 만남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소재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그 바쁘다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내가 아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다양한 감탄사를 들으며 역시! 만화는 즐거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정혜원 작가님을 통해서 정말 몰랐던 우리 판소리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저절로 판소리가 좋아지고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에는 6번의 문화가 있는 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알려주신 매뉴얼대로 진행하다보니 순조롭게 모두 진행할 수 있었다. 사실 사람을 모으고 행사를 치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문화가 있는 날이 한 번 두 번 진행되어가면서 입소문도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느끼며 애쓰길 잘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겼다.

도서관을 알리고 책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감사합니다.



꿈마루 어린이도서관

서
울

‘박채란 작가’와 함께하는 참 쉬운 글쓰기



‘띠링’ 문자소리가 울렸다. 꿈마루 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박채란 작가님과 함께 참 쉬운 글쓰기’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참 쉬운 글쓰기? 웬지 가을에 딱 맞는 주제 같았다. 가을에는 내 이야기도 굵적여보고 책도 읽어지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두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박채란 작가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사실 박채란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까매서 안 더워?」, 「국경 없는 마을」, 「오십 번은 너무해」 등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이였다. 그리고 「국경 없는 마을」을 쓰기 위해 해방촌에서 지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100장의 감정카드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작가님이 그 중 마음에 드는 카드 3장을 골라 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서 고른 카드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사람들과 감정에 대해 서로 나누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좋은 30가지 이유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내가 좋은 30가지 중 1가지 이유를 골라 5분 안에 글을 써내려가는 시간도 가졌다. 정말 주체처럼 쉬운 글쓰기였다. 그 이유는 나에게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쓰고 싶은 말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30가지 중 ‘나는 내가 엄마여서 좋아’ 라는 주제로 글로 써내려갔다. 막힘없이 줄줄 써 내려가고 있는데 5분이라는 시간제한으로 아쉽게 글을 마무리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나는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사실 도서관에 오기 전 아이들을 등원시키면서도 엄마는 참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엄마여서 좋고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듣는 데도 눈물이 났다. 글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는 힘이 있구나! 말 뿐 만이 아니라 글도 그렇구나! 라고 느꼈다.

이번 박채란 작가님과 함께한 2시간을 통해서 글쓰기가 재미있어졌다. 글보다는 말이 먼저였던, 글보다는 말하는 것이 쉬웠던 내가 이제는 글을 쓸려고 연필을 잡고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예쁜 색 종이 위에 오랜만에 잡아 본 연필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박채란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나와 이야기”



술술 더위가 시작되던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진행되었다.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해 주셨던 김규택 작가님은 ‘어린이도서관 꿈틀’ 옆에 있는 전동초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래 다른 행사와 달리 좀 더 기대가 되었다.

활동은 초등학교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도서관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도서관으로 들어오신 작가님은 큰 키에 활력 넘치는 목소리를 가지셔서 시끌시끌하고 장난이 심했던 참가자들도 내용에 집중하기에 충분하였다.

김규택 작가님은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셔서 현재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림을 좋아하는 몇 명의 참가자들이 그림 작가에 대한 관심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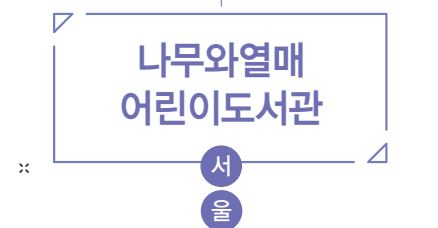
이기도 하였다. 또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신 그림책 ‘공룡개미 개미공룡(김성화, 권수진 글/ 김규택 그림/ 토토북)’을 읽어주시고, 그림책 그림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중간중간 호기심에 질문이 많았는데, 작가님은 적절히 대답을 해주시고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이 진행되었다.

그림책을 다 읽고 난후에는, 간단한 소재에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주셨다. 이야기 중간중간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많아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명 후 정리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OX퀴즈를 진행하였는데, 답을 맞춘 참가자에게 직접 준해해 오신 그림책을 선물로 주셨다. 퀴즈로 맞추고, 작가로부터 그림책을 선물로 받는 기회가 되어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 같다.

참가자들은 ‘바나나’를 소재로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이야기 ‘바나나傳(전)’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책자에 글을 쓰기 전, 상상을 하고 뭐가 만들어내는 것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하지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가 만들어낸다는 것에 뿌듯해하였다. 각자 쓴 글은 작가님과 함께 보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읽어주는 시간도 가져보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만든 책 ‘바나나전’에 작가님 싸인을 받으며 작가님과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바나나’라는 공통의 주제로 각자의 상상력이 더해지면 다양한 글이 나온다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었고, 작은 책자를 완성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그림 작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볼 수 있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나무와열매도서관」에서...



나무와열매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두 반가워하고 관심을 가져주셨다. 예정된 작가님들과 프로그램을 보니 너무 기대가 되고 2019년도 참 풍성한 활동과 결실이 있겠구나 싶었다. 여름이 막 시작된 6월의 마지막 목요일에 김은의 작가님을 모시고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였다. 글쓰기에 대해서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안오면 어쩌까 생각하고 고민이 되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어른들이 있어 조금은 안심이었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더하지 않나 싶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질문을 따라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써 나갔고 작가님도 열심히 칭찬의 피드백을 주셨다.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정말 샘솟듯 몇 줄 씩 글을 써나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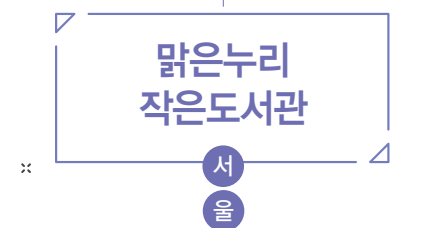
글쓰기는 어렵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다. 다음은 아이와 함께 참여한 엄마의 참여소감문이다.

김은의 작가님이 어른이 들으면 더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나를 발견하는 글 쓰기」에 초등학교 마음이 되어 함께 참여했다. 책, 어린 친구들과의 수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작가 선생님은 “작가는 무엇일까?,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관찰하기, 다르게 생각하기, 글을 쓰기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다.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아이들과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끌어내는 부분이 좋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산만한 행동을 해도, 집중하지 않을 때도,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또,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감동의 하트 눈빛을 보내는 모습은 더 아름다웠다.

아이들의 대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았고 그 자체가 시 같다는 생각을 했다. 두 시간의 짧은 수업으로 글쓰기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은 달아났다. 쏟아내는 말이 곧 글이 되고 멋진 표현이 되었다. 수업을 끝내고 모여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주제를 주고 쓰는 시간만 주어도 글쓰기가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글을 발표할 때마다 내가 쓴 글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워 마구 접기도 했다. 드디어 발표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생각하는 것도 좋았고 이렇게 쓴 글에도 칭찬을 해주시는 김은의 선생님 있어 다행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주제를 정해 글 쓰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아이들 말을 들으며 칭찬하고 감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혹시 선생님한테 질문 있나요?” 이 말에 번쩍 손을 들었다. 50권 이상의 책을 쓰고 계신 선생님은 언제 글을 쓰시는지 어떤 곳에서 글을 쓰는지 궁금했다. 김은의 작가 선생님은 최근까지 집 옆에 작업실이 있어 아침에 출근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글을 쓰셨다고 했다. 지금도 집에서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자유시간을 갖는다고 하시며 웃으셨다. 많은 시간을 글과 함께하는 선생님이 대단해 보인다.



2019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 5층에서 새마을문고로 출발하였다. 대부분의 새마을문고들이 그러하듯이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의 봉사활동으로 유지되던 중, 작은도서관들의 적극적이며 활발한 활동과 주민들의 지적욕구에 발맞추어 2017년 금천구에서는 공공 작은도서관을 구직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며 전담운영자를 배치하고 낡은 시설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그 선두에서 ‘주민센터 5층 옥상’이라는 위치적 특징을 활용하여 한 쪽 벽면을 허물고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줌과 동시에 옥상에 데크를 깔고 화단을



만들어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 찾동 사업과 함께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보다 다양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작은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다행히도 인맥을 동원하여 작가님들을 섭외하는 횡재를 제외하면 작은도서관에서 유명 저자와의 만남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항상 좌절하여야만 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선정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도화선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여섯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한 문화가 있는 날은 그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추억이었다.

작가님들의 저서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 평소 영유아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이었던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의 대상을 유치원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학부모, 65세 이상 어르신 등등으로 진행을 했었다.

작은도서관 밴드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할 때마다 느꼈던 설렘, 작가님들과 전화를 주고받을 때마다의 떨림, 문화가 있는 날 새벽에 설치된 잠자리와 작가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들려오는 참석자들의 폭발적인 반응들.....

전국에서 선정된 100곳 가운데 한 곳으로 누렸던 이 호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함께 추억 속으로 간직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지만,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가끔씩 문자를 통해 안부를 묻고 있는 작가님들과 모친상을 치른 일주일 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셨던 작가님들의 열정들이 아직도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3.1운동 100주년에 맞추어 진행된 문화가 있는 날 첫 작가였던 정란희 작가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려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치원생 한 명 한 명 모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두의 의견을 이끌어 내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기회를 주셨던 박혜선 작가님, 새로움에 밀려 멀어지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들을 상기시켜 주셨던 정혜원 작가님, 글쓰기를 두려워하던 초등학생들에게 신나서 깔깔거리며 글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한 권의 책으로 똑딱 완성시켰던 마법을 보여준 김규택 작가님,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꿈을 이야기 하며 꿈속의 나와 지금의 내가 화해하는 시간이 되어 답답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라며 눈물을 쏟게 만들던 허은실 작가님, 놀지 못하는 아이가 아닌 놀 시간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상기시키고 반성하게 만들어준 김희님 작가님,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한다.





삼성도서관의 문화가 있는 날!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19년의 마지막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날이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여러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왔지만 예술보다 책에 관련된 문화행사와 어린이 행사만 주로 하다가 삼성도서관으로 이동 후에는 성인행사가 많아져서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불안했다.

2019년 2월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을 한다가에 용감하게 신청해서 강사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일 불안한 것이 과연 이 지역 이용자들이 얼마나 참석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절반이상은 어린



이프로그램보다 성인프로그램으로 요청했다. 다행히 매 회 신청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참가해서 강사님들 보기 미안한 상황은 만들지 않았지만 최근 출산율을 눈에 보여주듯 어린이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소수였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는 박지숙 선생님의 '책이랑 바느질 - 책 속 주인공아, 나와라!' 였다. 대상자는 성인으로 신청자는 10명이 넘었지만 각자 준비물이 있으니 혹시 준비하지 못 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불안했는데 늦게 오더라도 11명이 참석을 했고 다들 준비물도 잘 챙겨와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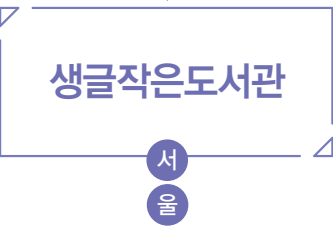
처음에는 2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형을 만들면 손가락 인형 같은 소품들이겠지 싶었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인형은 작품이었다. 학교 다닐 때 가사시간에 숙제로 낸 저고리 이후 처음 하는 바느질이였다. 박음질이 뭔지 홈질이 뭔지 공그리기가 뭔지 다 잊고 살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교 다닐 때 배운 바느질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다. 더불어 내 손가락에 구멍도 생겼다. 다들 바느질을 하면서 강사님이 읽어주는 '너무너무 공주'의 내용을 들으면서 공주에 대한 이야기와 왕은 마지막소원으로 무엇을 빌었을까를 이야기했다. 딸의 행복을 바랬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마 참가자들이 어머니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다. 나는 바느질을 하면서 할머니가 생각이 났다. 바느질에 관심도 없이 시간 나면 책만 읽던 손녀가 가사시간에 내준 숙제라고 손가락에 바늘 구멍을 만들어가면서 한 땀마다 한 번씩 '아아'거리며 저고리에 동정을 다는 것을 보시고는 30분이 지나도록 반을 겨우 단것을 보고 결국 이리 내라며 빼앗아서 마무리해주셨던 기억이 났다.

나는 이번 수업시간에도 인형머리를 공그르기로 몸통에 달면서 한 땀에 손가락에 구멍 하나씩을 만들었다. 그 때와 달라진 거라면 그래도 땀땀 할망정 내 힘으로 완성했다는 것이었는데 강사님이 공그르기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라고 했다. 공주인형의 머리를 뜯어내면서 아 정말 나는 바느질과 안 맞구나 싶었다. 2시간에 완성하기엔 시간이 모자라서 강사님의 배려와 교실을 대관해 준 센터의 배려로 한 시간 더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고 인형은 완성에 가까워 졌다.

강사님이 준비해주신 재료는 똑같았는데 완성된 인형은 다들 달랐다. 바느질 솜씨도 솜씨지만 공주의 표정이랑 옷 모양, 머리모양 등에 각자의 개성이 묻어났다. 웃는 얼굴, 토라진 얼굴, 슬픈 얼굴 등 나의 공주인형은 숨을 많이 먹어 뽕뽕한 뺨살을 자랑하고 있었다.

완성된 인형도 있었고 미완성된 인형도 있었지만 인형들을 모아서 단체사진도 찍고 다들 즐거운 하루였다. 다들 다음에도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속된 수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의 마지막프로그램이 유종의 미를 거둔 거 같아서 기뻐다. 이번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속성 프로그램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참가자들이 평소 접하지 못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지원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분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감사한 날들이었다.



지구별에서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기



헤어스타일에서부터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한성민 작가님을 모시고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행사를 하였다.

선생님은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경력에 동식물을 좋아하고 환경에 관심이 많으시며 그림책에 매료되어 <빨간 지구 만들기, 초록 지구 만들기> <행복한 초록 섬> <안녕! 만나서 반가워> <조용한 밤>의 작품 활동을 하셨다.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아프리카 나마비아 에토샤 국립공원 여행사진을 보며 함께 감상을 나누면서 페이퍼 커팅으로 만든 <조용한 밤> 책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돕고 사는 두 동물 혹은 물건을 opt에 그려 이를 한데 겹치는 작품을



만들었다. 짝꿍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발휘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어 더욱 좋았다. 참가자들이 저학년이라 공존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친숙한 동물을 매개로 쉽고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하였다. 약간은 어려울 것 같은 우려와는 달리 참가자 대다수가 가장 좋아 한 수업이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소장 책에 예쁜 코끼리를 그려가며 멋진 사인을 해 주셨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어른들과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은 흥미롭고 울림 있는 시간이었다.

참가자의 소감 한줄

- 예은**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짝을 지어 상의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니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수업이라서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다.
- 은서** 아프리카에 간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선생님도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마법이 있다.
- 채연**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활동, 그리고 책까지 모두 좋았다. 남아프리카로 갔던 선생님의 모험(?)이야기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다. 한편으로 놀라고 무섭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로 책을 만든 것이 놀라웠다.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주제로 짝 활동을 했는데, 기린과 코끼리를 그렸다. 기린은 목이 길어서 적이 오는 것을 일찍 발견하여 도망가면 코끼리가 같이 달아나고 코끼리는 힘이 세서 기린을 보호 해주며 서로 돕고 산다.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 소연** 선생님과 아프리카 여행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기가 가장 재미있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아프리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용한 밤>이라는 책을 만드는 방법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이 수업을 또 듣고 싶다.
- 지수** 아프리카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설명해주었다. 거기에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마지막에 은서랑 짝지어 은서는 사람을 그리고 난 옷을 그렸다. 옷이 없으면 사람은 벌거벗은 것이다.



서초포레스타3단지
작은도서관
서
울

애기똥풀같은 녀석들



우리 집 큰아이는 봄에 산책을 하다 만난 화살촉나무의 새순을 뜯어먹으며 토마토 맛도 나고 돌나물 맛도 난다며 원래 화살촉나무의 새순은 무슨 맛이냐고 물어본다. 토마토를 많이 먹어서 토마토 맛이 나오는 거냐며 화살촉 나무와 대화를 시도하고, 너무 많으니까 ‘찌꺼 따먹어도 나무가 아프지 않겠지?’ 라며 자기 위로도 한다.

놀랍게도 이렇게 자연과 같이 생활하는 아이가(그리고 우리가족은) 서초에 산다. 처음 꿈자람 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숲에는 무엇이 살까 - 도서관 주변의 숲 이야기] 라는 활동이 있다는 소리에 ‘이건 내가 꼭 들어야해’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신청했다. 두 돌 갓 지난 둘째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서 아이동반 수업이 가능한지 강사님께 여쭙보고 같이 활동을



듣기로 했다. 약속했던 오전 10시 30분 활동. 그런데 활동참여자가 나까지 3명. 무료라는 이유로 활동을 마구잡이로 신청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인가 하고 참여자 명단을 보니 처음부터 신청한 사람이 4명 밖에 없었다. 아직 숲 이야기 라는 타이틀은 성인들은 재미없고 아이들은 지루한 수업으로 인식되어 있는 듯 하다. 나처럼 시골출신 사람들만 이런 자연이야기에 더 흥미를 갖고 들으려고 한다는 시골사람부심!! (시골 사람이라는 자부심)

우리 동네 숲 이야기를 들려주실 강사님이 도착하셨는데 양손엔 짐들이 가득, 얼굴에는 땀이 흥건, 겨울 숲 이야기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일등공신 솔방울 리스가 빠질 수 없다며 미리 솔방울을 따다 준비해 오셨다. 솔방울이 습기를 머금으면 오므라들고 건조해지면 가시를 쫓 펴치는 아주 작은 매직을 선보이며 활동이 시작되었다. 솔방울들을 털실에 매달아 나뭇가지에 하나씩 거는 것인데 그 단순한 작업에도 겨울향기 물씬 소품이 탄생한 것을 보니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하는 탄성을 자아냈다.

수업 참여자 3명에서 만들기를 끝내자 강사님은 원래 목적인 도서관 주변의 숲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도서관 밖으로 이끌어주셨다. 평소 산책을 하면서 집을 오가면서 지나갔던 이곳에 무슨 이야기를 할 만한 풀들이 있을까 싶었지만 역시나 강사님의 눈에는 설명해야 할 풀들만 가득하셨나보다 몇 발자국 걸지도 못하고 “이 풀은 요?”, “이 풀이 뭔지 아세요?”, “이 나무의 열매를 찾아보세요” 등등 작지만 알찬정보들을 궁금증을 유발해가며 알려주셨다.

활동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후기를 쓰면서도 간간히 생각나는 여러 풀 이름과 그때의 경험이 생생하다. 8배 루페로 보는 이미 꽃잎이 떨어져나간 몽오리, 아직 웅크리고 있는 몽오리, 씨앗을 다 뿌리고 제 할 일을 마친 나뭇가지, 국화의 꽃향기를 담백 머금은 산국화, 씨앗을 품고 있는 질경이와 씨앗을 퍼트린 질경이를 비교 등등 도서관 주변 채 스무 걸음도 하지 않은 거리에서 이토록 다양한 식물이 숨어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큰아이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엄마가 이런 것도 안다고 아이의 ‘엄마최고! 눈빛을 한번 더 보려고 수업을 신청했는데 내가 눈을 빚내며 수업을 경청하고 있었다. 수업을 다 듣고 와서 집에 있는 식물도감을 펼쳐서 배운 것을 찾아봤지만 역시 책에는 사진이나 삽화로 사실을 나열하지 자연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지는 않는다. 역시 할머니께 듣는 옛날이야기가 재미있듯이 전문선생님께 듣는 자연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여름즈음에 온 가족이 산책을 하면서 애기똥풀을 만났다. 한줄기를 꺾어서 손톱에 찍어 바

르던 큰아이가 “엄마 나 왜 이 꽃 이름이 애기똥풀인지 알겠어. 소울이 똥색깔이랑 정말 똑같애” 그러면서 동생한테 “너는 애기똥풀이야.”

아직은 길가의 풀 중에 아는 이름이 애기똥풀 밖에 없는 아이 이고 풀 이름부터 열매, 씨앗, 새순맛 등등 배워야 할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렇게 시나브로 한다면 (물론 책에 있는 사진 한 페이지 보는 것보다 지적으로는 향상되는 것은 느리겠지만) 진짜 아이의 삶이되어 잊혀지지 않는 한 걸음이 된다고 거창하게 말하며 이 글을 끝내겠다.



세곡도서관

서
울

누구나 '꽃'



봄의 향기가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는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서울에 위치한 세곡도서관에 특별한 선생님이 오셨다.

자신을 나무선생님이라 소개하신 이효립 선생님께서 어색함을 풀기위해 하신 첫 말씀

“오늘은 즐겁게 놀아봅시다! 예쁜 천 가지고도 놀고 나무인형 탈 쓰고도 놀고!”

참여한 대상이 유치원생부터 중학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던 터라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활동이 진행될수록 서로를 쳐다만 봐도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 새 친해진 언니와 오빠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 갔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 협력하여 얻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이다.



활동 제목은 ‘누구나 꽃’으로 내용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몸짓과 목소리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오신 종이인형 소품과 형형색색 천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며 연극을 완성하는 수업이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끌어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서 아이들 스스로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게 하셨다.

첫 번째 연극 주제는 “소리 먹는 바다의 괴물 이야기”로 그 제목을 듣고 팀을 나누고 이야기를 만든 다음 알록달록한 천을 선택하고 바다도 표현하고 괴물도 표현하고 왜 그 괴물이 소리를 먹게 되었을까? 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면서 분위기 속에 어색함이 사라졌다.

잠시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준비해주신 유기농 블루베리와 도서관에서 준비한 상큼한 자두를 서로 나눠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 뒤 본격적으로 종이인형 소품을 하나씩 선택하여 모두가 자연이 되어 야외로 나가 나무와 꽃이 되어 스스로를 표현하면서 주위의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집 주위에 나무가 많이 없어서 속상해요”

“집에 갈 때 씨앗을 사서 심고 싶어요.”

활동을 마치고 발표했던 아이들의 순수한 소감들이었다. 집에 가기 아쉬워하던 한 아이, 한 아이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던 선생님 모습에 섰다.

세곡도서관에 이렇듯 연극, 목공, 국악, 작가와의 만남 등등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더없이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멀리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활동을 기다려주신 열심인 선생님과 무거운 가방에 다양한 소품들을 가지고 기꺼이 찾아와주셨던 열정적이셨던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주신 문화가 있는 날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맘을 전하고 싶다.



작은도서관
함께크는우리서
울

감사한 마음으로...



도서관이 이전을 했다. 도서관 근처의 아파트가 재건축 되면서 10억을 훌쩍 넘게 매매되는 상황에 놀라움이 가득한데 주변의 시세가 들쭉이면서 도서관은 자리를 지킬 수 없이 밀려나게 되었다. 다행히 좋은 곳을 구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 보금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전을 하면서 도서관 문을 한 달 동안 닫았기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일정이 밀려있었다. 도서관이 제 모습을 찾으면서 밀렸던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웹자보를 만들고 소식을 알렸지만 새로운 곳이라 홍보도 어렵고 기존 회원들은 지역축제 일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외부강사가 오는데 사람이 안 모이면 얼마나 애가 타는지 행사하시는 분들은 알 것이다. 적정대상의 회원들에게 따로 전화를 돌리고 참석을 부탁드렸다. 살살이 전화를 한 덕분이지 인원이 채워졌고 나는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행사 날이 되고 강사님이 한 짐을 가지고 오셨다. 상자를 풀 때마다 종이로 만든 꽃 모자와, 하늘하늘 고운 빛깔들의 천, 탬버린과 소리를 내는 여러 타악기들을 보면서 새로운 활동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강사님과 인사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둥그렇게 앉아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한 아이가 동생과 장난치며 떠들어댔다. 강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도 듣지 않고 장난이 계속 되었다. 그 아이가 활발한 건 알고 있었지만 활동은 따라가는 모습을 봐서 별 걱정을 안했는데 오늘은 아이 엄마가 봉사를 가서 같이 참석을 안했다. 한명이 아쉽고 내가 보면 괜찮겠지 생각해서 사정을 알고도 참석을 부탁했는데 도저히 아이의 장난이 끝나지 않았다.

아이는 강사님의 말을 듣지 않고 간식은 따로 먹을 시간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자리를 이탈해 간식테이블로 가면서 활동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다. 아이와 친한 친구도 동조하면서 같이 장난이 시작되어 활동진행이 되지 않았다. 장난치는 아이 손을 잡고 달래보고, 얘기를 해봐도 장난은 계속되었다. 활동이 진행이 잘 안되니 강사님께서는 죄송하고 다른 아이들의 불편한 시선도 느껴지고 참석을 부탁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다. ‘장난치는 아이들은 제가 보고 있을 테니 강사님은 활동에만 집중해주세요’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자기 소개, 조를 지어 손으로 꽃 만들기, 천을 각자 골라 옷으로 입기, 배와 바다를 표현하기 모든 활동 과정에서 장난치는 아이를 달래고 기다려 주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

마지막은 종이로 만든 꽃 모자를 쓰고 타악기를 두드리면 근처 공원으로 행진하는 것이다. 도서관을 나와 행진을 하려는데 장난치는 아이가 행진을 거부하며 주차장으로 숨었고 강사님과 나는 아이를 찾아 다독였다. 나는 ‘그래 정 싫음 행진은 하지 말자’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단호하면서도 애정있게 아이의 참여를 권하였다. 아이는 자리로 돌아와 우리는 꽃 모자를 쓰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몸을 감싼 새로운 존재가 되어 행진을 무사히 마쳤다.

활동을 충분히 느낄 수 없었던 것,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흐름을 끊긴 점은 다른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쉽다. 더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해서 강사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 한명의 아이를 같이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얘기해주는 모습에서 또

배운다. 이만하면 됐다가 누구를 위한 건지. 같이 하는 모습은 힘든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걸. 활동이 끝나고 처음 보는 저를 안아주고 가신 넉넉한 마음도 감사하다.

도서관에 아이가 왔다. 아직도 장난은 여전하다. 아이는 “나는 저 선생님이 제일 좋아.” 하면 나를 가르킨다. 뜻밖에 고백에 고맙고 진하게 껴온 그 시간이 생각난다. 그 아이를 바라 본다. 내 마음이 전해졌음을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서 나에게 고백으로 왔음을 감사히 여긴다.



작은도서관
함께 크는
우리



초록숲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활동~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개관한지 1년이 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아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

역시나 선정도서관에서 제외되었고 올해는 안 되는구나 하고 있던 차에 다른 도서관에 사정이 생겨 ‘초록숲작은도서관에서 이어서 진행 할 수 있나요’ 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다. 작은도서관은 예산문제로 다양한 분야의 작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사정인데 추가로 선정 되서 한 해 알차게 진행하게 됐다. 다른 도서관에서 1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터라 초록숲은 5번만 진행하게 됐다.



첫 번째 활동은 그림책 주인공을 인형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는데 참가자들이 처음 해 보는 활동이라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다. 인형을 보면 아이들이 더 그림책에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하시며 열심히 바느질을 했다. 활동 전에 다른 도서관의 그림책 주인공 인형 만들기 사례를 보여주어 참가자들에게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좋았고 재미있게 책도 읽어 주셔서 인형뿐만 아니라 책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해주셔서 더욱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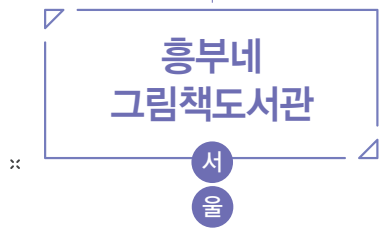
두 번째 활동은 그림책 작가가 직접 본인의 책을 소개하고 책 속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니 재미있어 했다. 낙엽 만들기는 어린 시절 미술 시간이 생각났는지 동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면서 그 사람을 열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도형으로 ‘나’를 표현 한 후 설명하는 시간은 내가 모르는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세 번째 활동은 동시 작가님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동시를 읽어 주시고 재미있는 활동을 해주셨다. 처음에는 동시 쓰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선생님이 동시를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자 재미있어 하며 계속해서 동시를 쓰고 싶어 했다. 활동이 하루밖에 안 되는 것을 아쉬워하고 집에서도 시를 쓰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가장 뿌듯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활동은 환경에 관한 그림책을 읽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살릴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섯 번째 활동은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참여한 연극놀이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연극이라 해서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 보였는데 놀이처럼 연극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값진 체험을 한 것 같아서 감사했다.

행정 처리부터 활동준비물 까지 전부 다 세심하게 지원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레는 수요일, 행복한 수요일



홍부네그림책도서관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그림책으로 가득한 작은도서관이다. 그림책은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만 읽는 책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그림책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공고를 보고 “이거다!” 싶었다. 작은도서관의 힘만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작가님, 문화예술 관련 강사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해진 결과? 사업 대상 도서관으로 선정 된 것도 기쁘게 우리 도서관에 오시기로 결정된 분들의 명단을 받고는 한 번 더 놀랐다. 만나고 싶었던 그림책 작가님들이 계셨으니까.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는 달이면 마지막 주는 기대감으로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봄비가 오던 4월에 처음 만난 강사님은 강무홍 작가님이셨다. 따뜻하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해 주신 활동을 듣고 모두들 얼마나 감동에 벅차올랐던지 활동장이 울컥 울컥 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참여자 분들이 남겨주신 소감들을 옮겨 본다. “나라는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 나의 목소리를 나 스스로 하찮게 여겼었지만...”, “내가 학생 때 선생님의 ‘책’을 만났더라면... 역사를 정말 싫어했던 흑역사를 ‘장미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5월에는 도서관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인형극을 보았다. 유아부터 엄마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도서관 안이 이용자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6월에는 칼(!)을 들고 만났다. 바로 한성민 작가님과 아프리카 여행으로 만들어진 그림책 이야기도 듣고, 페이퍼커팅 기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 작가님과 참여자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어른들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직접 만든 페이퍼커팅 작품들은 유리창에 나란히 붙여서 도서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8월에는 더운 여름을 코발트블루로 파랗게 물들인 ‘파란 파도’의 유준재 작가님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만났다.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파란 말을 종이에 찍어보는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활동을 했다.



11월에는 김병하 작가님과 어른들이 만났다. 그림책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그림책 이야기, 작품을 만드실 때 자연과 사람을 대하는 작가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달되어 문화가 있는 날 강연 중 가장 긴 사인회 줄이 만들어졌다.

문화의 날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11월은 ‘둥~둥~둥’ 북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그림책을 악기 연주로 읽어주시는 색다른 경험이었다.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들이 많이 모인 강연이었는데 작가님의 유쾌한 말솜씨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주는 기다리는 설렘, 다양한 경험과 감동의 시간이 주는 충만함, 그 덕분에 행사를 치르고도 일이 주는 피곤함 대신 보람으로 마무리 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감사하다.



가능동
작은도서관경
기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마치며...

가능동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워크숍에 참석, 강사와의 만남을 가졌었다. 작은도서관을 처음 맡게 된 나에겐 첫 공모사업과 워크숍 참석은 큰 설렘과 떨림이었다.

3월 첫 문화가 있는 날 - 유준재 작가님의 “파란꿈속으로의 여행”

초등학생 15명과 학부모들이 작은도서관에 모였다. 작가님 소개를 하는데 내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도 작가님께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빔프로젝트 강의



시작으로 “파란파도” 작가님이 직접 낭독하여 주시고, 그림책들의 제작 동기, 그림에 대한 설명 해석 등이 이어 졌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책을 아이들 책이라 생각하고 읽어주기만 했던 어른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남기는 시간이었다.

체험으로는 실크스크린 체험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4월 문화가 있는 날 - 이승규 강사님의 “나도 어린이 애니메이션감독!”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제작원리를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집중도가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다. 화면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절로 지어졌다. 뒤에서 바라보시던 부모님들도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서인지 강사님 말씀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다.

체험으로는 소마트로프 체험과, 플리북, 매직볼 체험, 조트로프 만들어 회전시켜 보았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체험으로 기억 될 것이라 생각한다.

5월 문화가 있는 날 - 김정선 강사님의 “우르르 산토끼와 함께 떠나는 놀이여행!”

“괄이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도서를 읽어주시고, 그림책 속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학년 친구들이라 어수선 할 줄 알았는데 강사님께서 집중 시키는 모습이 매우인상 깊었고, 모양마술 실패기 배우고, 야외 놀이터로 하였다. 놀이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뛰어노는데 정신이 없는 친구들,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괜한 걱정이란 생각이 들게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했다.

6월 문화가 있는 날 - 최향숙 작가님의 “우리 동네 숲에는 무엇이 살까?”

“우리 동네 숲에는 무엇이 살까” 의 배경인 정발산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야외로 나가서 꿩이꽃, 제비꽃, 민들레, 라일락, 등 꽃잎과 씨앗을 확대경 루페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다. 사실 6월 문화가 있는 날은 걱정이 앞섰었다. 성



인 대상으로 직장이나 아이가 어리거나 해서 참가신청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해주신 9명의 어머님들이 너무 너무 좋았으며, 모르는 것도 알고 간다며 칭찬의 말씀을 하시니 뿌듯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체험으로는 메타세콰이어 열매를 이용, 팔찌 등 생태놀이 작품 만들고, 풀잎과 꽃잎으로 손수건 물들이기를 하였다. 그냥 지나쳐 버리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알게 해주신 강사님 감사합니다.

8월 문화가 있는 날 - 한성민 작가님의 “지구별에서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기!”

작가님의 아프리카 여행기를 들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 혼란, 물 부족 등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체험으로는 짝을 지어 공존하는 그림 그리고, OHP필름지에 친구 그림과 붙여 작품 완성. 지구에서 동물들이 함께 사는 법에 대해 배우고 느끼게 해준 작가님 감사합니다.

10월 문화가 있는 날 - 권오현 강사님의 “너는 특별해”

동그라미로 둘러앉아 자기소개로 시작, 팀 짜고 팀 이름, 팀 선장, 팀 구호를 만들었다.

신문지 놀이(신문지 배 놀이, 신문지 눈 놀이) 하고, 야곱 인형극 보고, 야곱에게 도움주기, 야곱의 답장, 지금 나의 기분 말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신문지 배 놀이를 할 때는 서로 떨어지지 않게 꼭 붙잡아주고 업어주고, 아이들의 협동심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신문지를 찢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며,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야곱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 팀원과 토론을 할 때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진중한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똑같을 수 없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강사님 감사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주최 측과 주관하신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고양 작은도서관

경
기

고양동에는 우리 고양 작은도서관이 있다



고양시에서 가장 외진 작은 동네, 고양동에 우리 고양 작은도서관이 있다.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데다가 문화의 거점이라고 불릴만한 곳이 없어 사람들은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많이 모이는 편이다. 위치도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복지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어, 도서관엔 늘 사람들로 붐빈다. 그런 곳에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무슨 구경을 하러 나온 건지,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 15~20명, 아이들 따라 나온 가족들,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그런 날이면 도서관엔 자리를 잡고 앉기가 힘들 정도로 북적인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날이 진행되던 5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도서관은 깔깔거리는 웃음과 상기된 붉은 얼굴들로 활 달아 올랐다.

경
기

5월 우리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박지숙 강사님은 목소리가 참으로 낭랑하고, 소녀 같은 분이셨다. 허은미 선생님의 「너무너무 공주」를 읽어주셨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큰소리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은 그 목소리에 집중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책을 다 읽고, 내용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공주 인형을 한땀 한땀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바느질은 아이들에서 어머님들 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었다. 거의 완성될 즈음, 여기저기서 이제 애와 정들어 내가 가져야겠다 하시는 어머님들과 그런게 어딴냐며, 내꺼라고 우기던 아이들과 한참을 실랑이하던 일들이 떠오르고, 어머님들의 바느질 코치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마다 “고양작은~~~”을 외치며, 주위를 환기시키시던 박지샘, 모두 생각이 난다. 그렇게 우린 2019년 문화가 있는 날을 스타트 했고, 참여한 아이들, 어머님들 모두 만족하며, 다음 달 문화가 있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

6월은 길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르르 산토끼와 함께 떠나는 놀이여행」으로 야외활동이어서 그런지 5월보다 더 많은 아이, 부모님을 합쳐 30명이 모여서 인근 공원에서 민달팽이놀이와 강통술래잡기 놀이를 했다. 여름이 시작되던 그 날, 우리는 한 시간 후면 비가 쏟아질 것이란 생각도 못했고, 비가 오기 전 잔뜩 내려앉고 있는 모든 습기를 온몸으로 받고 신나게 뛰어놀았다. 큰 언니들 사이에서 해보겠다고 덤비던 1학년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앙양’ 울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지친 아이들에게 사서샘이 나눠 준 초코 쭈쭈바에 눈물도 땀도 시원하게 날아갔었던 일들도 너무 좋았다.

7월 「야곱, 너는 특별해」 책의 내용으로 권오현 장군님과 떠났던, 갈라파고스 항해도 생각한다. 팀을 짜서 팀별로 활동을 해야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넓은 강의실을 대관해 활동을 했었다. 신문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접고, 찢고, 모으고의 단계를 거쳐, 마법의 주머니가 되고, 협동심을 발휘해 야곱을 도울 방법을 생각해 내, 몸으로 표현하던 아이들, 상상력을 발휘해 야곱의 답장을 읽어내려가던 모습들.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우리아이들은 어느새,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있었다. 그것을 이끌어내 준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

8월엔 「꿈꾸는 꼬마돼지 울」을 주인공으로 한 문재현 선생님의 인형극을 보았다. 도서관에서 인형극을 공연해 보는 것이 사서의 작은 꿈이었다. 그래서 비슷하게, 작은 공연도 해보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아서 두 번은 욕심내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구성된 인형극을 도서관에서 펼칠 수 있었다. 강사님의 배려로 예비자까지도 인형극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책 속 주인공이 인형극에서 살아 나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올 만큼 선생님의 연기는 아름다웠다. 우리는 울이 실패할 때 함께 슬퍼했고, 꿈을 이루어 내는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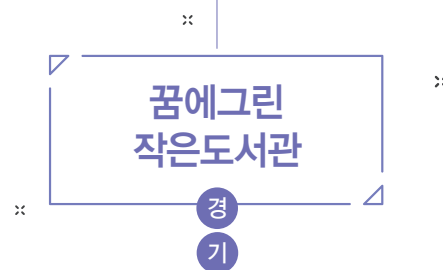
숨죽이며 지켜봤다. “아토”, 선생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문화가 있는 날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되어주었다.

9월엔 「누나랑 노는 특별한 방법」외 다수의 책을 쓰신 매사 긍정과 배려심이 가득하신 김은의 작가님과 만남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고, 잘 쓰는 것도, 못 쓰는 글도 없다. 그저, 지금 나의 생각을 솔직히 글로 담아두면, 그것이 책이 되고, 잊혀지지 않게 되고, 모든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다고 작가가 되는 짧고 명료한 길을 제시해주셨다. 아마도 글쓰기를 힘들어하던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가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니란 걸 알게 해준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10월엔 그림책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시는 기타맨 구샘과의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대영 선생님의 「지하철을 타고서」가 노래도 있다니..! 모두 미리 책을 읽고 와서 그런지 노래 가사 속에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어, 노래도 너무 잘 외워져서, 바로 따라 부를 수가 있을 정도로 친근한 멜로디였다. 그 다음, 「김울리」내짜꿍을 노래로 만든 이 곡은 우리 모두를 랩퍼로 만들어주었고, 「답다」라는 곡은 4학년 친구가 직접 만든 곡이라는데, 어쩔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아직도 콧노래로 부를 만큼 기억에 남아있고, 우리가 불렀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그 답던 여름이 다시 소환될 만큼 4모듬이 뜨겁게 돌림노래로 불려낼 만큼 아주 신나는 노래였다.

이렇게 6회의 문화가 있는 날을 떠올려보니, 그때로 돌아가는 거 같아 다시 아쉽고, 또 신이 난다. 쉽게 도서관에서 하기 힘든 굵직굵직한 행사여서 너무 품이 났었고, 참여한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웃을 수 있어서 보람 있었고, 우리 도서관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했다. 또 한 번 문화가 있는 날의 기회가 우리 고양 작은도서관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신청서를 낼 것이다. 그만큼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우리도서관에 선물 같은 날들이었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한 꿈에그린작은도서관



2019년 처음으로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한 꿈에그린작은도서관이다. 먼저 매 회기 열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해주신 문화예술활동 강사님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처음 문화가 있는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나는 ‘책과 관련된 강의가 재밌을까?’,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을까?’와 같은 여러 궁금증으로 내심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설레며 준비했던 날이 떠오른다. 매 회기 연령대를 불문하고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율을 보고 김포지역의 문화 강의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꿈에그린작은도서관과 함께 한 강사님과 참여자분들의 기억이 떠오른다.

신종수 강사님의 「나무야 놀자」

버려지는 나무로 문패를 활용 한 걱정인형을 만들며, 각자의 고민을 털어보고, 나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소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진희 강사님의 「모두섬 살리기」 강의를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칫 ‘환경’이라는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었으나, ‘환경’을 지켜야 하는 경각심과 더불어 보드게임을 통해 즐거움과 유익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던 활동이었다.

황혜림 강사님의 「안돼 데이빗」

책 속의 주인공 데이빗을 양말인형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잊고 있었던 동심의 세계로 잠시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을 보냈다. 인형 얼굴에 자신의 감정을 담은 표정을 수로 놓으며, 미소짓던 참여자 분들의 표정이 기억에 남는다.

문재현 강사님의 「구름이와 올 인형극」

‘꿈꾸는 꼬마돼지 올’의 인형극은 강사님과 가족분이 직접 만든 인형으로 극을 진행하였으며, 성우처럼, 때로는 연극배우처럼 1인 인형극을 진행한 강사님의 열정에 빠진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라정민 강사님의 「팔랑팔랑 애니메이션」

사진과 영상을 배워본 경험이 없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무색할 만큼 강사님과 참여자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조별로 콘티를 짜고, 논의하는 과정은 서로 어색했던 조원 간에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 결과 활동의 즐거움이 녹아 든 하나의 예술작품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

박형섭 강사님의 「진주성을 나는 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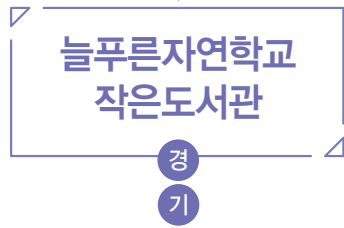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비행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지 못한 기발한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님의 생동감 넘치는 표현력은 한 편의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말 한 마디에 아이들의 웃음이 빵빵 터지고, 흡입력 있는 역사이야기를 함께 진행하셨다.

총 6회기의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활동을 통해 책, 사람, 문화가 하나 되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지역 안의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 충전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끝으로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소소한 이야기에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꿈에그린
작은도서관



시골 폐교를 활용한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가 꽃피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위치한 늘푸른자연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 폐교된 당현분교가 농촌 유학 학교로 탈바꿈 하여 도시에 아이들이 농촌으로 와서 자연 속에서 도시에서 즐기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즐기고 배우는 곳이다. 늘푸른자연학교 작은도서관은 학교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의 마음 양식 창고이자 놀이터, 쉼터가 되고 있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마치며...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된 날 ‘와~~ 어떤 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오시게 될까?’ 기대와 설렘이 시작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하여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설명도 듣고, 늘푸른자연학교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6명의 작가분이 누구인지 떨리는 마음으로 눈여겨 보고, 직접 첫 만남을 가졌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을 만나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들을 들으니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신이 났다.

4월 김리라 작가의 <책 속으로 풍덩! 동화책 ‘나는 엄마를 기다려요’를 읽고 소원 수첩 만들기>

5월 김수민 작가의 <어린이를 위한 아티스트웨이 ‘함께 걸어온 길.....작품이 되다’>

6월 정혜원 작가의 <귀명창과 함께 ‘나만의 평화아리랑’ 만들기>

8월 안선화 작가의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다시 보는 책>

8월 이정석 작가의 <우리가 함께 노래를 만들어요. 룰루랄라~>

9월 박정선 작가의 <그림자랑 놀자!>

김리라 작가를 통해 누구든지 관심이 있다면 작가가 될 수 있음을

김수민 작가를 통해 미술과 책이 만나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정혜원 작가를 통해 다양한 우리 아리랑을 알고, 아리랑 가락에 맞게 작곡도 해봄을

안선화 작가를 통해 버려진 책들도 놀이과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이정석 작가를 통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낭만을

박정선 작가를 통해 그림자를 활용한 예술 표현을

아이들의 추억 속에 새록새록 저장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을 만나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작가가 꿈인 친구는 작가님에게 작가가 되는 방법,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 해야될 일 등 자신의 꿈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책은 깨끗이 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버려진 책들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예술 작품이 되면서 버릴 것이 없다는 교훈도 얻었다.

작사, 작곡도 해보면서 책의 내용이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해보았다.

문화 예술 활동은 마음이 안정되고, 삶의 힐링이 되어준다.

아이들도 즐거운 기억 속에 남아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 밑줄 그어둔 책의 내용처럼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늘푸른자연학교 작은도서관에 문화가 있는 날을 선정해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분들,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주신 작가님들~ 이렇게 인연이 되어 2019년 한해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착 작은도서관

경
기2019년 도착 작은도서관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2019년 도착 작은도서관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처음 시작하며,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도착 작은도서관은 인근에 주민이 적고 이용률이 낮아서 좋은 선생님 모시고 활동할 학생을 못 찾을까봐 걱정이 컸다.

하지만 그건 나의 걱정일 뿐이었다. 첫 활동 때 선생님과 아이들의 반응은 인근 초등학교에 소문이 나고 학교에서 친구 따라 처음 도서관 오는 아이들을 보며, 좋은 활동 하나로 도서관에 새 친구들이 늘어남에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 도서관처럼 지역적으로 문화 소외지역은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번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선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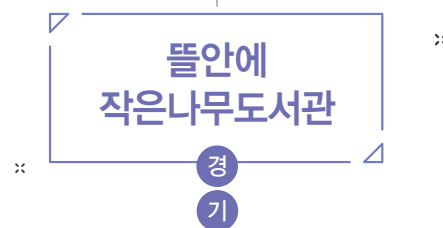


며 인근 초등학교에 홍보도 하고 학교 하교시간 맞춰 아이들에게 전단지도 나눠주며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동네 잔치마냥 들떴고 우리 또한 이 먼 길 오신 선생님이 고맙고 또 고마웠다. 2시간의 활동 내내 아이들과 선생님의 활동만으로 교실 밖 학부모 또한 호기심과 기대감에 도서관 전체 공기가 들떠 있었던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목공 활동이 생각난다. 나무라는 책을 소재를 통해 나무로 직접 목공 작업을 할 때 교실 밖의 학부모도 같이 참여 할 수 있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고,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목공활동이 같이 진행된다는 점이 나 또한 흥미로웠다. “겉쟁이 빌리”라는 책의 내용처럼 빌리는 버려지는 나무를 소중하게 여긴다.

요즘 우리는 버리는 것이 새로운 것을 사는 것이 더 익숙하다. 재활용이나 버린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이 활동을 통해 나 또한 어느 순간 닳고 닳으면 버리고 새로운 것만 찾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도착 작은도서관에 오신 선생님 여섯 분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2019년 작은 마을 도착면에 지역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 주신 문화가 있는 날 활동에 감사하다.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



부천 역곡이라는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을 시작한지 7년째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시작할 때는 6주년 즈음인걸로 기억한다. 지역주민들이 채워주셔서 도서관이 빠르게 지역에 자리 잡았고, 의미있는 활동들로 채워져왔던 6년이었는데, 두 가지 고민이 들었다.

첫 번째 고민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고민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도시의 특성상 많은 주민들이 이사가고, 우리 도서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늘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 두 가지를 필요로 했었다. 새로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만나게 된 사업이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이었다.

6명의 예술가와 작가님들을 통해 여섯 색깔의 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한 책, 다양한 활동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에 6년만에 도서관을 알려보는 시도도 할 수 있었다.

끊임없이 사람이 스쳐지나가는 작은도서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으나 그것을 실전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작은도서관. 그 6년째에 새로운 시도의 용기를 주었던 사업이다. 모든 프로그램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이 사업에는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고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리버팰리스
작은도서관경
기2019 리버팰리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이야기

1. 리버팰리스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52 소재 10,006세대의 아파트단지, 자연환경과 어울린 쾌적한 현대식 건물에 390.462㎡(118평)규모에 열람 80석, 2만2천권의 서가 대, KOLAS-III설치로 도서 등록(현재 11,565권)과 관리, 대출·반납, 보안시스템 설비, 이용 월평균 ±500명, 문화 복지향상을 위해 매월 영화상영,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와 무선마이크를 완비하여 문화행사(문화가 있는 날, 치매인식개선 교육, 동아리 활동(손뜨개, 맛 간장, 타일트레일, 에코백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책을 읽고 정보를 나누는 도서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되고 있



는 대한민국의 최 서북단에 위치한 시골의(당동 6里) 작은도서관이다.

2. 강사활동

● 1차 활동(4.27.토, 14:00~16:00), 강상구 강사 : 〈그림책을 읽자 그림책을 노래하자〉의 주제로 초등학생(저학년) 10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을 타고」 등의 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같이 배우고 불러보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였다.

● 2차 활동(6.1.토, 14:00~16:00), 최향숙 강사 : 〈우리 동네 숲에는 무엇이 살까요?〉란 주제로 초등학생(1~4학년) 16명(남 6, 여 10)을 대상으로 「엄마 까투리」 등의 책을 읽어주고,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해 문학적·예술적 감수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한 활동을 하면서 풀과 꽃, 나무 등을 관찰하는 생태학습으로 꽃과 풀잎의 천연재료로 염색을 하여 손수건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 3차 활동(6.29.토, 14:00~16:00), 신종수 강사 : 〈나무야 놀자〉의 주제로 초등학생 및 학부모 등 20명을 대상으로 「겉잡이 빌리」 등의 책을 읽고,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자투리 전지목(가지치기 나무)을 재료로 문패, 걱정인형을 만들어 아름답게 색칠하여 창의적인 목공놀이 활동을 하였다.

● 4차 활동(8.31.토, 14:00~16:00), 김은의 강사 :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란 주제로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누나랑 노는 특별한 방법」 등의 책을 읽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를 한 후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자신이 쓴 글을 낭독하고 그림을 그리며 개인별로 글과 그림에 대한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5차 활동(9.25.수, 10:00~12:00), 박채란 강사 : 〈작가와 함께하는 참 쉬운 글쓰기〉의 주제로 성인(남여) 5명을 대상으로 「국경 없는 마을」 등의 책을 소개하고, 단어카드를 각자 선택한 후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각자의 장점에 대해서 기술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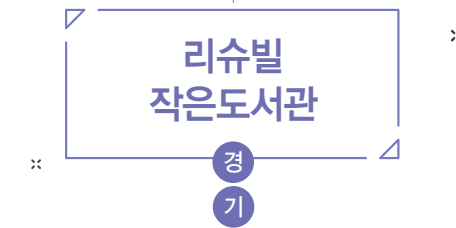
● 6차 활동(11.2.토, 14:00~16:00), 안선화 강사 :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다시 보는 책>의 주제로 초등학생 저학년(13명)과 학부모(7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흔들흔들 다리에 서」 책을 읽어 주고, 내용상에 전개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낡고 오래되어 폐기된 책을 활용하여 팝업 북을 만들고, 독후감을 쓰고 발표한 시간을 가졌다.

3. 사업성과(사업을 마치며 생각나는 것들)

훌륭한 강사들이 시골의 작은도서관까지 오셔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심으로써 지역주민 및 아파트입주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강사님에게 고사리 손을 내밀며 사인을 부탁하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미소 가득한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신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리버펠리스
작은도서관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20명 남짓한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리슈빌작은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매번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우리 보조금 들어오면 문화프로그램 좀 넣어볼까요?”

“좋죠! 캘리도 재미있고, 바리스타 활동도 좋고, 아이들 독서활동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럼, 강사섭외하고 일정 및 관리를 한 쪽지씩 맡아서 해 보면 어때요?”

“아....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난 낮을 많이 가려서.”
“알잖아. 나 컴맹인 거.”

화성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도서관에 변변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대상 도서관에 선정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과 재미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던 강사 섭외 및 운영을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에서 진행해주니 우리는 부담없이 작가님들이 가지고 온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작가님들과 함께 한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즐거운 추억이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이효립 선생님의 <누구나 꽃이야! 몸짓 연극 공연 만들기> 이다.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도서관 이용자 특성상 유아가 많아 작가님과 미리 상의를 했더랬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운 건, 선생님의 힘듦보다 참가한 아이들이 어리다고 소외될까봐 먼저 걱정해주시던 마음이다. 활동이 시작되고 아나나 다를까, 5살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의 편안한 태도에 중구난방 질문을 해댔고, 나는 아이들을 단속하려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산만한 아이들의 눈을 하나 하나 맞춰가며 응대하셨고, 심지어 미처 질문을 받지 못해 울던 아이에게는 다가가서 안아주며 시간을 따로 할애해주셨다. 이후,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은 한바탕 복도 치고 연극도 하며 신나게 놀았고, 헤어질 땐 모두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1년간 6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태도에 대한 걸 배웠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2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이동해 오셔서도 열정적으로 우리와 교감하는 작가님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친절하고 빠르게 응대해주시던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담당자분들을 보며 운영하는 방법을 몰라서, 낮을 가려서, 바빠서 못하곤했던 우리 마음에 작은 용기가 생겼다.

이제 곧 2020년이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받은 작은 용기로 새해에는 우리 도서관에 크고 작은 재미난 추억거리를 더 만들 수 있을거라 기대해본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민들레 작은도서관

경
기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박채란 강사와 함께한 시간. 도서관에 오기 전에 누군지 궁금해서 검색한 박채란 강사의 프로필. “그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그림책, 영화, 사진으로 일상의 위로를 받고 싶은 당신! 바로 엄마”라는 인터넷 검색만을 뒤로하고 만난 박채란 강사. 처음의 어색함에 민들레도서관으로 들어온 강사님과의 인사.

서로 알고지낸 엄마들도 있고 처음 본 엄마들과도 각자 인사한 후 강사님과의 대화로 어색한 분위기가 서서히 안정되어가고 있다. 관장님과 강사님 다같이 함께 차를 마시며 시작한 자리...

100장의 카드를 꺼내어놓고 각자 마음에 드는 3~4가지 단어를 골라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



현해 보는 시간... 선택한 단어로 처음 들었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본 후 종이 한 장을 주시고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나에 대해 30가지씩 적어보라고 하셨다. 다들 두리번거리며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단순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30가지를 다 쓴 후 그중에 맘에 드는 점 한 가지를 골라 그다음 내용을 써내려가는 과정... 다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나를 점점 잃어버린 건 아닌가하는 두려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 번씩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가끔씩 불러주는 내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보면서 상미야..!!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본다. 이제라도 내 시간을 가져 취미생활이나 하고 싶었던 미성을 배우면서 나도 나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공감대가 같아서인지 서로 글 쓴 내용을 들으며 웃고 우느라 얼굴이 범벅이 됐다. 처음엔 친구에 이끌려 어색한 기분으로 들어온 도서관이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나도 많이 사람들이 그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처음엔 망설이겠지만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강사님이 추천하는 책에 대해 잠시 얘기나눈 후 100장의 카드 중 3-4가지를 골라서 각자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았다. 종이 한 장을 주시고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나에 대해 30가지씩 적어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30가지를 다 쓴 후 그중에 맘에 드는 점 한 가지를 고른 후 그다음 내용을 써내려가는 과정. 다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나를 점점 잃어버리는건 아닌가하는 두려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이었던 것 같다.

박혜선 강사와 동시 아버지의 가방과 퇴근시간을 읽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편의 시를 만들어나가는 활동. 처음엔 많이 어려워했지만 금방 한 장의 글로 표현해나갔다.

다들 처음에는 ‘시’를 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덧붙여지면 글이 되고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다들 만족하셨다.

내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글을 쉽게 쓸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라퐁텐우



화 중에 황새를 읽고 생각나는 느낌을 포스트잇에 적어 내용을 만들어나갔다. 떠오르는 데로 생각을 적어서 그 내용을 다 같이 읽으면서 노래를 불러봤다.

황새의 이름을 황새로 짓고 먹고 싶은 음식 떠오르는 단어로 굴비, 물고기, 치킨 등등이 있었고 그다음 주제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싶냐는 물음에 아껴 먹고싶다, 몰래 숨어서 먹을거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 등등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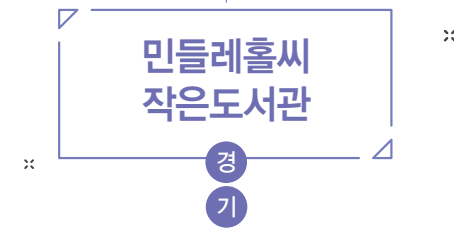
마법침대를 읽고 주인공 조지가 그 동안 쓰던 침대가 너무 작아져 침대를 사러가서 멋진 새 침대가 아닌 낡은 침대를 선택하고, 놀랍게도 이 침대는 신기한 여행을 떠나게 됐다. '낡은 침대'를 매개로 한 조지의 행복한 여행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강사님이 준비해온 소품을 이용해 넓은 천으로 날개를 만들고 옷도 만들어 입고 조종사도 되어보고 마법지팡이로 소원을 얘기하기도 했다.

고라니 텃밭을 읽어주시면서 쉽게 아이들이 책과 접할 수 있고 나도 글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심, 대체로 차분하게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고 억지로 책을 읽는 것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강사님이 가져오신 스토리북에 그림과 글을 옮겨 담으면서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어느새 한권의 책이 만들어지고 색연필로 색칠해 자기만의 미니동화책을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생겼다.

길정선 강사와 함께 전통놀이를 배웠다. 실뜨기로 고양이수염도 만들어보았다. 바깥놀이로 강통 지키기 등 전통놀이를 해보고,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놀이를 진행했다. 동생들에게 양보도 하고 지켜주며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했다.



작은도서관 “민들레홀씨”



부천에서도 교육열이 높기로 소문난 상동, 그 중심에 있는 작은도서관 “민들레홀씨”

아파트 숲이 밀집한 곳에 작게 자리한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외곽에 자리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립도서관을 대신해 지역주민들의 독서 및 정보요구를 해소하고 있는 작지만 큰 도서관이다. 그런 도서관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문화가 있는 날!” 이 프로그램을 맞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선생님, 저 프로그램은 뭐예요?”

“문화가 있는 날? 뭐 특별한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참여자들을 맞이하는 분주한 손길에 더해지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다. 도서관에서 일상으로 맞이하던 프로그램 같기는 한데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들이 더해진다. 딱딱한 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몸을 쓰고 마음을 쓰며 온몸으로 책을 읽어내기도 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극의 형식을 빌리기도 하고, 책과 나누는 대화를 그림이나 바느질을 통해 표현해보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의 작가님들이 오셔서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을 똑딱!,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일도 똑딱!, 도서관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것도 척척! 더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작은도서관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느낌에 감사한 마음이 커져만 갔다.

놀이여행, 짝꿍 드로잉, 몸으로 읽는 그림책, 공감하는 그림책 표현, 팔랑팔랑 애니메이션, 바느질을 통해 만나는 책 속 주인공! 등 작가님들과 함께했던 6번의 시간. 재잘재잘 이야기 많고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부터, 모이기 어렵다는 청소년, 생각 많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2019년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의 문을 두드린 많은 사람들은 “문화가 있는 날”의 마지막을 아쉬워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일찍부터 보냈을 텐데.”
“아이들만 프로그램에 보냈었는데... 오늘은 선물 같은 시간이네요. 자주 만들어주세요 이런 활동들.”

높은 아파트 숲 사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던 작은 민들레홀씨들. 나와 가족을 위해 흠어지기에 바빴던 민들레홀씨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삶의 꽃을 피워내는 풍경들에 책, 그리고 일상으로 스며든 문화가 있어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의 2019년은 참으로 따스했다.

“다음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또 오실거죠? 기억해주세요. 민들레홀씨” (웃음)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경
기

어렵게 시작하여 마무리는 원활하게!



일찌감치 찾아온 더위로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시작 되었다.
며칠 전부터 걸려온 몇 통 전화로 참여 인원이 걱정되었지만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아침부터 도서관을 시원하게 해 놓고 활동 세팅으로 몸과 마음이 분주했다.

도서관에서 황혜림 선생님을 맞이하면서도 참여 인원이 걱정스러웠다. 시간은 흘러가고 10시가 되자 막상 너댓 명이 의자에 앉아 계셨다.
‘아이고 망했구나’ 하며 안절부절못하는 담당자에게 강사님은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며 일단 시작하자고 하셨다.



그러나 웬일인가요?

도서관 이용자들께서 무슨 활동예요? 하며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어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의자가 하나둘씩 메워져 가기 시작했다.

데이빗 세논의 그림책 “안돼, 데이빗!”을 함께 읽고 그림을 감상하며 데이빗을 여러 가지 색깔의 양말을 이용하여 한 뼘 한 뼘 직접 바느질로 만들어 자기만의 표현을 하여 독특하고 예쁜 데이빗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얼마 만에 바늘을 잡아 본다며 참가자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와 웃음으로 시간이 흘러갔다.

강사님과 참가자들이 한뼘 한뼘 하다 보니 갈수록 인형의 틀이 갖추어 졌다.

다들 숨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서로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참가자는 바느질에 자신이 없었는데 예쁘게 만들어진 데이빗 인형을 보고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겨 직접 만들어 보니 바느질에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뿌듯하여 빨리 집에 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고 좋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며 홍보 시에는 관심과 호기심으로 매회 신청을 하고서도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쉽게 해버려 속상했지만,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 호평을 해주면 속상한 마음도 한꺼번에 날아간다.

오늘 또한 어렵게 시작하여 마무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블로그에도 올려 뿌듯한 하루였다.



사랑나무 가족도서관

경
기

바빴지만 감사했던 시간들...



2019년 문화가 있는 날에 처음으로 선정되어, 6명의 다양한 예술작가님들을 사랑나무가족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6번의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하여 강사님을 보조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만남으로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도서관에 옹기종기 모인 20여명의 가족들은 싱어송라이터이신 강상구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그림책을 노래로 불러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귀에 맴도는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재미있었고 끊임없이 따라 부르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 도서관을 찾은 엄마와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



적이었고, 노래 CD를 구할 수 없냐는 문의도 있었을 만큼 남녀노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5월에는 박지숙 인형작가님과 책 속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화요일 오전, 그림 책과 바느질의 매력에 빠진 엄마들이 모여 <너무너무 공주> 속 주인공 인형을 한 땀 한 땀 만들어보았다. 참여자들의 열정으로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만에야 완성되었지만 모두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한 시간이었다.

6월에는 나눔연극작업소 대표이신 권오현 선생님과 <너는 특별해>를 주제로 오브제 연극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연극놀이를 처음 접해보는 아이들도 신문지를 활용한 다양한 미션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몰입해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프로그램이었다.

7월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놀이 예술강사 길정선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동체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놀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정해진 규칙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놀이의 즐거움을 선사해준 시간이었다. 대강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 또한 행복했던 프로그램이었다.

독서의 달 9월에는 그림책작가 유준재 선생님과 만남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작가님의 그림책 속 숨은 이야기를 숨죽여 듣는 아이들의 진지한 모습에 선생님이 당황해 하실 만큼 집중도가 높은 시간이었었고, 이어진 실크스크린 체험은 아이들은 물론 엄마들도 너무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통해 꿈과 상상의 날개를 심어주신 것 같아 나 또한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10월은 연극놀이강사 박지원 선생님과 연극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책 속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으로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다소 산만한 1학년 아이들이 있어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참여한 아이들 다수가 새롭게 알게 된 몸놀이 (그물 술래잡기, 바나나얼음뽕 등)를 즐겁게 참여했다는 평이었고,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던 프로그램이었다.

매달 새로운 프로그램 홍보지를 게시하고 접수하느라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지만 도서관을 찾는 발걸음이 더 늘어나고, 참여한 아이들의 즐거운 표정에서 감사함을 느꼈던 한해였다.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림책을 매개로 한 이러한 사업이 꾸준히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작은도서관에 힘이 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지원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서후숲 작은도서관

경
기

재수의 기쁨!



경기도 양평 산골 마을에 아이들이라고는 열댓 명밖에 안 되는 도서관에서 감히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재수를 해서 선정되었다.

첫 해에 우리 마을은 아이들이 적으니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냈지만 낙방의 고비를, 재수 때에는 다행히 어른들 프로그램도 가져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주셔서 6회차 중 3회를 어른들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문화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서후숲 작은도서관은 작지 않은 큰 비전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에 남다른 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센터를 겸하고 있어 늘 프로그램으로 분비고 더불어 책과 만나는 이들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사실이 서후숲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년층의 은퇴 후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귀촌하시는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를 좁혀가는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첫 활동 때에 경품권 추첨도 있다고 광고했음에도 어른 6명 아이들 3명이 참석하는(?) 이번 없이 진행을 하고 경품추첨에 도서관 담당자가 추첨되는 기이한 일도 함께 웃으며 진행하던 거리를 오시는 것에 반해 참석율이 저조해서 작가 선생님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특히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에 대한 이야기와 그녀의 독립에 대한 꿈을 이야기 나눌 때, 세상에 알려진 잘못된 정보 (최초라고 알려진 다른 여성이 사실을 두 번째였고 그녀는 친일파였다.)를 바로 잡는 좋은 시간이었다. 힘 없는 사람은 당시 친일파였던 여성에게 첫 번째를 내어준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참석한 어른들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사명이요 미래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사수일 것이다.



석수골 작은도서관

경
기

내가 아는 작가님이야



엄마가 좋아_____ 작가 최민주

엄마는 나를 많이 좋아한다.

월래는 막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날 더 사랑한다.

난 그럴때가 너무 싫다. 맨날 아기를 돌봐야 된다. 귀찮다.

하지만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민주는 6살된 쌍둥이 남동생과 태어난지 5개월된 남동생, 세명의 남동생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고라니 텃밭 김병하 작가님이 오신날. 민주는 엄마에게 터놓지 못했던 솔직한 마음을 자신만의 작은 책에 담아 폭발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자신을 깨닫고, 엄마와 화해를 한다. (민주가 그린 그림책 첫 번째 장면에는 엄마와 민주가 떨어져 있지만, 마지막 장면에는 엄마와 민주가 손을 잡고 있다.)

김병하 작가님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라니 텃밭' 그림책. 텃밭을 가꾸며 꿈에 부풀었던 선생님의 좌절과 분노, 고라니와의 화해의 과정은 흥미진진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경험처럼, 자신의 좌절과 분노의 마음을 읽고, 그것에 직면하여 책을 만든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라는 말이 실감 난다. 아이들에게 작가님이란 재미있고, 그림을 잘 그리고, 내가 보던 책을 만든 사람을 직접 본다(아이들은 대부분 이 책을 만든 작가님이라고 하면 '와아' 하고 겸손한 함성을 지르며 감동한 눈빛으로 작가님을 본다)는 신기함이 우선한다. 하지만 작가님이 그림책에 대해, 작품의 배경에 대해, 책을 만드는 즐거움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놓는 순간, 아이들은 내 이야기가 글이 되고,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그리고 책을 사랑하게 된다. 모두가 어린이 작가가 되어 책을 펴내고, 김병하 작가님이 어린이작품을 한 권 한 권 낭송할 때마다 아이들은 때론 진지하게, 때론 웃음을 터뜨리며 책에 빠져들었다.

석수골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아이들과 만난 작가는 권오현<야콥, 너는 특별해>, 김규택 <옛날 옛날>, 박종채<두꺼비가 간다>이다.



권오현 <아곰, 너는 특별해>는 날지 못하는 앨버트로스의 이야기를 인형극으로 보고, 모둠을 나누어 미션을 수행하며 앨버트로스의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나의 정체성부터, 엄마의 역할, 환경 문제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삶의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었다.

김규택 <옛날옛날>은 옛날이야기를 다른 방식과 관점으로 구성하여, 우리가 알았던 옛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늘상 보고 알았던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여 다양성의 재미를 알게 했다. 바나나만이 덜렁 그려진 표지의 작은책. 먹는 것으로만 알았던 바나나는 아이들에 의해 어떤 모험을 떠날까.

박종채 <두꺼비가 간다>는 작가님의 분신 꿈꾸는 돼지 이야기부터 작품의 변화, 그림책 작가가 되기까지. 작가님의 인생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내가 만난 작가님의 책을 만나는 순간, 기쁨에 차서 “내가 아는 작가님야” 라고 소리칠 것이다.

안산시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경
기

어머!~ 이렇게 좋아도 돼?



솔직히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흔히 공모사업은 알량한 금액이라도 ‘정산’이라는 이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온갖 스트레스를 지불해야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짜리(강사비) 강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으고 진행만 하면 된다니... 돈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과 강사의 수준이 비례할 것이라는 자본주의 속물도 양심은 있어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도서관에 오시는 손님인지라 같은 건물 카페에서 정성껏 차(茶)를 준비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했다. 그 동안 도서관을 자주 드나드는 아이들과 부모님께서는 인지도가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강조하며 참석을 요청하여 16명이 옹기종기 모

경
기

여섯아 첫 시간을 기다렸다. 우리도서관 첫 프로그램은 생태동화작가 권오준님의 ‘포포부부에서 찾아내는 도전과 용기’였다. 마침 우리 도서관 주변의 시화호에서 생긴 일을 책으로 쓰셨다고 하니 다들 귀가 쫑긋하기도 했지만 워낙 작가님의 진행이 재미있고 열정적이어서 끝나고 나서도 서로 감동을 나누느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첫 프로그램을 끝내고 내 느낌은 한마디로 ‘어머!~~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였다.

이후 두 번째 놀이하는 사람들 대표 김희님의 ‘잘노는 어른! 잘노는 아이!’에서도 그야말로 어른과 아이가 땀나도록 실컷 노는 법을 배웠고 이후 프로그램도 강사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 마지막 6회차에는 박지숙 인형작가의 ‘책이랑 바느질-책 속 주인공아, 나와라!’였는데 「너무너무 공주」책 속의 주인공 공주인형을 만들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각자 가져온 반짓고리를 둘러보면서 반짓고리에 담겨있는 사연을 듣는 일도 좋았다. 바느질을 하면서 서로의 인생이야기를 나누고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요즘엔 쉽게 경험하기 힘든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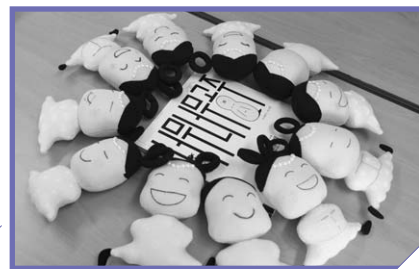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대가 없이 받은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선물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월 권오준
포포부부에서 찾아내는 도전과 용기



4월 김희님
잘노는 어른! 잘노는 아이!



9월 박지숙
책이랑 바느질-책 속 주인공아, 나와라!

예다움작은도서관

경
기

도서관에서 함께한 즐거운 시간들



소감문
김희정
|성인|

올해는 우리 도서관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화가 있는 날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에 매우 반가웠다. 기다렸던 만큼 기대가 되었고, 기대한 만큼 참여한 우리 아이도, 나도 1cm씩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은의 작가님과 함께한 어른을 위한 글쓰기 시간을 떠올리면, 마치 이웃집에 사는 인생의 선배와 함께한 듯한, 그런 편안한 시간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글쓰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참가한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해 주시는 작가님의 배려가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나도, 다른 참여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 것을 말로, 말로 표현한 것을 글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일상에 쫓기다보니 들여다보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창

경
기



가지 못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생각을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 지는 시간이었다. 활동이 끝난 후 우리는 글쓰는 모임을 가져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나름 모임의 이름도 정했다. “글 좀 쓰는 여자들”. 그렇게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이름으로 지어보았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하루에 5문장 쓰기로 시작해 보기로 하고 단톡방으로 서로의 글을 나누고 격려해 주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묘사글쓰기를 하다보면 저기 나의 내면에 흩어져 있는 생각이 모아지는 걸 경험한다. 거기에서 글을 쓰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내년부터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어른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강상구 선생님과 함께한 “그림책을 읽자, 그림책을 노래하자”였다. 개인적으로 그림책도 좋아하고, 어린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해서 둘째 아이를 데리고 참여했다. 전문가가 만든 그림책 노래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지은 노래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지은 노래는 그 노래를 지은 아이가 무엇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만든 것인지 배경을 이야기해 주셔서 더 즐거웠다. 함께 참여한 우리 둘째 딸은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노래하는 걸 아주 많이 쑥스러워하는 아이라 프로그램시간 내내 입은 닫고 귀만 열고 있다가 왔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면 즐거워하는 대목이 있다. ‘수영’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가 만든 노래를 배웠다. 노래 중에 아주머니 역할을 아무도 안 해서 선생님이 하셨는데, 아주머니 대목에서 남자인 선생님이 하이톤으로 아주머니 목소리를 내는 순간 모두 빵하고 터져버렸다. 지금도 나는 그날 챙겨온 악보를 가지고 이따금씩 아이에게 피아노로 연주해 주며 노래를 부른다. ‘수영’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이와 그 때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 아이와 함께 두고두고 이야기할 즐거운 기억을 남겨준 시간이었다.



소감문
유소원
|어린이|

처음엔 엄마가 시켜서 했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었다. 매월 마지막 주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놀이가 제일 재미있었고, 여섯 번째 그림책노래가 제일 신기했다. 그림책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다니! 그리고 꼬마돼지 올은 만들기와 인형극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올이 망가져서 조금 슬펐다.

야곱, 너는 특별해! 도 여러 가지 게임과 연극놀이를 했는데, 야곱에게 편지 주고받는 시간에 야곱에게 도착한 편지를 펼쳤을 때 내용이 없어서 (빈종이로 왔다) 황당했다. 하지만 어떻게 잘 해서 나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더듬더듬 편지내용을 지어냈다. 마법주머니를 기다렸는데 눈 떠보니 스타킹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거기에서 신문지를 넣어서 팍팍 채운 후 그걸 둥지 만들 때 쓰는 나뭇가지로 변하는 거였다. 그 전에 신문지를 찢어 날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짜로 스트레스가 팍팍 날아가는 느낌이었다.

중간에 네 번째 활동은 엄마들을 위한 거여서 우리 엄마만 갔다.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조금 아쉬웠다.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또 나오면 꼭 할 거다.



위례반디 작은도서관

경
기

주체의 눈으로 세계읽기-한국사를 바라보는 눈



처음에 무슨 행사인지도 모른 채 주제를 먼저 접했을 때는 무척 광범위하고 막연하다고만 생각했다. 관련 서적으로 「마법의 두루마리-동학 농민군 대장, 녹두장군」이 첨부되어 있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는 불운했던 조선 후기의 역사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내실지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활동을 신청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의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차근차근 조용한 목소리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강무홍 선생님께서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는 두 시간 동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역사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동학농민운동에 앞서 정조의 정치부터 언급하셨다. 단순히 암기대상이었던 정조-수원화성의 이미지에 ‘백성을 만나기 위해 행차를 가장 많이 한 왕’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 역사에 새로운 그림이 덧칠해지기 시작했다. 화성건설의 동기와 구조를 몇 년 전, 사회적 이슈였던 용산개발과 비교하였다. 개인적 정치색이 어찌 되었던 간에 여기서 반문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했던 것 같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외워야 하는 교과서적 어휘들도 등장했다.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정학적 위치’ 등이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배경설명을 들으니, 진정한 의미의 ‘개혁’, ‘지정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뻔한 역사 활동이 아니었다. 이제껏 ‘사도’의 의미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다. 세종대왕과 더불어 정조대왕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틀에 박힌 지식의 역사에서 살짝 방향을 바꾸니 슬픈 우리의 역사에 가슴이 아련해지기도 했다.

선생님은 하시고 싶은 말이 더 많아 보였다. 고구려로 시간을 돌리기도 했고 다시 요즘의 한반도 국제정세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오고가니 벌써 두 시간이 끝나 버렸다. 역사는 이렇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다. 무조건 외워야 하는 암기과목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후, 역사가 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정조의 업적을 누군가가 잘 이어받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만약에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인스빌작은도서관

경
기

2019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마치며...



매년 해온 독서프로그램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기까지 기다리고 기대를 해본다.

이번 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도서관까지 시간을 내 워크숍을 방문하고, 얼마나 많은 도서관이 있고, 선정되는 것이 어렵게 이루어졌는지를 새삼 다시 느끼고, 워크숍을 다녀오고 처음 하는 3월 첫 문화 프로그램이라 기대와 흥보에 더 힘을 실었다

지금껏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하면 조용히 책을 보게 하고, 작은 활동지로 그림을 그려 보는 활동만 했지 이번 프로그램처럼 활동을 해보지 않았기에 기대가 되었다.

우리도서관은 아파트 관리동 커뮤니티센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규모가 조금 큰 편인 작은 도서관이다. 매년 새 책을 선정하여 구비해 두고, 지역에서 있는 무료프로그램을 많이 선정이



되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별내 지역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소문이 난 도서관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도서관이다. 주민들에게 무료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도서관도 일반 성인 외 유아, 어린이, 청소년 책을 구분하여 합 만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도 이루어지고, 매달 신규 회원이 등록 되고있다.

문화 프로그램도 매년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작가 활동을 통해서, 활동참여 하는 태도도 작가 선생님이 다녀가실 때마다 칭찬을 해주셨다. 그런데 작가 활동이 매년 비슷한 내용이어서 3월 28일 첫 활동으로 김희님 작가활동 “잘 노는 어른, 잘 노는 아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대를 해보았다.

활동이 시작되는 날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좋은 반응이었다.

항상 책상에 앉은 자세로 글을 보고 설명 듣고 했는데, 이번 활동은 책상 의자에 앉을 시간이 없었다. 몸으로 움직이고, 놀이를 하고, 웃고 뛰고 하면서 친구들과 의논하여 협동심도 키우고, 그룹 활동으로 순서를 정해서 규칙을 배우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활동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즐거워했고, 몇 명 엄마분도 참여 하여 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해준 활동이라 더 유익했던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활동이 많이 선정되면 좋겠다.



제니스가족도서관

경
기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해” 활동은 6번의 문화가 있는 날 진행 프로그램 중 접수 기간부터 문의와 관심을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원래 계획했던 정원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위해 대기자 명단까지 쭉 채워질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야곱, 너는 특별해!” 도서를 읽어보기 위해 많은 이용자들이 제니스 가족도서관을 찾아주셨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책을 읽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옆의 친구에게 “이 책 되게 재밌어”라며 추천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에게 도란도란 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대망의 프로그램 진행당일이 되었다. 선생님께선 별것 아닐 수 있는 선생님소개와 20명의 아이들 소개를 손뼉을 치거나 퀴즈 맞추기 형식을 통해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빠져들 수 있게 유도해주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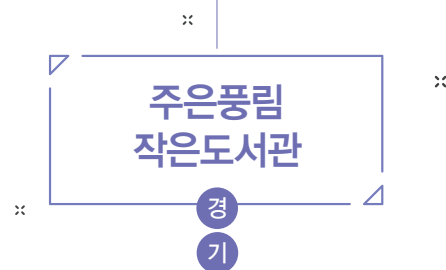


다. 또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려 하자 미리 읽어온 친구들이 신이 나 큰 목소리로 “야곱!”이라고 외쳤다.

본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친구들은 선생님의 지시와 규칙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신문을 찢고 머리 위로 날리고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친구들의 얼굴은 가장 밝았다. 신문지 놀이 활동이 끝나고 흥분한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다음 활동 진행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마법주머니를 그 자리에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마법주머니를 받은 친구들은 찢겨진 신문지 조각들을 주머니에 담았고 많이 담을수록 커지는 주머니의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더욱 활발하고 즐겁게 활동에 집중했다. 인형극 관람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였다. 인형극을 보면서 친구들은 해맑은 표정으로 까르르 소리 내어 웃으며 즐거워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시 첫 만남 때처럼 큰 원으로 둘러앉았고 선생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온 편지를 어디선가 꺼내오셨다.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편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야곱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다. 야곱의 편지를 펼쳐본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편지를 보지 못한 나머지 친구들은 너무 궁금한지 “뭐야?”, “뭐라고 쓰여 있어?”라며 편지의 내용을 무척 궁금해 했다. 편지는 사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였다. 친구들은 야곱이 우리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야곱이 우리에게 고맙대요.”





깊고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준 고마운 시간



16년 이란 나이테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도서관의 무늬는 지금부터 새긴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은풍림 작은도서관이다. 요일마다 재능기부 활동을 해주시는 이웃주민들 덕분에, 하교 후 아이들이 첫 번째로 들르는 참새 방앗간이 되었다.

5월이면 참새들의 <5월 바람에 동시 소리>가 도서관 밖에서 들리고, 9월이면 <우리동네 그림책> 빛그림 낭독이 있는 도서관이다.

지난해에는 공모 선정이 되지 않아 올해 공모 사업 때에는 간절함이 더했다.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 주신 6명의 작가들, 박지원, 권오준, 한성민, 박혜



선, 김수민, 김은의. 한 분 한 분의 활동이 휘리릭 떠오른다.

역으로 마중 나가 처음 뵈 박지원 강사님은 몸으로 책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다.

고학년 16명이 둥그렇게 앉아서 강사님의 몸짓을 쫓아가는 눈빛이 어찌나 빛났는지 모른다. 참가한 아이들을 쓰다듬듯 읽어주신 그림책도 인상 깊었고 2시간이 꼭 차게 마무리 되었다 싶었는데 참가자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글쓰기에서 정말 행복해 하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모습을 봤다.

9월부터 경기도는 돼지열병으로 관내 행사가 진행 취소를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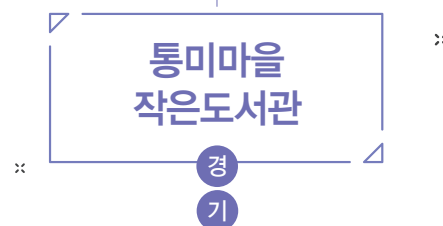
그런 상황에서 10월 31일 극적(?)으로 만나게 된 김은의 작가의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 활동은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저희 사업 중 처음으로 성인 대상 강좌였고, 심지어 성인 독서동아리가 없는 도서관에서 글쓰기라는 부담스런 제목을 달고 말이다.

모집부터 만만치 않았는데 저의 당연한 수고와 참여자들의 부담감을 작가님의 진정성으로 다 위로받고 덜어낼 수 있었다.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 흡사 독서 치료를 받는 기분이었고 활동 중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할 때는 격하게 공감해주는 참가자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오래전 글쓰기를 접어 왔던 나(운영자)도 그날 밤부터 5분 느낌적기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만삭의 참가자는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를 알게 됐다고 콧등을 붉혔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도서관에 깊고 아름다운 무늬를 넣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바람이 있다면 지정된 작가의 여러 회차 강좌를 경험해 보고 싶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문화가 있는 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는 작은도서관의 '문화가 있는 날'은 새롭고 특별한 힘을 만들어 내는 날이 되어주었다. 매월 마지막 주만 되면 흥분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했다. 또한 매월 각양각색의 작가·예술가 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새로운 달로 이끌어 주는 징검다리가 되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는 지 살피기 위한 거라고 다. 매달 1회씩 6번을 올 한해 진행해 왔던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려한다. 일종의 프로그램으로만 취급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작은도서관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생각해기 위해서 정리해보고,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를 잘 정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 해본다.

역시 권오준 작가님은 최고다. 2015년 이후 2번째 방문이었다. 그 때를 기억하며 더 기뻐하는 몇 명 있었고, 새롭게 만나는 아이들도 거의 아이돌 스타를 만난 듯 사인을 받고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못 하며 가는 순간까지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선생님께서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 해주시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다. 권오준 작가님께서 아이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쉴 틈을 주지 않으시고 호호를 맞춰주시는 매력만점 시간이었다.

아티스트웨이 김수민 선생님과 활동감 넘치는 미술활동은 몸과 마음을 훌쩍 빠져들게 하는 즐거움이었다. 선생님의 새하얀 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물감을 묻히는 순간 '그래도 되는 구아' 하는 충격을 받는 해방감을 잠시이지만 느꼈던 것 같다. 온통 안 되는 것이 많은 세상과 통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묻히고 바르고 그리고 하는 자유로움은 우리의 영혼을 춤추게 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애니메이션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승규 선생님과 만남은 아이들에게 '나도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미디어의 발달로 손쉽게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아이들에게 과정의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 유익했던 경험이었다.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통해 제작의 원리를 이해하니 애니메이션 감독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도 있을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잘 놀 수 있어야 한다는 김희님 선생님과 시간은 정말 오래간만에 몸을 써 본 활동이었다. 맘껏 차고 뛰고 도망가고 잡으면서 벅차오르는 숨을 고르면서 즐겁고



행복감을 가졌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이렇게 잠시라도 뛰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허락치 않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그 때 배운 실내놀이 중 ‘왕과 거지’를 비롯, 몇 가지는 틈이 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다시금 또 다른 놀이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실제 본인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쓰신 ‘고라니 텃밭’ 김병하 작가님의 시간은 그림책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내는 계기였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충만함을 가졌다. 그 이후 그림책 전시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도토리 삼형제’ 아주 짧은 단순한 그림책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송현주 작가님과 만남을 가졌다. 손수 만든 조형물로 그림책을 만든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림책에서 그림이 주는 의미와 그림을 읽어 내는 것을 배웠다. 다양한 조형 활동으로 직접 설치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서로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익혔다.

이렇게 6번을 순식간에 훑어 내려왔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다 담아 낼 수 있을까? 수많은 빛나는 순간들과 경험들은 아이들과 함께 한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힘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지리라 생각한다.



푸른 작은도서관

경
기

문화가 있는 날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미사강변푸르지오 내에 있는 푸른 작은도서관이다. 우선 개관 한지 3년된 초보 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할인이나 특별 공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평소에 도서관 내에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어? 책 작가가 직접 활동한다고요? 정말 무료예요?, 도서관 내에서 이걸 한다고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다.



3월 28일(월) 첫 활동이었던 [옛날 옛날 - 김규택 작가]의 “나와 이야기” 활동은 전래동화에 대해 접하고 이야기하며 직접 나만의 책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여러 전래동화 제목을 말하며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목의 전래동화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O, X 퀴즈를 풀며 흥미로운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가자가 7세부터라서 한글을 알고 있는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책 만드는 작업 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걱정과 달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그림책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지도 및 진행해주셔서 참가자 전원이 자기만의 책을 완성하여 참가자들이 성취감과 높은 만족도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6월 첫날에 이루어진 두 번째 활동은 “국악놀이연구소 김희님”의 놀이 활동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의 중요성 소개와 [잘노는애 안노는애 못노는애 - 열씨구 지음, 한울리출판사] 책 속에 소개된 왕과 거지, 오리 오리 거위, 깡통 술래 게임, 하나둘셋 술래잡기, 어부 술래잡기, 샐러드 게임을 해보았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리며 같이 하는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개인화되는 경향이 많고 부모와 함께 놀이하며 뛰어놀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 실내, 실외에서 진행된 놀이 활동이라 어른들은 어릴 적에 했던 비슷한 놀이를 해보며 추억을 되살려보는 계기가 되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하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신청한 아이들의 연령이 6~7세가 많았는데 게임규칙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부모님께서 함께 지도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었다.

7월 29일(월)에는 [야곱, 너는 특별해 -가브리엘레 하이저, 문학과지성사] 도서로 권오현님의 신문을 활용한 연극놀이를 진행하였다.



신문지를 찢고 뭉치고 날려보는 놀이시간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없애고 야곱에 대한 인형극을 보고 야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참가자들은 활동시간동안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서로 도움을 주고 활동하는 시간이 좋았다고 답했다.

9월 23일(월) [두꺼비가 간다 - 박종채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시간에는 책 제목대로 두꺼비 이야기로써 은유와 상징으로 현실을 담아낸다는 뜻을 전하고, 글 없는 그림책을 북소리로 내용을 말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즐거운 그림책 감상시간이었고, 음악시간에나 들을법한 북으로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원하는 색상의 종이로 자신의 꿈을 담아 나만의 두꺼비를 만들고, 작가님이 참가자 전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사인도 전달해주셔서 아이들에게 뜻 깊은 선물이 되기도 하였다.

10월 30일(수)에는 [임금님과 수다쟁이 달걀부침 - 데라무라 데루오 글, 천둥거인] 으로 진행된 박지원님의 “책 연극놀이” 활동이 있었다.

책상을 치운 빈 공간을 무대 담아 직접 참여하는 연극 활동이라 역동적이고 즐거웠고, 강사님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해주셔서 시작부터 긴장감 없이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다. 책상이 아닌 무대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겁게 표현하며 진행했다.

서로 연령대가 달라 어색한 사이지만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며 서로의 말을 듣고 보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가 되어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무대에서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배우들처럼 활동 열기 그대로 활동실에서 아이들이 나왔다.

11월 30일(토) 강상구님의 “그림책을 읽자, 그림책을 노래하자” 활동은 [엄마마중 - 이태준, 보림출판사 / 달라도 친구 - 허은미, 웅진주니어 / 지하철을 타고서 - 고대영, 길벗어린이] 3권



의 도서로 진행되었다.

선생님께서 처음에 노래란 무엇인지, 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대답을 꺼려하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간단한 대답인 “네” “아니요” “몰라요”가 나오자 이미 너희들은 음악을 하고 있다고,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음이라고 설명해주시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활동참여 유도를 해주셨다.

책의 내용이 노래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흥미로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김유리-강아인 곡〉, 〈나무그늘 - 유체민 곡〉, 〈달라도 친구〉, 〈답다-하예은 곡〉, 〈수영-하예원 곡〉, 〈엄마를 기다립니다〉, 〈지하철을 타고서〉 이렇게 7곡의 악보로 처음엔 가사를 읽고 그다음에 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생소한 노래라 그런지 웃음기 없는 진지한 모습으로 가사를 보고 내용을 파악하더니 반주가 나오자 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르며 어느새 노래에 빠져 즐기고 있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부르는 식의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에게 눈으로 읽는 단계부터 시작하니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무료강좌로 비어있는 시간보내기용으로 가볍게 활동 신청했을지 몰라도 다양한 주제와 활동방식으로 참가자들과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고, 11월 마지막 활동 이후에도 문화가 있는 날 활동 없느냐는 문의가 있었을 정도로 평소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쉬움도 컸다.

2019년 6회차의 다양한 주제로 문화수준을 높여주시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직접 찾아와주신 예술가 강사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해님달님 작은도서관

경
기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기



해님달님작은도서관에 들렀다가 ‘지구별에서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기’라는 프로그램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은 수원시 지동에 위치한 개관한지 8년째가 되는 도서관인데, 평소에도 슬라이드 필름을 이용한 빗그림 공연이나 영화 상영, 바느질, 미디어 교육, 전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의 문화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 내용을 읽어보니 활동도 듣고 페이퍼 커팅 작품도 만들어 본다고 안내되어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서둘러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다.

경
기



드디어 9월 마지막 수요일이 돌아오고 활동의 주인공인 한성민 작가님을 만나게 되었다. 작가님의 책 '조용한 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그림과 사진으로 소개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자기 개발서의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다가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의 일러스트를 전속으로 그리면서 커피 재배지에 대한 여행을 꿈꾸게 되었다고 했다. 여행지를 선정하기 위해 오리너구리, 오랑우탄, 북미토끼 등 실제로 보고 싶은 동물들을 그려보셨다며 보여준 그림 속 동물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당장에 그 동물들을 보러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작가님이 다녀온 아프리카는 투어차량을 타고 다니며 밤이면 텐트에서 자고, 최소한의 물만 사용하며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여행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고 가는 코끼리에서부터 맹수로 부터 망을 봐 주는 기린, 안심하고 물을 먹고 가는 작은 동물들을 목격하고 오랫동안 남은 인상을 담아 책으로 만드셨다고 한다. 밤이어서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그 장면은 이야기로만 듣는데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인면수심의 범죄소식을 접하는 험악한 세상에 자연은 조용히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보여준다. 여행에서 돌아와 만든 아프리카 그림책은 출판사들의 외면에 책장 깊은 곳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는데,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나 동물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엔 출판사가 관심을 갖게 되어 책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슬라이드를 다 보여주신 후에는 당시에 페이퍼 커팅으로 작업한 더미북을 보여주셨는데, 손으로 하나하나 질감을 느껴보니 따뜻한 작가님의 동물에 대한 시선이 종이에서도 느껴졌다. 이어서 페이퍼 커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넉넉하게 준비해주신 재료로 커팅을 해 보았다. 조심스레 커팅칼을 그으니 작가님이 아프리카에서 만난 동물들이 나타났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차츰 변화되는 마음을 따라 채식주의를 하고 신념에 따라 책을 만드는 작가님을 알게 된 이 시간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강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



에서 흘러나온 애견인 게스트와 청취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개가 행복한 세상은 사람도 행복한 세상이라는 말이 유달리 공감되었다.

해님달님작은도서관에는 160명이 넘는 정기 후원자가 마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실천하고, 30명에 가까운 자원 활동가들이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슬쩍 간식을 놓고 가는 이용자도 종종 보았다. 도서관에 들렀던 청소년이 자라 청년 사서로 봉사하기도 한다. 마을의 사랑방 같은 이 공간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화도에서아띠랑 작은도서관

경
기

작가와 함께하는 화도에서아띠랑 작은도서관



4월 김미혜 작가님의 문화 수요 “시 읽는 하루” 라는 타이틀로 총 14편의 시를 작가님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전달 동영상 통해 동화를 함께 읽고 대화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주민 참가자들이 다시 소녀로 돌아간 느낌으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주셔서 문화가 있는 날을 기획해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감사인사를 꼭 전달하고 싶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첫 시작에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발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허은실 작가님의 잠 책 북트레일러 시간! 작가님이 다녀본 곳 중 유독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활동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칭찬하셨던 기억이 난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화도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단비가 내리는 즐거운 소식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었다. 활동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인 만큼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작가님들의 재미있는 진행과 철저한 활동준비에 감사드리며, 이름표도 사전에 준비해서 친하게 이름과 함께 별명도 불러가며 활동을 마칠 즈음에는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습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활동 이후에도 화이트보드에 본인들의 꿈을 그려보면서 자기표현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헤어지는 발걸음에 아쉬움도 나타내는 등 2시간의 긴 시간도 지루해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여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김정은 작가님의 “리사이클 디자인 모빌 만들기” 섬세한 준비와 활동지도가 매우 인상에 남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 아이들의 개성이 뚜렷하여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모든 재료를 다 활용하여 작품 만들기에 몰두하는 아이도 있고 일찍 작품을 마무리한 이후 틱톡으로 올리며 함께 작품을 공유하는 아이들도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며 다음 활동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는 열의를 보였다. “다 붙여 버렸어”라는 책 제목에 맞게 모든 재료를 다 붙여 꼭 채우고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다는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강사님과 함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더운 여름 진행했던 **8월 김병하 작가님**의 “내 이야기로 미니 그림책 만들기” 아이들과 눈높이를 딱 맞춰주신 눈높이 진행으로 참가자 및 부모님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 참가자들이 나만의 책 만들기라는 주제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종료시간을 훨씬 넘겨서 까지 함께 하는 것을 보며 작가님께서 아이들의 표현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역할을 멋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호성백년가약 작은도서관

경
기

내가 만든 팝업북 '업사이클팝업북'



조금은 생소한 강사님의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다시 보는 책을 소개하며 사차원으로 노는 그림책징크아티스트'라는 소개를 접하고 이 생소한 단어들의 조합은 무엇일까 궁금해 하며 강사님을 맞이 하였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책과 관련된 활동일거라 막연히 생각하고 추측하며 맞이한 강사님은 '그림책을 보는 곳 노는 곳 만드는 곳 사랑하는 곳에서 불러주면 달려가서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 그리고 다시 보는 책 만들기'를 하신다고 소개하시며 초롱초롱 궁금증으로 무장한 우리들에게 업사이클링팝업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

매년 해마다 많은 도서들이 폐기되는 현실을 보며 사회적 가치 창출과 예술적 가치를 접목



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 문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 작업을 접근하셨다고 설명하여 주셨다.

책은 소중히 해야 하며, 조심히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 버려지는 그림책들이 놀이감이 되고 찢어보고 붙여보며 나만의 멋진 활동으로 재 탄생하는 작업으로 모든 연령에서 스스로 동화를 재구성 해봄과 동시에 다양한 팝업북을 직접 조작해 봄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생각 에너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업사이클팝업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셨다.

우리는 어릴 때 책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책에 함부로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하는 행동에 대하여 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책을 찢는다고....' 망설여지게 하였다.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도 해마다 연도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기증을 받았지만 쓸모 없는 책들을 정리하여 상당량을 폐기하는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이런 책들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팝업북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귀가 쫑긋하였다.

실습에 들어가기전 강사님의 샘플을 보고 우리는 '와' 탄성을 지르며 감탄해 마지 않았다. 너무나도 예쁘고 창의적이며 또다른 책으로의 재탄생을 보고 감동하였다.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강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여 우리만의 팝업북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팝업북을 소개하며 기뻐하는 활동참가자들을 보니 뿌듯하였다.

겨울방학에 특강으로 업사이클팝업북을 아이들과 만들어 보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집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책들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어 봄으로 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늘 우리 활동을 위하여 먼 곳까지 기꺼이 달려와 활동하여 주신 안선화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힐숲 작은도서관

경
기

아기 도서관의 한 걸음!



경기도 용인시 힐스테이트 서천에 있는 작은도서관 '힐숲 작은도서관'이다.

우리 도서관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얼마 뒤 오픈된 도서관으로 2017년 4월에 개관하여 내년 4월이 되면 3살이 되는 아기 도서관이다. 우리 아파트는 수원, 화성, 오산, 용인의 경계에 위치한 개발지구로 중심지와 접근이 어려운 문화 낙후지역이다. 감사하게도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선정되어 매달 작가님과 즐거운 활동을 기다리며 행복한 한해를 보냈다. 그중 한 가지 활동을 소개드릴까 한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힐숲 작은도서관에 수상한 가방을 든,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남자분이 도서관을 찾아 오셨다. 우리 동네에선 보기 힘든 중절모를 쓰고 계셨다. '진주성을 나는 비자'를 쓰신 박형섭 작가님이셨다.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였다. 작가님은 '진주성을 나는 비자'를 쓰게 된 과정과 이 동화의 배경이 된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작가님은 성대모사와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동원한 생생한 재연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셨다. 아이들은 깔깔깔 웃으며 작가님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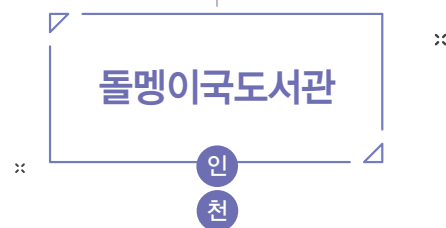
몸을 사리지 않으시는 작가님의 연기는 TV프로그램 '서프라이즈'의 재연 배우 뽀치는 실력이셨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하시던 작가님의 이마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히셨다.

작가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 시작된 활동. 작가님은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아 나만의 티셔츠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준비해 오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생각한 티셔츠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그린 티셔츠와 자기가 그린 티셔츠를 보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와 재미있는 시간을 준비해주신 박형섭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힐숲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주신 여러 작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 문화가 있는 날 활동을 통해 우리 동네 아이들과 이웃들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 활동들을 경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책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 더 좋은 건 다양하고 알찬 활동 덕분에 힐숲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팔랑팔랑 애니메이션」



무더운 날씨로 한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는 2019년 6월의 마지막 날은 돌맹이국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

‘팔랑팔랑 애니메이션’이란 주제로 활동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미리 신청해두었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터라 어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도서관에 들어갔다. 활동시간이 되어 모두 모인 인원은 10명 안팎이었다. 활동초반에는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알려주셨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1초가 소요되기 위하여 몇 개의 그림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알려주셨는데 10장 이내로 그림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



했던 것과 다르게 약 25장 정도의 그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두 팀으로 나뉘어서 각각 동화책을 선정한 후, 역할분담을 하여 한 편의 애니메이션 동화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책을 선정할 때는 조원들이 각자 애니메이션 동화를 만들기에 적절한 동화를 한 권씩 가져와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고르게 되었는데 최종 선택된 동화책의 제목은 <커다란 사과가 테굴테굴>이었다. 동화내용을 살펴보니 ‘사과’를 가지고 여러 동물들이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다투는 내용의 동화였다.

우선 첫 번째 작업으로 동화속의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 조원들과 토론을 하였다. 동물 친구들이 서로 자신의 사과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화면상에서 사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 작업으로는 각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는 목소리 연기를 할 사람을 정해보았다. 그림에는 자신이 없어서 활동 시작 전에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조원이 있어 가장 그리기 힘든 사과+쥐를 맡게 되어 조금은 안심이었다.

나레이션 및 연출, 개, 곰, 애벌레, 쥐의 그림을 그리고 목소리 연기까지 하는 역할을 정한 뒤 자신이 맡은 동물을 동화책을 참고해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가을 풀밭과 가을나무도 그려보았는데 동물들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풀밭과 나무는 도화지 면 위에 그리지 않고 따로 그린 뒤 그림 뒤에 우드락을 대어 튀어나오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동물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대사를 하고 사라질 때 구겨지거나 주변 사물에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였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주변 소음이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모두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자신의 대사가 있을 때만 활동하고 다른 때는 아주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촬영 중에 동물이 사라지다가 다른 사물과 부딪치거나 사라지는 방향이 어색한 경우가 있어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4회 가량 진행되었다. 동화 시작전의 배경음악과 끝날 때의 엔딩음악도 미리 준비하여서 함께 들어보았는데 촬영을 마치고 동화를 보니 동물들의 그림, 목소리, 음악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루어 1분 9초의 짧지만 아주 멋진 동화로 탄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조원들과 서로 회의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통해 아주 앙증맞고 소중한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할 수 있어서 아주 뿌듯한 시간이 되었다.

책놀이의 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한 권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동화의 내용을 담아서 애니메이션 동화로 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부모-자녀가 함께 협력해서 직접 그린 '우리만의 동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많은 힘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겁고 신나고 보람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돌맹이국도서관은 인천 계양구 작전역 부근 작전시장에 있다. 상가가 있는 한 건물의 지하에 있어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계단을 내려서 일단 들어오면 공간에 대한 선입견은 사라진다. 처음 온 사람들이 밝고 따뜻한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 도서관은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를 바라지만 그 중심엔 책이 있기를 꿈꾼다.

올해 처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책을 통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되어 놀랍다. 우리 도서관에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작가 초청 강연이나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도 기획해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문화프로그램도 시도해볼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것 같다. 작은도서관에서 작가들을 찾아 출판사로 일일이 문의하지 않더라도 협회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문학마을 작은도서관

총
청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문학마을작은도서관은 2017년에 개관한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도서관이다. 다른 사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는 하나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9년도에 다행히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서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는 전국 100개 작은도서관에 선정되었다.

3월부터 일상 드로잉, 독립운동 시가기행,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림자극 연극놀이, 사계절 생태놀이, 시와 함께 등 여섯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멀리 괴산에서 와주신 한승주 선생님의 <일상드로잉>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만의 표현 기술로 개성 있는 작품을 그려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활동이었

총
청



다.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나무와 대패, 망치 등의 재료를 사용해 보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용도 킥홀더를 만들어 보았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리사이클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업사이클링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강아지 똥과 감박감박 도깨비를 종이인형으로 제작하고 공연연습도 해본 <그림자극 연극놀이>는 마침 도서관을 찾은 어린이집 꼬마손님들에게 첫 공연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큰 활동이었다. 활동이 끝나고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그림자극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이후 모임을 통해 그림자극을 몇 편 더 제작하고 개관기념일에 공연도 하였다. 내년에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역량을 쌓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문 때 공연을 준비 중이다.

<사계절 생태놀이>는 흙잎을 접어서 이 자국을 내는 '이사금 놀이', 잎을 말아 비눗방울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비눗방울에 비치는 하늘 모습을 관찰한 '비눗방울 놀이', 휴지 심과 풍선을 이용하여 충을 만들고 도토리 열매로 충을 쏘는 '도토리 충 만들기' 등 자연의 다양한 재료들과 교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11월 마지막 활동은 이종수 선생님의 <시와 함께 즐겁고 기쁘게 때론 화도 내면서> 활동이었다.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시를 이미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상하고 이것을 글로 표현하도록 유도하여 정제되지 않은 아이들 언어로 시 한편이 완성되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활동이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활동후기였다. 활동 전부터 마칠 때까지 아이들의 특성과 활동풍경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글이었다. 멀리 대전까지 한걸음에 달려오셔서 참가자들과 교감하며 훌륭한 활동을 해주신 모든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이종수 선생님이 보내주신 글에서 참가자의 시를 옮겨본다.

놀이터에는 놀이기구가 많아서 좋다.

동생하고 신나게 놀다가 7시 30분 정도에 집으로 가면 된다.

_____ <놀이터> 조하영, 8세



성성푸른도서관

총
청

문화가 있는 날 “그림자극 연극놀이”에서 시작된 배움과 나눔



성성푸른도서관은 천안시 성성동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개관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곳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덟 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700여명의 이용자, 17명의 자원활동가 등 활성화가 잘되어 천안 지역에서 소문이 나고 많은 곳에서 탐방을 오고 운영을 배워가는 곳이다.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 그 중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우리도서관의 존재를 드러내고 역할을 더 공고하게 했던 활동이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지역 내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던 작은도



서관에게 다양한 강좌를 홍보하게 하였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였다. 모두가 “이런 사업도 있었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 “너무 좋다.” 등등의 피드백이 넘쳤다. 그 중에서도 ‘그림자극 연극놀이’는 지역 주민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며 자신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함께 하는 공동 작업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강좌였다. 강좌 이후에도 함께했던 선생님들끼리 그림자극 연극놀이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새로운 책을 골라 그림자인형을 만드는 활동으로 지속되어졌다.

참석자 중 한분은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되고 자신의 잠재된 능력들이 억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며 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신은 정말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뿐 만이 아니라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활동가들에게 이 강좌를 듣고 각자의 작은도서관에서 직접 활용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게 해주고 싶었던 우리의 바람은 강의가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곳에서 흐뭇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산시에서 오신 “그리고작은도서관” 활동가는 직접 ‘문화가 있는 날’ 강좌에서 했던 “그림자극 연극놀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해당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앉아 보며 그림자 종이인형을 하나하나 제작하여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그림자극 연극놀이를 하였다고 했다.

우리 도서관 활동가 선생님 두 분은 어린이집에서 그림자극 연극놀이를 공연해 주었다.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은 원장님들 회의에 가셔서 활동가 선생님들의 그림자극 연극놀이를 극찬하시며, 다른 원장님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그 결과 다른 어린이집까지 출장을 가서 공연을 해드리는 기회로 확대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한 달에 한번, 두 시간 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경험, 타인과 나누는 기회, 배움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확장해 나가는 성장의 과정들 모두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성성푸른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되면서, 도서관 이용자와 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의 기간 동안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지역의 문화감수성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도 더 유익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환읍 다문화
작은도서관충
청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고니와 함께 떠나는 독립운동 시가 기행” 문화 프로그램 있어 성환 다문화 작은도서관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작 전에 강사 선생님께서 참가자에게 악보와 가사를 프린트 해오신걸 나눠주셨다. 프린트를 훑어보면서 이 많은 노래 중에 과연 내가 아는 노래는 몇 개나 될까 생각하면서 수업에 참가했다.

새야 새야, 용진가, 고향의 봄, 반달 등의 독립 운동가분들의 시와 글을 직접 낭송해봤다. 평소에는 눈으로만 읽었는데 소리 내서 읽어보니 다소 어색했다. 소리를 내며 가사를 읽었을 때 글의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재연이 되면서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다. 낭송한 후 노래



에 대한 작사가와 작곡가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 ‘고향의 봄’ 노래는 참가자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동요였다. 단순히 동요로만 알고 있었는데 깊숙이 배워보니 현실을 직시하고 일제 식민지하의 저항의식이 담겨있었다. 저항의식을 노래로 표현하며 널리 알리고 지금 시대까지 대다수가 아는 노래로 남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초등학생부터 50대 아저씨까지 연령대가 다양해서 서로 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달랐다. 중년층 분들은 익숙한 노래에 흥얼거리셨고 몸소 시범으로 노래도 부르셨다. 또한 이 노래 가사가 이런 멜로디였구나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느끼셨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노래를 배워서 같이 부르려는 의지가 눈에 보였다. 모든 참가자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강사 분께서 지루할 틈 없이 기타와 아코디언으로 참가자들의 반응을 유도하셨다. 처음 만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부끄럽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 기타와 아코디언은 그런 민망함도 잊게 해주었다. 기타 선율과 아코디언 소리는 참가자들의 흥을 두 배 이상 이끌었다.

중, 고학생 시절에도 들었던 것을 성인이 되어서 다시 일제강점기 시절의 노래와 시를 다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이었고, 어디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노래와 시를 알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단순하게 주입하는 역사 수업이 아니라 노래와 함께여서 즐길 수 있었다. 시원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역사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성환읍 다문화 작은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강의를 진행될 때 또다시 참가하고 싶다.



소정 작은도서관

충청

충청 세종 - 소정 작은도서관?



소정면? 거기가 어디지? 세종시? 세종시 소정면?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시는 세종시 소정면은 세종시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위로 또 위로, 그렇게 가장 꼭대기로 눈길을 두면 비로소 찾을 수 있다. 보통의 읍면 지역이 그러하듯이 소정면은 다른 도심 지역에 비하면 인구가 적고 교통이 다소 불편한 작은 마을이다. 이러한 점들이 주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서로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 물론 참여한 모든 도서관들 모두 각각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서 언급한 지리적



한계 때문에 소정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읍면 지역 도서관에서는 특별히 더 감사한 기회였을 것이다.

소정면 및 인근에 거주하시는 참가자 백여 명과 6명의 전문 강사님들이 만난 6일의 문화가 있는 날들 중 며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한다. 소정면 유일의 학교인 ‘소정초등학교’ 어린이 친구들과 보낸 문화가 있는 날들에 대한 이야기다. 소정초등학교는 소정 작은도서관에서 뒤쪽 샅길을 따라 걸으면 초등학교 걸음으로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이웃해있다.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학교 활동이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출석 도장을 찍으러 오는 단골 친구들이 몇몇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 구경도 못해본 친구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번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5~6학년을 제외한 모든 소정초등학교 어린이 친구들이 소정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그 이후로 새로운 단골 친구들이 부쩍 생겨 사서로서 매우 뿌듯하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하면, 도서관에서 학교 측으로 아동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드리고 선생님께서는 학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상의하여 3~4교시 활동시간에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솔해주셨다. 학년 당 한 반만 있어서, 1~4학년 학생들이 활동시간이지만 색다르게, 교실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 함께 시를 쓰고, 전래놀이로 땀을 쏟고, 거미를 만지거나 단풍잎 손수건을 만드는 생태체험을 하였다. 지켜보기만 해도 참 귀여워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그리고 먼 길을 오신 강사님들도 어느 한 분을 꼽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 열의 넘치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

꼬마 시인들과 강사님이 한 줄씩 함께 만든 시 한 편으로 마무리 하고자한다. 3학년 학생 중 지민이네 가게인 은행나무 떡집에 대해 쓴 시다. 친구네 가게에서 파는 떡 이름을 하나 얘기하고, 입맛을 다시는 어린이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은행나무 떡집

박혜선 선생님과 소정초 3학년 학생들

지민이네 집은

은행나무 떡집

옛날 그 자리에 은행나무가 있었다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은행나무 떡집

인절미, 무지개떡, 가래떡, 꿀떡, 바람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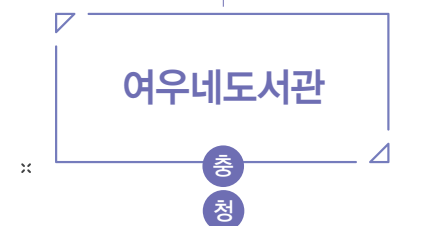
떡이란 떡은 다 있는 곳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까지 다 있는 곳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모든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냄새

문을 열고 들어서고 싶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여우네도서관은 서천군 마서면에 위치한 마을도서관이다. 마을의 아이를 키우고자 2009년 개관하여 11년째 운영되고 있다. 마을의 아이를 벗어나 서천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어른들의 배움터로 독서동아리, 마을 강좌 등 일상적 배움을 함께 하고 있다. 대형 도서관 못지 않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도서관 내부는 좀 큰 방 한 칸(? ㄱ) 이 곳에 아이들, 어른들이 뽁뽁하게 모였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책 장 너머에 서서 공연을 봐야 했다. 몸집은 작지만 우렁우렁 나오는 목소리는 공간을 꽉 채우며 열기가 나는 것 같았다. 들어오는 빛을 커튼으로 막았다. 그래도 빛이란 놈이 슬몃슬몃 들어왔지만 뭐 그닥 신경이 쓰이진 않았다. 빛그림을 배경 삼아 이야기가 시작되



었다. 중간 중간 효과음도 나오고 강사님 아들이 북을 쳐주고 직접 만드신 소품 등을 사용 땀을 흘리시면서 열심히 머릿속 가슴 속에 땀 그 무엇들이 들어 올 새 없는 시간들이었다. 앉은 자리에서 오감이 만족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안에서 끝난게 아니었다. 어쩔~ 하얀 종이테이프 하나로 마당에 호랑이를 그리셨다. 만드셨다고 해야 하나~ 어릴적 놀던 놀이를 응용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땀나게 신나게 놀았다. 아이들의 에너지를 이겨내는 어른은 없었다. 어른들이 슬며시 자리를 떠 그들로 자리를 피해도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놀았다. 놀이에 끝은 없음이다. 울음소리가 들려 보니 엄마는 집에 가자하고 아이는 더 놀고 싶어 하고.... 강사님이 종이우유팩 하나로 팽이딱지를 만들어 주셨다.

아이들을 놀고 싶고 엄마들은 집에 가야하고 아이들은 아쉬운대로 만드는 법 배워 손에 우유팩 하나씩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 공간, 같은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속에 남은 것들은 다를 것이다. 이 곳 여우네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은 오랜 시간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아이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오창우림필유1차 작은도서관

충
청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작은도서관 문화다방의 날



본 도서관은 충북 청주의 오창산업단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작은도서관이다. 공단이 조성된 이후,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인구층의 유입이 많았다. 규모는 작은 동네이지만 부모와 아이들의 교육 및 문화충족욕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주단지와 생활 시설 조성 외에 독서 및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사막의 오아시스같이 참으로 반갑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문화가 있는 날은 아이 대상의 '생태놀이, 전래놀이' 강좌와 성인 대상의 '독립운동시가, 드로잉, 목공, 시 쓰기' 강좌로 총 6회 매달 마지막 주에 진행되었다.

충
청

www.smalllib.org

아이들 강좌는 유아 및 초등 대상으로 오감을 느끼게 하는 놀이 활동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차후에도 작은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활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개의 경우 도서관에서는 외국어, 역사, 미술, 독서 등 교과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며 신나게 놀 수 있는 강좌의 만남은 어렵기 때문에 활동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인강좌는 주로 프로그램실이 한가한 오전시간대에 배치하여 활용하였다. 참여가 높았던 드로잉, 목공 활동을 하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과 취미생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모습이었다. 반면 독립운동시가, 시 쓰기 강좌는 대부분 생소하고 활동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등으로 참가자 모집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참여한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편견이었고,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었으며, 뜻 깊은 시간이라는 평을 해주었다. 강사의 기타, 아코디언 악기 연주를 바탕으로 함께 독립운동노래를 부르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시 쓰기를 통해 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편하게, 용기있게 표현한 것이 시 쓰기임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석 수

_____ 김 성

의지 없는 자만은 실패를 불러왔고
거친 물살 징검다리 끊어져 있다.
엄마처럼 아기 낳아 잘 기르겠다는 딸의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다.
돌을 깎아야겠다.
밤새 깎아 끊어진 다리 잇겠다는
마음 새긴다.



문화가 있는 날은 기존의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아이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아이 뿐만이 아니라 성인을 포함한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기에 작은도서관 이용대상 확대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가까운 곳에서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적인 문화예술활동가를 만나 다양하고 질 높은 독서·문화·예술 활동을 접할 수 있어 작은도서관과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로서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를 하며, 되돌아본다. 문화가 있는 날 강사와 강좌 내용, 참가들의 반응을 떠올린다. 그 속에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놀라고 때론 깊이 사유하고 슬퍼한 모습은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시간' 이었다! 이제 한 달에 한번 만났던 '작은도서관 문화다방'의 문을 닫는다.

내년에도 문화다방의 문을 열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치원 작은도서관

충
청조치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도 문화가 있는 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문화시설 특히 도서관 시설이 극히 낙후 되어있는 조치원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 같다. 작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연 인원들 모집이 될까? 하는 우려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면서 중고생들은 정말 재미있어 했고 다들 아주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고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 전래놀이나 목공예 등 아이들이 모두 어울려 함께 참여 하는 프로그램 들이 특히 인기가 많았다. 처음에는 이게 뭐하는 거냐? 부터 질문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금방 어울리고 재미있게 신나게 함께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부모님들도 어떻게 작은도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반응들이 많았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다. 처음 참석한 이후 재미가 있으니 매주 참여 하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더더욱 책을 멀리 하는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작은도서관은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인원 모집 하는 역할이 전부 라고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을 살리자는 명분은 좋으나 도서관의 역할이 너무 없고 지정된 프로그램 만 운영해야 하는 아쉬움과 도서관이 주도가 되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기대한다.



충북대병원
바람의도서관충
청병원에서 만나는 문화가 있는 날
“기적같은 하루”

병원은 민원이 많은 곳이다. 주차할 때부터 진료를 받고, 검사를 기다리고, 수납을 하는 동안, 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다. 하루하루 나의 삶을 저당 잡히듯 긴장과 두려움, 아픔과 해방, 치유와 행복의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는 전장과 같은 곳이 병원이다. 당연히 병원을 찾는 사람은 예민하고 힘들다.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할 터이다.

병원에 와서 완쾌됐을 때는 누구든 행복함을 느끼지만... 그 전까지 병원에 있는 모든 과정은 사실 너무 힘들다. 환자든, 그를 간호하는 보호자든.



하지만 충북대학교병원 바람의도서관을 찾는 사람로부터 지난 1년 동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행복의 얼굴을 만난다. 책을 찾고, 빌려서 병실에서 읽고..... 그걸 본 다른 환자가 또 도서관을 찾는 소소한 도서관의 일상이 병원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으레 하루 일과가 도서관을 찾는 환자부터 진료를 기다리는 짬에 잠깐 도서관에 의지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병원 직원들까지 도서관은 365일 문턱 없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

더 큰 변화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할 때 나타난다. 벌써 4년째 하고 있는 청주기적의 도서관 팝업북 놀이터와 상당고등학교 북케어팀의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올해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었다.

2018년에 “책방에 부는 바람, 소확행”이라는 주제로 각 부문별 유능한 강사를 모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호응을 일으켰던 참에 이걸 좀 더 멋지게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지라 더욱 기대가 큰 프로그램이었다. 이미 검증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지역의 강사들이 함께했던 문화가 있는 날!!

첫 시작은 “고니와 함께 떠나는 독립운동 시가기행”이었다. 올해가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 그 의미를 더했던 북콘서트 형태의 행사는 김강곤 강사와 소리꾼 조애란님의 콜라보로 아주 흥이 넘치는 무대가 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목포의 눈물이나 사의 찬미, 찢레꽃 등이 그 당시 불리어졌던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기분 좋게 노래를 따라부르는 환자들을 보며 흥에 겨운 첫 번째 강좌를 마쳤다.

다음에 이어진 “일상드로잉-우리 같이 그려볼까요?”, “그림자극연극놀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계절 생태놀이”는 중간 중간 환자들도 참여했지만 문화센터 수강생들처럼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많아서 더욱 적극적인 강좌가 되었다. 병원은 때로는 주변에 공원을 가듯, 마트를 가듯 자주 들러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자조모임을 하는 경우 등이 그렇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에 참석한 면면을 보면 입원환자 뿐 아니라 그렇게 병원을 종종 찾는 분들이 많았고 외부 홍보채널을 통해, 혹은 입소문을 통해 참여하시는 분도 많았다. 여름 방학 때 진행한 “몸과 마음이 신나는 그림책 전래놀이”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참여로 도서관 책상과 바닥을 오가며 도서관을 한바탕 뒤훑들기도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병원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요? 우~와~ 정말 좋은 곳이 있네요.”라는 감탄사이다.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가는 2시간이 너무 아쉽기만 하다.

병원에 올 때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고, 시를 쓴다는 한 참가자는 도서관이 주는 위안이 무척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다고도 했다.

누군가에겐 기적을, 누군가에겐 휴식을, 누군가에겐 그냥 보통의 소소한 일상을 주는 바람의도서관은 언제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바람처럼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꼭 맞는 바람으로 어디든 찾아갈 것이다.



해품터 직지도서관

총
청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4월 첫 프로그램인 박채란 작가와 함께 하는 ‘참 쉬운 글쓰기’를 시작으로 11월 이종수 시인의 ‘시쓰기’로 마무리하기까지 돌이켜보니 참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어 시작하게 된 문화가 있는 날은 내게도 소중한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작은도서관 여건상 시보조금 사업 외에 재능기부로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터라 도서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줄 수 없을까? 고민하던 사서에게 ‘문화가 있는 날’은 단비처럼 소중한 감사한 프로그램이다. 총 여섯 번의 새로운 강사님들과 만났던 시간 중에 기억에 남는 강좌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 ‘작가와 함께 하는 참 쉬운 글쓰기’다. 멀리 서



울에서 오신 박채란 작가님의 글쓰기활동은 글쓰기의 막연한 부담을 안고 있던 참여자들에게 글쓰기의 접근방법을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게 해주셨다. 마치 독서테라피를 연상시키듯 잔잔한 음악과 조명, 감정카드로 현재의 감정을 이끌어내주어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된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강좌는 5월에 진행했던 ‘몸과 마음이 신나는 전래놀이’다. 배소현 강사님이 선정하여 읽어준 얼음 땡! 책도 좋았지만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아이에게 역할을 주어 놀이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에 감동받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6월에 진행했던 ‘사계절 생태놀이’ 프로그램은 야심차게 야외로 나가 숲 체험을 해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예상대로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덥고 습한 바깥 날씨에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보람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이전에도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처음에 걱정했던 인원모집에 대한 우려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다행이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 소외지역의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이 문화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U.보라작은도서관

경
상

나만의 필통 만들기 2019년 6월 28일



집 가까이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마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고부터 가끔씩 찾아가는 곳. 그곳에 가면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 주시니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담소 나누는 재미도 솔솔 하다. 그리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을 보고 있으면 책을 읽어야겠다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꼭 책을 빌려 오게끔 한다. 도서관 나들이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도 얻어 올 수 있다.

또한 2년째 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책 한 권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참 좋다. 이렇게 도서관은 책, 다양한 정보,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경
상

올해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행사를 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많았다. 운 좋게 6월 달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가죽 필통 만들기가 계획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다. -가죽으로 나만의 필통 만들기- 제목만 들어도 끌리는 활동이었다.

가죽 공예는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접하는 거라 생각하며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그 가죽 공예를 직접 체험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다. 그것도 비싼 소가죽으로 공짜로 만들 수 있다니, 구미가 당겼다. 역시 공짜 활동은 줌마들의 접수 경쟁에 치열함을 보여 주었다. 10명의 정원이 순식간에 마감이 되었다고 하니..... 가죽 공예 활동 날 10명의 줌마들이 모였다.

우리들은 따뜻한 모닝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인사를 나눈 후 작업에 들어갔다. 가죽에 새겨 넣을 여러 다양한 문양들이 많았는데 미적 감각이 부족한 나는 견본으로 가지고 온 필통에 새겨진 보리를 택했다. 모방은 창작보다 쉬우니까. 가죽 위에 청보리 무늬의 판을 올려놓고 비틀어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잡은 후 한 손은 망치로 가죽에 무늬가 새겨지도록 탕탕 두드렸다. 그다음 비닐장갑을 끼고 염색을 하기 시작했다. 색깔은 초록색으로 골랐다. 이른 봄 청산도 여행을 가서 본 청보리밭을 떠올리며 청보리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 강사님은 염색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 중요한 염색을 잘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명도와 채도를 적절하게 하면서 색칠을 하여 가죽의 독특함을 표현해 봐야지.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못 한다고 기죽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만의 멋진 필통이 완성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염색을 한 것 같았다. 부족한 부분은 강사님이 한 번 더 색칠해 주어서 염색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테두리에 마감재를 바른 후 잠시 말린 후 잠금장치를 달았더니 멋진 가죽 필통이 완성되었다. 와우 하고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예뻐다. 모두가 감탄사를 쏟아냈다. 그야말로 자화자찬이었다. 실력이 부족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멋진 필통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에 다들 행복해 했다. 한 분 한 분이 만든 필통들이 개성적이기도 해서 예뻐지만 한데 모아 놓고 보니 색깔과 무늬들도 다양해서 더 예뻐 보였다.

가죽 필통에 필기구를 넣고 에코백에 넣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나, 내 작품을 보며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타인들. 문화가 있는 날이 준 이 소중한 선물을 오래오래 간직해야겠다.



구미시근로자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경
상

문화가 있는 날 활동을 마치며...



“엄마! 엄마”

“왜? 주방에 있어.”

“뛰해! 가야지 걸어서 가는 도서관에”

“응?”

“가까운 작은도서관. 그림자놀이 보러”

등교할 때 작은도서관에서 그림자는 내 친구 작가 오셔서 즐거운 책놀이 신청했었다며 가
자고 했더니 집에 오자마자 끝도 없는 단어 나열이어서 연결하는데 순간적으로 고생했다.
시간이 있다며 괜찮다고 해도 일찍 가서 도서관에서 책보면 된다고 재촉해서 준비하고 나왔



다. 비까지 내려서 날씨는 많이 쌀쌀했는데 아이의 신나는 모습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그림자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여주어서 처음 접해보는 형식의 영화여서
집중하며 보며 중간 중간 설명까지 해주는 모습이 설레고 기대 된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그때
문일까 작가가 궁금해져서 혼자 상상속에 빠져있었다.

드디어 도착. 보는 순간 무장 해제하게 만드는 편안한 모습에 아이들도 같이 참여한 어른들
까지도 하나씩 체험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스스럼없이 손을 들어 발표도 하고 질문했다.
큰 스크린 뒤에서 불빛을 통해 몸으로 그림자를 표현해서 즐겁게 신나게 뛰어 놀면서 웃음 소
리를 들으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보여주었다.

작가의 싸인을 받으면서도 아쉬움이 가시지 않은지 계속 정리를 하지 않은 스크린에 눈이
고정 되어 있었다.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잊은 건지 어떤 질문을 하셨는
지 만드는 순서 한 행동등을 조잘조잘거리며 왔다.

글을 쓰기위해 그때의 일을 질문했더니 아직도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아이의 눈
이 반짝이며 그 당시로 돌아가 다시 행복으로 빠지는 모습에 멋진 강연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분께 감사를 드린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산평생학습센터

경
상

2019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영문도 모르고 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지난 8월 초, 입사하자마자 프로그램실에 들어가 아이들 활동사진만 몇 장 찍고 나오라는 업무 지시를 받고 들어간 그곳.

프로그램에 집중하던 아이들이 일면식도 없는 내가 들어가니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세요?”, “새로운 선생님인가?”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었다. 다행히 강사님의 연륜과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진행 실력으로 나에 대한 궁금증을 사그라지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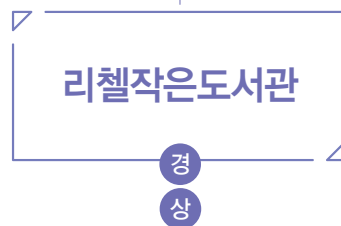
선생님께서 강풀 작가의 그림책 「얼음 땡」을 읽어주시는데 문득 동화 구연을 듣던 유치원생 시절이 머릿속을 스치며 잠시 6살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책을 읽고 그림책에 나왔던 얼음 땡 놀이를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풍선을 이용한 놀이, 천을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맞추기 등 많은 놀이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연극놀이였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많이 쑥스러워했지만, 한두명이 재미있게 하는 걸 보니 나중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했다. 나는 그렇게 아이들이 단시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였고 소심했던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리치며 노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선생님의 능력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가 한 몫 하지 않았을까...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한 가득 싣고 멀리까지 와주신 박정은 선생님과, 시골이라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2020년에도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2019년 2월,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공모를 하면서 ‘설마... 우리가 선정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기대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벌써 6번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선정이 되었을 때에도 수준 높은 활동을 이용자들에게 조금은 쉽게 선보일 수 있어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먼 부산까지 워크숍을 가야한다는 부담이 컸던 봄날이었다.

5월 리첼작은도서관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있던 날이 생각난다. 기나긴 여정의 첫 행사라서 긴장도 많이 했었고, 윤광웅 선생님과의 여러번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난다. 참석해주신 분들이 함께 ‘여우모자’ 책을 읽고, 브로치에 원하는 물감 색깔을 골라 붓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하다며 너무 행복해하셨다. 옛날 학창 시절도 생



각나고,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다면서 미술 활동 등록을 해보겠다는 분도 계셨다. 멀리 대구에서 오신 강사님께서도 다행히 우리 참석자들과 호흡이 잘 맞아서 즐거웠다고 말씀해주셨다. 첫 행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야, 정말 우리 도서관에서 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이렇게 유명하신 강사님을 섭외하고 행사를 진행하려면 너무나 수고스럽고 힘든 작업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 과정이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로 일정이 잡혀있고, 도서관에서는 홍보를 하고 참석자를 모으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리고 참석자들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다음 행사는 언제인지, 누가 오시는지 기대를 해주셔서 일 년 내내 뿌듯했다.

7월과 8월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특별 강좌로 꾸몄다. 김문경 선생님과 함께 다육이가 살 수 있는 화분 집을 직접 만들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고, 판소리 이수자 김선희 선생님과 함께 심청전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큰 종이인형을 접고 직접 인형극 무대를 꾸며보면서 아이들이 모두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물을 연기하는 모습에 박수가 절로 나왔다.

10월 깊어가는 가을밤에는 옛이야기의 대가 서정오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과, 넓은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실수를 한 것은 없는지 유명하신 작가님을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긴장을 했다.

11월은 한지 공예 전문가 이외수 선생님과 한지 조각을 이용하여 나만의 상자 만들기 활동을 했다. 아이들이 밀가루 풀을 손에 잔뜩 묻혀 한조각 한조각 의미를 부여한 나만의 무늬를 붙이는 모습이 참 예뻐보였다.

12월 마지막 행사를 앞둔 지금,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처음부터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시작했던 일이었다면, 처음에 느꼈던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컸을 것 같다. 잘 모르고 있어서, 일회성이 아닌 6번의 행사였기 때문에 일 년 내내 매달려야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많이 아쉽다. 또다시 기회가 된다면 처음부터 즐기면서,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야월행복한
어린이도서관아띠경
상

포근하고 정다웠던 아띠도서관



나와 아들이가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도서관을 처음 찾은 건 가을이 머물던 무렵이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작가를 만나는 기회가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얼른 핸드폰으로 도서관 SNS(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후 서둘러 신청을 해 두었다. 도서관이 있는 우리 동네는 대구광역시 지도 안에서도 동쪽 꼬트머리에 있는 소박하고도 오래된 주택이 많은 구도심인데다 공립도서관의 축제에서나 볼 법한 동시작가를 그것도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면서도 혹시나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제일 먼저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문화가 있는 날 박혜선 작가님을 만나는 날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반야월 5일장이 열리던 날이었다. 우리 동네는 대구광역시 안에서도 시골에서만 볼 수 있을법한 전통5일장이 열리는 유일한 곳이다. 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과, 이리저리 뒤편 자동차들 사이를 정신없이 빠져나와 겨우 시작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작가와 재미있는 책도 읽고 놀이도 한다는 설레임에 들떠 있던 여덟 살 아이는 신이 나 있었고, 나도 덩달아 기대에 차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가는 도서관이 낯설어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걱정과는 달리 아띠도서관은 마치 동네 사랑방과 같이 포근하고 정다웠고, 처음 방문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친한 친구'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아띠' 처럼 친구집에 놀러 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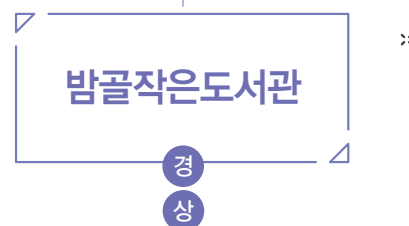
기대만큼이나 박혜선 작가님의 이야기는 너무 정감있고 흥미로워서 참여한 아이들이 모두 반짝반짝 집중했던 기억이 난다. 작가님이 동시작가가 된 계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해주시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시의 소재가 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있는 동시로 바뀌는 게 신기하고 신선한 경험이었다.

평소 아이들이 책은 자주 읽지만 글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데 2시간 내내 재미있게 이끌어 주셨고,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지어 본 동시를 작가님이 멋있게 낭독해 주셔서 아이들의 어깨가 으쓱으쓱, 입꼬리가 실룩실룩 올라갔던 기억도 난다. 게다가 아이들과 부모님이 작가님의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더욱 감사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공공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때마다 혹시나 떠들거나 피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조심스러웠는데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아띠를 만나 도서관이라는 곳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이야기 문이 열려있고, 참으로 따뜻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젠 어느새 나의 일상 중 하나로 들어와 있는 아띠도서관! 앞으로 함께 할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2019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마치며...



밤골작은도서관은 부산시 연제구에서 직접 운영하고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연산3동세 마을문고를 전신으로 2011년에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다. 밤골작은도서관이 도심에 위치하긴 했지만 주변 동네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문화수준이 낮고,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 있다. 그래서 같은 지자체 공립 작은도서관 들 중에서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고, 독서 인구수도 낮다. 하지만, 올해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덕분에 매 달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이용자들을 맞을 수 있었고, 더불어 풍성하고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평가도 들으며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덕을 톡톡히 본 한 해였다.

이 곳 밤골작은도서관에 부임한지 첫 해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신청



하게 되었고, 처음 찾아간 워크숍이란데서 정신없이 강사 매칭을 하고 온 날 순간적으로 얼마나 집중해서 우리도서관과 인연을 맺게 될 강사님들 얼굴을 익히고 강사 한 분 한 분과 활동 일정을 잡았는지, 돌아오는 길엔 붉게 상기된 얼굴과 동시에 다리가 후덜 거렸던 일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래도 다행히 상반기에 성인 강좌를 잡고, 여름방학 전후로 아이들 프로그램들 일정을 잡을 수 있어서 6월동 모두 무사히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6월에 했었던 박정은 작가님의 <내마음의 책>이다.

6월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 연극놀이라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형식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나를 드러낸다는 두려움인지 도서관 행사에 잘 참여하시던 분들도 꿈무늬를 빼고 참석을 꺼려하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참석률이 저조하여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우여곡절 끝에 5명의 인원만으로 진행했는데, 이걸 웬걸. 강사님의 부드럽지만 강한 에너지에 순식간에 무장해제 되어 온전히 나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몸을 움직이고, 도서관을 휘저으며 참여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강사님이 정성껏 준비해온 재료로 조용히 책을 한 땀 한 땀 꿰어가며 <내마음의 책>을 만들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꼭 차 오르는 느낌을 살면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올해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6번째 활동을 남겨두고 계량기에서 시작된 화재로 순식간에 번진 불길로 다행히 초기진화를 하긴 했지만, 전기를 쓸 수 없어 감람한 도서관에서 도저히 활동 진행이 힘들어 연제도서관 활동실을 빌려 활동을 한 일이 있다. 마지막 활동은 무사히 진행은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아찔하고 참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구나 싶다.

6번의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금 한해를 되돌아보며 최종 결과 보고를 적고 있는 지금. 한 해를 참 열심히 잘~꾸려왔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좋은 인연 맺게 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다.



송도 솔향 작은도서관

경
상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마치며...



포항 송도 솔향작은도서관은 송도 솔밭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21평 남짓의 작은도서관이다. 규모는 작지만 7천여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독서 공간으로서는 무척 괜찮은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고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적어 이용자 수 또한 적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운영자인 나에게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100개의 도서관에 선정되길 고대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총 6번의 기회를 얻었다. '그림책으로 토닥토닥', '이루어져라 필통아', '아이야 너를 노래하렴' 등 베테랑 강사님들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4월 24일 처음으로 열린 문화의 날 활동, 시작부터 많은 신청자들이 몰렸다.



이들이 채 지나지 않아 정원이 모두 마감됐고 뒤늦게 신청하게 된 사람들은 아쉬움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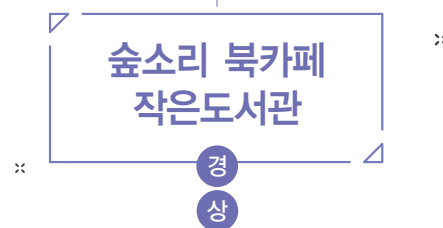
그림책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내용과 연계한 '이루어져라 필통아' 활동에서 수강생들은 2시간동안 가족을 이용해 자신의 취향대로 직접 필통을 만들어 보았다. 처음이라 서툴렀으나 강사님의 꼼꼼한 배려로 모두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잘 만들어진 필통을 보고 함박웃음을 짓던 수강생들의 얼굴이 지금도 선하게 떠오른다.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생각나 다시한번 이런 활동을 할 수 없을까 몇 번이고 강사님께 여쭙봤던 기억이 난다.

시작을 잘 했으니 반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던가. 알음알음으로 알려지며 나중에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도 생겼다. 문화의 날 프로그램이 진행 될 때마다 솔향작은도서관은 활기가 넘쳤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골고루 진행된 프로그램은 매회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솔향작은도서관의 분위기도, 이미지도 더 좋아졌다.

지난 11월 30일 토요일 성진숙 강사님의 역사동극이래?, 전래놀이래? 프로그램을 끝으로 문화의 날 프로그램이 모두 끝이 났다. 그동안 열심히 참가했던 사람들도 운영자인 나도 너무 아쉬웠다. 많은 준비와 정성으로 유쾌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을해주신강사님들에게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좋은 것일 수록 많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어른도 신나다!



숲소리 북카페는 자원봉사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안 작은도서관이다.

봉사자분들이 커피 팔아서 책 사고 물품도 사고 책 등록해서 대출반납까지 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이 곳곳에 있다. 내 아이와 주위에 아이들에게 도서관 문턱이 낮게 느껴지도록 환경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 애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다 이 번엔 어른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행사로 '이루어져라! 필통아!'를 선택했다.

어른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가져보자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가자 모집 공고를 했지만 맛벌이 부부도 많고 활동 시간도 평일 오전이라 참가자가 너무 작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다. 괜한 걱정이었다. 대기자 신청까지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어른들도 이런 활동

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했다.

활동 준비물로 소가죽을 받았다. 소가죽이 맞나? 의심하며 선생님께 여쭙봤다. 소가죽에서 디포리 냄새가 나는 것이다. 내 코를 의심하며 주위에 물어봤지만 다들 같은 반응이다. 육지 동물에게서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모양도 찍고 바탕색도 입히며 작업을 했다. 내가 한 것도 보도 옆에 한 사람들 것들도 결눈질해 가면서 열심히 손가락으로 필통 색을 입혔다. 이렇게 힘들 줄이야~ 핸드메이드가 비싼 이유를 실감했다. 완성된 작품을 보니 손가락의 결림과 어깨의 통증을 저 멀리로 날아갔다.

낮선 공간에 들어서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서관도 그 공간 중에 하나이다. 도서관 문턱을 낮추고 한발 디딜 수 있는 계기에 문화가 있는 날이 있다. 책은 나에게 멀지만 책과 연계된 다른 활동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앞으로 아이들만의 즐거운 공간이 아니라 어른인 내가 더 신나서 오게 되는 숲소리 북카페 도서관이 되었다.



신월평생학습센터

경
상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신월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기관이자 작은도서관으로, 도심에서 문화소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분포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기획·운영하고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열악한 재정과 인적 자원으로 항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나 문화예술전문가들께서 우리 도서관에 찾아와 주셨다. 유명한 옛이야기 작가님과 즐거운 만남부터 작곡가 선생님과 신나는 노래공연, 조금은 생소한 독립출판에 대한 이야기,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나를 표현할 수 있었던 성인연극놀이, 어려웠지만 신기했던 인형극제작 과정, 신

나게 한판 놀았던 전래놀이 역사동극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도서관에서 처음 진행된 질 높은 활동들이었다.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양질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자,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만족도 또한 무척 높았다. 이후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홍보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그 결과 온·오프라인의 홍보 수단을 더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또 몇몇 프로그램들은 우리 도서관에 맞게 변형하여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얻었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워크숍 때 강사님께서 “도서관은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다. 프로그램 속에서 만난 강사님들과 참가자들, 그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놀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 떠올라 마냥 즐겁다. 작은도서관을 문화의 광장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빛도서관

경
상맞장구치면서 듣는 부모의 귀가
우리 아이 훌륭하게 키운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짝 반짝 빛이 나는 아이들,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길 꿈꾸는 우리 아이빛 도서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월배아이파크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2015년 1월 아파트 입주와 함께 아이빛 도서관도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다. 입주민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아이빛 도서관은 어설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마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걸음 걸음에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은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이 아닐까한다. 총 6회에 걸친 어린이, 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다.

책 속 그림 한지로 표현하기를 통해 한지의 역사와 한지 만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고슴도치 조각 이불' 을 함께 읽은 후 한지를 자르거나 뜯어서 조각이불처럼 붙이는 활동을 통해 필통을 만드는 독후 활동도 함께 했다. '그림책으로 마음을 토닥토닥' 이라는 주제에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생각해서 표현하고 그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넣어 향초를 만들기 했다.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와 함께 떠나는 행복 찾기 놀이' 활동을 통해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새길 수 있는 내용을 탁본하고, 소중한 조각을 생각해보며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 등, 학원, 학교, 집이 아닌 아파트 내 도서관에서 이러한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고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 부모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 라는 질문에 당연 머리는 부모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학부모라는 단어에 동의할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일까?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대한민국의 엄마이자 부모이기에 '맞장구치면서 듣는 부모의 귀가 우리 아이 훌륭하게 키운다' 라는 주제는 진심으로 너무나도 와 닿았다.

도서관은 긴장하며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강사님의 서두를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우리 아이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내용은 간단하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며 귀를 열고 열심히 들으며 맞장구치면 된다. 아이가 침묵하는 건 내가 아이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귀만 열어주고 맞장구 쳐주면, 들어주고 맞장구 쳐 주는 엄마를 위해 아이는 이야기 거리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할거다. 친구의 이야기도 귀 담아 듣고, 활동도 경청하겠지?(공감해주는 누군가, 엄마에게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경청하고 친



구 이야기 들어 주는 우리 아이는 당연히 공부도 잘 하게 되고 인기 짱이 되어 리더가 될 수 있다는거다. 강사님의 이러한 말씀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 이야기 열심히 들어주며 공감해주는 사람이 어떨까? 날 존중해 주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신뢰가 쌓인다. 귀는 잘 들으라고 두 개가 있다고 한다. 귀 열어 두고 맞장구쳐보자. 눈도 봐 주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키우자.

우리 아이빛 도서관에 찾아 온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추억이었다.

어린이도서관 동화랑놀자

경
상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도서관은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어린이도서관 동화랑놀자다. 관장님이 도서관을 시작하신지 벌써 19년이 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그동안 당감동 · 부암동에서 마을의 주민들, 아이들과 책을 통한 독서활동, 북스타트, 인형극, 빛그림, 역사탐방, 독서모임 등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해왔다.

해마다 이용자와 동네 아이들이 즐기며 작년 폐관을 고민하다가 올해 초 다섯 번째 개관식을 하면서 다시 힘을 냈다. 우리 도서관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용한 이용자들이 많아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서관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어머니들도 함께 성장해 왔

경
상

www.smalllib.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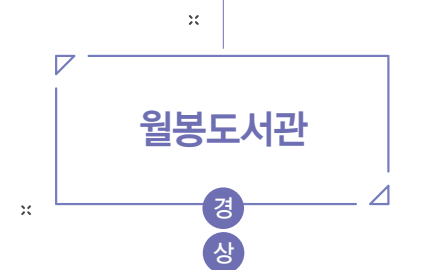
다.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머니들의 동아리들이 더 많다. 동아리 모임들을 통해 서로 재능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우리도 힘을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만나기 힘든 다양한 작가들과 예술가들을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에서 만나, 직접 강연도 듣고 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도서관에서의 좋은 추억이 되었다. 마을에서 우리 도서관이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역사를 주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주신 강무홍 작가님의 감동적인 강연을 시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박정은 강사님의 연극놀이로 아이들이 아닌 우리 어른들이 몸놀리로 실컷 웃었고 우리의 옛이야기를 강연해 주신 서정오 작가님 덕분에 옛이야기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편하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었다. 그림책정크아티스트인 안선화 작가님의 활동을 듣고 도서관에서 버려지는 그림책을 이용해서 팝업북을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져 놀 수 있게 되었다. 동요작곡가인 이종일 강사님과 아이들을 음악을 통해 웃고 즐기면서 말이 노래가 되는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조형예술가인 이송현주 작가님과 아이들 함께 자신들의 작품을 걸어서 도서관을 예쁘게 꾸미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의 프로그램으로 평소에는 해 볼 수 없었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의 활동들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관장님이 늘 말하는 ‘별 짓 다하는’ 도서관이 되었다.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도서관의 추억이 새록새록 하나씩 쌓여간다.

우리 마을엔 작은도서관이 있다. 당감동엔 동화랑놀자가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동화랑놀자는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에는 동화랑놀자 20주년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뿌린 씨앗으로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만난 작가님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게 감사하다.



좋은 자양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책을 중심으로 하는 특강들이 여섯 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의 한 작은도서관에서 펼쳐졌다. 옛이야기, 열 두 띠, 역사동극, 그림책, 미디어, 독립출판... 옛이야기와 독립출판이라는 상반되는 주제 사이사이에 지금까지 진행된 특활동 주제를 넣고 나열해보니 마치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 어느 하나 겹치지 않고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이 6가지 주제 중 작은도서관을 애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비교적 친밀하게 느껴져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도 있었고,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 모집에 애를 먹은 주제도 있었다. 아마 모든 작은도서관의 고충일 인력난 속에서 특강을 준비하면서 고된 순간도 있었지만, 6개의 특강이 끝날 때마다 수강생 모두가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모집에 진땀을 뺀 강좌의 반응이 아주



좋았을 때는 울다가 웃어 몸 어디에선가 뿔이 돋아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돌이켜보면 작은도서관은 프로그램보다는 독서를 위주로 이용하는지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낫설면서도 동시에 값지게 다가왔지 않나 싶다. 가지각색의 특강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고, 문화예술전문가와 정답게 둘러 앉아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자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많은 벤처기업의 시초는 바로 자신의 집의 차고라고 한다. 공구로 직접 기계를 수리할 뿐만 아니라, 분해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시 조립도 하고, 그 과정에서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것을 만들며 키운 창의력이 창업의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6차례의 특강을 마무리하며 어찌면 작은도서관이 차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 앞에 있어 거리낌 없이 찾을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단순히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생각이라는 공구로 책을 이리저리 분석하고 독후활동을 통해 똑딱 똑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어도 보기도 하고, 강연을 통해 얻은 사고력이 지식의 토대가 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차고가 벤처기업을 탄생시키는 기반이 되었듯이 옛이야기에서 독립출판에 이르기까지 6번의 특강을 통해 얻은 경험과 사고력이 참여자들의 앞날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장유대우 작은도서관

경
상

내 다육친구!!! 반가워~



경남 김해시 장유3동 팔판푸르지오5차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유대우작은도서관은 2006년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봉사와 관심으로 마을문고로 출발하여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이용자의 구성이 폭넓어 지역이용자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이번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 중 엄마와 딸이 함께한 참가자의 이야기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부터 아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 그 경험 속에서 조금씩

경
상

아이와 함께 성장해가는 나를 발견한다.

오늘도 딸로 인해 얻게 된 인생 최고의 기회 장유대우작은도서관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내 다육친구!!! 반가워~” 활동이 있는 날이다. 그 활동에 보조를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 들어왔다.

장유대우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 중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라 딸도 어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들떠있다.

9살 딸과 함께 최고의 추억을 만들 생각에 가슴이 쿵쿵쿵~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소개가 끝나고 “내 나무친구”라는 동화책을 예쁜 목소리로 읽어 주셨다.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동화에 모두가 당나귀 귀가 되었다. 너무 사랑스럽다. 책을 읽고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이 시작되었고 설명을 듣는 것 만으로 호기심이 부풀어 올랐다.

책상위에 준비된 재료에는 반죽을 할 수 있게 봉지 안에 흙처럼 생긴 가루가 들어있었고 물을 섞어서 주물럭 주물럭 반죽을 하였다. 거침없이 척척~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고 각자 자신들만의 화분 형태를 갖추고 저마다 개성있는 색깔을 골라 화분에 웃을 입혔다. 신기했다. 색을 입히니 어느 하나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 없었다.

친구들은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다육이 친구를 조심조심 옮겨 심고 예쁘게 꾸민 네임픽에 다육이의 이름을 적어 꽃아주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육이 친구가 탄생되었다. 눈앞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같은 크기의 호기심으로 활동에 참관하고 친구들을 보조해주며 뒀가에 열정을 쏟으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의 상황을 딛고 또 분발하고 의외의 결과에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보조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칭찬을 받았다 이 얼마만의 선생님께 듣는 칭찬인가? 도서관에서 좋은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좋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딸과 좋은 경험을 덤으



로 받아가는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이번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활동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엄마와 딸의 좋은 추억까지 만들어 드린 것 같아 더욱 더 보람된 한해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



책마루 작은도서관

경
상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부산에서 문화가 있는 날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기차에 올라탔다. 이런 기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설렘 반 기대 반 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다. 워크숍을 했을 때부터 인상이 너무나 좋으셨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시간조절 때문에 몇 번이나 전화 할 때도 얼마나 친절히 전화를 받으시는지 목소리에서 다 전해지는 것 같았다.

문화가 있는 날 이 있기 전 강사가 체크해야 될 것과 도서관에서 체크해야 될 것을 확인 후 당일이 되었다. 아이들 접수가 많은 프로그램 이다보니 이름표를 만들어서 붙이게 하였다.

아이들 얼굴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순서대로 한지조각을 하나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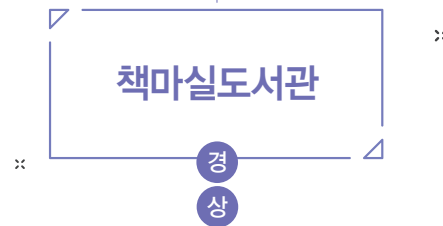
붙여나가는 모습이 약간 어려워하면서도 점점 예쁘게 완성 되가는 필통이 신기하기도 하고 웬지 뿌듯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저마다 각자의 한지필통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사진으로 담기에 좋았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고 해야 할까? 뒤흔치는 아이들한테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한지를 더 많이 붙이겠다고 꺼내 놓은 거 말고 다른 한지를 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손이 빠른 아이는 다음순서 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기 도 하고(초등 전 학년) 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들이 활동을 받다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신 데도 침착하게 대응 하시는 모습이 역시 선생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했다. 물론 도서관 봉사자선생님 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전원 안전하게 마치고 귀가시켰다.

활동을 다 마치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라는 문구가 떠오르는 건 나만 그런 걸까? 하지만 아이들이 기뻐하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뿌듯해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또한 기분이 스멀스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한 해 동안 문화가 있는 날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다보니 작은도서관 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일기를 써 본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문화가 있는 날 글쓰기 강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처음엔 글을 쓴다는 것이 왠지 부담이 돼서 책놀이 팀이 아니었다면 모르는 척 슬쩍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고백도 슬쩍 해 본다.

결론은! 참가하지 않았다면 정말정말 후회했을 강좌. 박채란 작가님과 함께 하는 글쓰기 강좌였다는 것!

편안하고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신 작가님도 반가웠지만 오랜만에 나의 감정을 깊숙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은 낯설면서도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카드를 통해 나의 감정을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내 삶을 이야기하면서 머리 속에 떠오르기만 할 뿐 늘 엉켜



있던 많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툭툭 튀어나오는 경험은 참 새로웠다.

40대. 말하지 않고 삼키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진 나이.

어쩌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감정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히(?) 삼켜내는 모습이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이라고 계속 나를 다그쳐 왔는지도 모르겠다.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며 써 내려간 글들이 읽혀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났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마구 써 내려간 글.

날 것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망설여졌었는데 오히려 날 것의 감정들이 그대로 나왔을 때 눈물과 함께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순간에서 내가 썼던 글들은 백일장이나 숙제 검사를 위한 일기처럼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었다. 딱히 글쓰기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음에도 글을 다듬어 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번거롭고 싫어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글쓰기와 멀어지게 된 것 같다.

고여 있던 내 안의 말들, 글들을 친절하게 밖으로 끌어내 주셨던 작가님과의 시간.

오롯이 나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시간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을 비워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그 날 박채란 작가님이 박경리 선생의 인터뷰 이야기를 하시며 “나는 고통스러워서 글을 쓴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글을 쓰고 나니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고 난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잊고 있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하는 마음으로 잊고 있던 일기장을 꺼내 보게 된 날이었다.



천주평생학습센터

경
상

마을 도서관에 온 손님

— 작가 강무홍 —



내가 다니는 천주평생교육센터 내 마을 도서관은 아름다운 도서관이다. 우리들이 늘 생각 하는 도서관은 책을 분류별로 정리하여 꽂아놓은 서가가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대출 반납 등에 이용되는 도서 업무용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은 여기에 아름다운 꽃과 도자기와 다육식물들이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먼저 눈이 시원해진다. 나지막한 서가 위에 너무 많아 이름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육식물들이 놓여 있고, 우리 마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되는 도예교실에서 만들어진 다육 식물들의 화분과 도예작품 9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관 오른편



1평 남짓한 공간에는 아예 실내 정원까지 마련해 놓아 눈도 즐겁고 공기도 깨끗한 그야말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다육 식물과 정원은 오래된 책의 해묵은 냄새도 없애주고, 습도 조절도 해주며, 도서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탁한 공기까지 정화 시켜주는, 그야말로 책과 식물들과 도자기 작품들이 어우러져 있는 갤러리 같은 아름다운 공간이다. 이 곳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책도 읽고 담소도 나누며 때때로 아이들을 위한 할머니들의 구연동화가 펼쳐지기도 한 곳이다. 그야말로 우리 마을 도서관은 사랑방이다.

그런데 11월 2일 이 곳에 작가님 한 분이 내려와 마을 주민들을 위한 강연을 펼친다고 한다. 사실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책을 쓴 작가와 만난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작가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작가님은 『깡딱지』, 『그래도 나는 누나가 좋아』을 쓴 강무홍 작가이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으면 좋은 『마법의 두루마리』라는 책과 관련하여 강연을 펼친다고 한다. 나는 서둘러 도서관으로 달려가 시리즈 중 4권의 책을 빌려 읽고 작가님 오시는 날만 기다렸다. 사실 딸아이를 이미 대학에 입학시킨 학부모이지만 작가님의 역사관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시는 분이 어떻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쓰시는지, 그 소재와 창의적 발상이 궁금하기도 했다.

드디어 11월 2일!

서울에서 창원까지 지철 법도 한 거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작가님은 재미있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사실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남자인줄 알았는데 여자셨고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였다.

활동은 다양한 나라의 세계지도를 보여주시며 시작하셨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서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지도에 익숙했던 나는 다른 나라의 세계지도에 우리나라가 지도 저쪽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을 보고 생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 한 구석에 우리나라가 나의 세계관의 중심이기 때문이었는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서로 존중해 주는 세계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밖에 식생활이나 주거생활문화에 있어 환경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많은 유물과 유적을 통해 이해 할 수 있고, 사도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당파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로 다시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비롯된 비극적 사건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안보, 외교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역사의 고찰에서부터 찾아봐야 함을 느꼈다. 유물 하나, 역사적 사실 하나에도 인과관계를 자세히 제대로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하며 그리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스스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의 강연을 통해 역사란 단편적인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뇌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과거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나는 여기에 “독서력도 국력이다”라는 말을 보태고 싶다. 문맹률 0%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독서와 독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문학적 소양을 만들어 간다면 날로 개인화 되고 각박해지는 사회에서도 한번 살아볼만한 그것도 재밌게 살아볼만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한다. “작가와와의 만남”과 같은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먼 길 마다않고 찾아와 주신 강무홍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평해작은도서관

경
상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울진군 평해읍에 있는 우리 평해작은도서관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다. 처음 사업에 응모할 때 선정될 거라고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전에도 응모한 적은 있었지만 선정되지 않아 실망했고 특히 울진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라 선정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정되어 너무 기뻐다. 문화가 있는 날 오시는 강사님 마다 “울진 멀어요, 여행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다. 선정되고 너무 기뻐서 지역신문에도 홍보자료도 올리고 여기저기서 축하 한다는 말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작은도서관 운영 4년차인 나에게 첫 공모사업 선정이어서 더욱 기뻐던 것 같다.

경
상

공모할 때는 선정만 되어라 했지만 막상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보니 기존 이용자들이 흥미 있어 할 프로그램이 아닌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여지껏 나는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으로 체험이나 만들기 위주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6개 프로그램 중 연극 활동, 독립출판관련 강연, 작가강연등 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대상자 모집이 힘들거라 생각되어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진행하였던 몇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나의 소감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것 같다.

우선 첫 번째로 연극놀이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쉽게 지나치는 일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자기표현이 서툰 어른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북바인딩으로 나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고 같이 참여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이라 특별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독립출판강연은 대상자 모집을 울진군에서 도서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로 모집하였다. 요즘 출판, 영화, 서점 등 '독립' 자가 붙은 문화예술 활동을 매체를 통해 들은 적은 많지만 막상 이렇게 독립출판에 대한 이해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으면서 독립출판물의 특색있는 콘텐츠를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좋았다. 참석해 주신 도서관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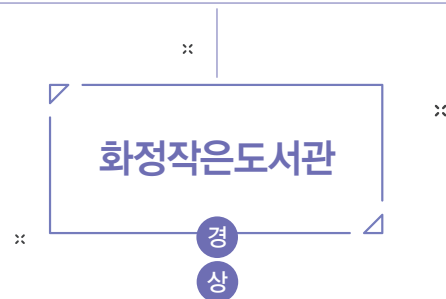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작가강연은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작가강연은 많이 참석해 보았는데 이렇게 직접 준비하고 모집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조금 힘들었다. 활동내용이 유치원 초등학교 부모님 대상이었기에 초등학교에서 한참 학부모역량강화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때였고 울진지역이 태풍 미탁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미 작가님과 약속한 상태라 연기도 어렵고 태풍 피해 입으신 분들께 작가강연 홍보하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작가님의 따뜻한 위로로 시작된 작가강연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만들기 프로그램만 진행하다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책 한 권으로도 이렇게 알차게 2시간의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 평해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은 거 같았다.

시작은 무엇이든 어려운거 같다. 하지만 서서히 물들어가고 노력하다보면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될 거라 생각된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지역이라 느껴졌던 우리지역에도 평해작은도서관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작은도서관이 지역 문화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다. 그래서 2020년에도 또 사업이 있으면 도전해 볼 까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에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너무 감사드린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날씨가 좋고 바람도 선선한 오후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었다.

도서관에서 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활동이라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피부에 느껴졌다. '오늘 뭐해요?', '오늘 뭐 만들어요?' 물어오는 아이들이 병아리 같았다.

화정작은도서관은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위치해 있지만, 민원을 보는 입구로 들어가 는게 아니라 야외주차장에서 안쪽으로 조금 걸어 들어와야 입구가 보여 처음 방문하는 이용 자분들이나 강사님들이 찾기에 살짝 헷갈려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도 나름의 지도를 잘 만들 어 강사님들께 보내서 길을 많이 헤매지 않으셨다는게 조금의 위안이랄까? 하.하.;



그래도 우리 도서관은 작지만 안에 들어오면 “있을건 다 있구만~” 하는 말이 나오는 마을 도서관이다. 도서관 안에는 서가들이 둘러싸고 있고, 한쪽에는 반 2층 짜리 공간이 있어서 천장에 머리 박는 것만 주의하면 도서관을 둘러보며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단, 크게 이야기 하면 도서관 전체에 내 비밀이 퍼질 수 있으니 이야기는 속닥속닥!!

또 다른 한쪽으로는 동아리실이 있지만 공간이 좁아서 활동이 많은 날이면 행정복지센터의 취미교실 공간을 빌려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활동도 아이들이 많아서 취미교실 공간을 빌려 활동을 하였다.

그전 문화가 있는 날 활동으로 나무의 소중함을 알아가며 다육이 심기, 독립출판물에 대해 알아보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 이번 활동은 5번째 활동으로 (으아니~ 벌써 5번째라니.. 몇 번 안 한 거 같은데 아쉬움이 남는다. 더 많은 활동도 해보았으면 좋았을텐데!! 2년에 한번만 신청 할 수 있다는게 아쉽다.ㅠㅠ) 중국어와 한자를 재미있게 지도하고 서예, 전각, 탁본 등의 문자예술을 콘텐츠로 활동을 하고 있으신 민승준 강사님과 함께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와 함께 떠나는 행복 찾기 놀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강사님은 활동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신발을 바꿔신은 뒤 (역시 발이 편한 슬리퍼가 최고!) 가지고 온 재료들을 정리하셨다. 만드셨던 작품들을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전시해 두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모두 온 뒤에는 소개와 함께 바로 아이들과 취미교실 공간 내에서 동그라미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활동 공간을 돌아다니며 동그라미가 뭐가 있을지 찾아보았다. 동그라미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 못 찾은 친구는 선생님이 대신 찾아주시기도 했다. 안경, 찻잔받침, 동그란 뚜껑 등.. 아이들은 많은 것을 찾아내었고 나눠주신 색종이에 찾은 동그라미를 대고 원을 그렸다. 그 후에는 원을 자르고 원의 중간에서 2줄을 그어서 입처럼 조각을 따로 떨어지게 만든 후 각각의 종이 조각에 나무 막대를 붙였다.

아이들에게 원 조각에 얼굴 표정을 넣어달라는 강사님의 말에 친구들은 눈도 그리고 콧수염도 그리고 리본도 그리는 등 자신만의 스타일로 원을 꾸몄다. 그린 원의 크기도 입의 크기도 제각각이라서 아이들의 개성이 더 돋보였던 것 같다. 모두가 원과 조각이 만들어 진 뒤 오늘 같이 읽어볼 쉼 실버스타인이 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과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책을 민승준 강사님께서 읽어주셨다. 읽어주시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원과 조각을 책 위에 대보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책을 읽어주셔서 아이들도 흥미있게 책을 읽었던 것 같다. 각각 원의 입장에서 쓴 책과 조각의 입장에서 쓴 책을 읽으며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들도 가졌고 강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문양이 새겨진 돌? 벼루에 아이들이 직접 탁본을 해보는 시간

도 가졌다. 탁본을 하면서 아이들이 찍히는 걸 신기해하기도 했고 직접 도장도 찍어보았다.

‘주는 기쁨’이라는 도장을 책갈피에 찍으면서 오늘의 활동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체험해 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지만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평소에 잘 접해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아니 몇 번이라도 신청을 하고 싶다.

문화가 있는 날 - 화정작은도서관 최종 결과보고 [문화가 있는 날 참가자 /어린이]

화정주민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도서관, 화정작은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도서관은 작고 어린이 책이 많은 도서관이다. 크기는 작지만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해주는 사서선생님과 봉사자분들이 계셔서 편안한 분위기이다.

한 번씩 화정작은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도서관 프로그램들도 참여 했었는데,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으로 있는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와 떠나는 행복찾기 여행이라는 활동을 하러왔다.

책 내용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었는데, 내 조각을 만들어서 선생님이 그 만든 조각들을 가지고 책을 읽어주셨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들을 선생님이 물어봐주시면 대답하고 했는데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책 내용이 끝나고 나서 나만의 탁본과 책갈피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다.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종이에 찍으니까 책갈피 모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다.



꿈꾸는 작은도서관

호
남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정읍 꿈꾸는 작은도서관은 2015년에 부영1차 아파트 단지 내에 꿈꾸는작은도서관 으로 개관하여 벌써 5년을 보내고 있다. 1천여 세대가 넘어, 성인 및 아이들이 늘 도서관을 찾고 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용자분들에게 좀 더 색다른 프로그램을 선물해드리고 싶어 ‘문화가 있는 날’을 신청했지만 해마다 낙방. 매년 다음을 기약하던 중 올해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2019년이 즐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너무 행복했다.

드디어 4월! 윤미숙 선생님과 함께하는 ‘술술 써지는 일기장의 비밀’로 문화가 있는 날이



시작되었다. 스크린에 다양한 책을 띄워 읽어주시고, 아이들에게도 직접 책을 읽게 해 주시면서 집중도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선생님과 2시간동안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아이들과 함께했다. 에너지가 넘쳐 소란스러워진 아이들을 다 받아주시고 활동을 잘 마무리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5월 박서진 작가님과의 만남. '독서의 힘으로 작가되자' 평소 아이들의 책 읽기와 글쓰기에 고민 많으신 어머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2시간이 넘는 작가님의 이야기에 어머님들이 폭 빠져 계시는 모습을 보며 올 한해뿐인 사업이 너무 아쉬웠다. 어머님들이 먼저 책과 친해져야 할 것 같으며 책을 대출해 가시는 분도 계셨다...

6월 윤일호 선생님과의 시 쓰기와 이야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진짜 시와 거짓시를 찾아내는 아이들을 보며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던 나의 고민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써낸 시 한편 한편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던지.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아이들이 만든 멋진 시간이었다.

8월 최경화 선생님과 함께한 신명나는 우리놀이 시간. 여름휴가도 끝나고 날도 더워 접수가 많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머님들의 높은 관심으로 접수는 초과 하였고 많은 아이들이 함께 했다. 신나는 우리이야기, 호랑이 탈, 다양한 전통악기들까지 2시간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주신 강사님 덕분에 우리아이들 몸이 흠뻑 젖을 때까지 신나게 놀고 웃었다. 무더위에 애써주신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9월 백정민 선생님과 함께한 '영화 속 사람 만나기' 시간.

감독님이 너무 젊어서 놀랐고 그림에도 아이들의 폭풍 같은 질문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



주시는 모습에 감사했다. 영화감독님은 좀 어려운 분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금은 어려운 영화 이야기를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쉽고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었다. 영화의 역사 이야기도 참 재미있었다.

10월 이미경 선생님의 '그림책에 빠진 그림자극'으로 어머님들과 작은도서관 선생님 분들이 함께 하셨다. 우리 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로 '곰씨의 의자' 책을 먼저 읽어보았는데, 활동에 참석하신 동아리 회원 말씀이 그림자극으로 활동하니 책을 다르게 한 번 더 읽은 느낌이 들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씀해주셨다. 시작할 때는 인형을 그리고 오려서 완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그림자극을 마쳤을 때는 해냈다는 성취감에 너무 행복해 하셨다.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달려온 2019년도, 준비하고 인원 모집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항상 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음 달을 기대할 수 있었다.

꿈꾸는 작은도서관 이용자분들과 운영자는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웃을 수 있었다. 좋은 사업 만들어주시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이끌어주신 문화가 있는 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꿈돌이작은도서관

호남

꿈돌이네 '문화' 한술밥



한술밥을 먹을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꿈돌이작은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문화' 라는 밥을 많은 주민들과 함께 먹었다. 바로 식구가 된 것이다.

사람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정신적 양식인 '문화' 를 섭취하는 식구를 늘려가는 것.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우리 도서관은 도로변에 있긴 하지만 위치적으로 외부인들이 찾기 쉽지 않은 장소이다. 한번 와보면 쉬워도 그 한 번이 쉽지 않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데,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꿈돌이도서관. 그런데 우리 작은도서관을 큰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바로 문화가 있는 날 덕분이었다.



4월 오치근 작가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야기를 시작으로 꿈돌이의 작은 공간은 책속의 개구리들과 친구들의 한술밥만큼 풍성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손색없었다.

오작가님의 삶에서 만난 그림책 이야기와 실제 작품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시간은 꿈돌이 아이들에게 설렘과 꿈의 공간이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했고 작가님의 친필 사인 속에서 아이들은 꿈을 심을 수 있었다.

5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수줍게 내 얼굴을 인형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그 시간은 내 아이도, 남편도 아닌 나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고민하고 관찰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형묘에 한 땀 한 땀 새겨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인공처럼 인형을 만들어 가는 시간은 비단 인형이 아닌 나 자신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다.

11월 올해의 마지막 문화의 날 행사에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강숙연 강사님의 서양미술사시간! 모두의 무지함을 부끄럽지 않게 채워주시는 센스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역사적 배경들 덕분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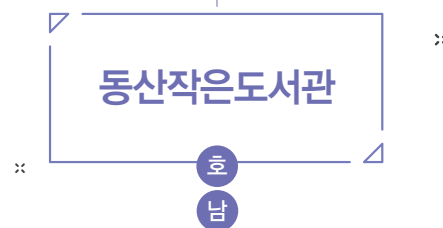
“꿈돌이에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언제 또 하나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꼭 초대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했다.

꿈돌이 작은도서관이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관계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 문화가 있는 날...



나는 익산에 있는 동산작은도서관 사서다.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은 두 번째 진행해 보았다.

처음 3년 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가 버렸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었는데 이번에 된다면 좀더 다르게 프로그램에 맞게 이용자들을 잘 선택해 진행해 보자고 마음 먹고 공모 사업 계획안을 올렸었다. 사업 선정이 되어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다. 익산에서는 우리 도서관만이 되어서 더 소중한 기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우리 도서관이 위치한 곳은 도심 속의 시골 같은 문화 소외 계층이 다수 자리 잡고 있는 곳 이어서 실제로 질 높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공간도 부족한 데다 경제적으로 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가 많아 실제로 다양하고 질높은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어렵



다. 하지만 기획만 하게 된다면 수요자는 있을 수 있는 곳이어서 사서인 나로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

서양 미술사를 통해서는 성인 이용자 분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졌고, 울퉁불퉁 돌멩이에는 꼬부랑꼬부랑 할머니들께서 서툴지만 자신의 흔적을 남겨 주셨고, 판소리 시간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나는 우리 가락 이야기에 그 날 참석해 주신 분들 중 경상도 분들이 계셔서 서로 웃다가 쓰러질 지경이었으며, 책은 만화가 최고예요 하는 고학년들에게 책에 대한 즐거움이 여기 있다고 알려 주신 술술 써지는 일기장 선생님... 가족과 함께 즐겨보는 그림지극 시간에는 마지막에 공연까지 해 보면서 우리 동산작은도서관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초반에 언급했던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사서인 나의 계획이 조금쯤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모든 것이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을 진행주신 분들, 또한 진행했던 도서관, 참여했던 이용자의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졌다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올해 우리 도서관은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있었다. 생활 SOC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어 오랜 숙원인 오래되고 낡은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공사 중에도 기꺼이 참석해 주신 이용자 분들, 활동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진행했던 나 자신에게도 조금의 칭찬을 해본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작은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버들눈도서관



“누가 갈수 있나요?”

한창 정산보고서 마무리와 2019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던 날이었다. 담당자인 나 말고 누가 가겠는가. 이른 아침에 나서 전주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도 있었고, 새로운 얼굴도 많아 설렘 가득했다.

버들눈도서관은 고창군 해리면의 단 하나뿐인 작은도서관으로 바닷가 옆 작은 마을 안에 있다. 마을의 주민은 대부분은 70~80대 어르신들이며, 학교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평일 만남은 힘들었다. 주말이나 늦은 밤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왜 이렇게 안 예뻐요?”

첫 만남은 시원시원한 판소리로 시작했다. 오전에 진행해 어르신들은 오시지 못했지만 버들눈도서관과 함께하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당일 그림책으로 활용했던 『수궁가』의 그림작가 선생님도 함께하셨다. 단가로 문을 열고 『효녀심청』 책을 함께 읽으며 심청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려주셨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던 장면에서 선생님이 한 마디 던지셨다. “심청이가 왜 이렇게 안 예쁜거야~” 모두들 자지러지던 순간이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고창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으로 만든 단가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소리를 들려주셨다. 선생님이 먼저 떠나고 함께했던 아이들이 단가를 함께 부른 것도 재미있었지만 포고문단가가 가장 인상 깊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저도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사랑이야기 인가요? 사랑이야기 인가요! 송기영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드라마의 ost처럼 기타연주가 흘렀다. 스토리가 있는 음악여행이라는 점이 특이했다. 그날은 내일이 토요일이라며 잠도 자지 않고 온 친구들이 있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저 졸면 어떡하죠?’ 하고 고민을 내비치는 친구들도 많았다. 하지만 유럽부터 남미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민요와 전통음악들의 하모니 속에 잠드는 친구 없이 모두 즐겁게 연주하는 들었다.

“늦은 만큼, 늦은 밤까지 함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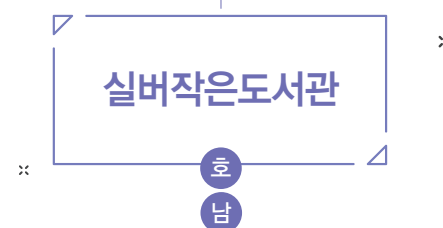
오치근 작가님이 오신다는 말에 고창 이곳저곳에 흩어져있던 작가님은 어린이 팬들이 모였다. 버들눈도서관을 지키는 친구들과는 순천에서 열린 도서전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오신데’ 하는 이야기에 많이들 모였다.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책은 『오징어와 검목』이었다. 대부분 청소년 친구들이었는데 백석 시인을 처음 안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더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져들었는지도 모른다. 오징어



와 검복의 이야기에 빗대 설명한 정치와 시대상 이야기는 역사교과서에서 빠져나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다음날 책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만드는 미션이 있었는데 오징어와 검복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다. 백석 시인과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림책을 표현한 수묵담채화를 활용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올챙이 한 마리가 한 붓에 표현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우와우와’ 하며 웅성거렸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한 친구가 앞에 앉은 친구의 얼굴을 그렸다. 특징을 잘 표현했다. 깔깔거리며 웃던 아이들이 앞에 앉은 친구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장 한 장 모인 그림들을 모두 함께 보며 다음 만날 날을 기약했다.

우리의 만남은 12월까지 이어졌다. 시골의 작은도서관이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많지 않은데, 버들눈도서관과 함께해준 선생님들로 인해 추억이 한 올 한 올 쌓여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었다.



실버작은도서관에 문화의 바람이 불다!



실버작은도서관은 정읍 시골마을의 내장산실버아파트(147세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실버아파트는 여러 지역에서 은퇴세대들이 하나 둘 모여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 오가는 버스가 3대에 불과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한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다. 누군가에게는 시내에 나가 영화 한 편 보는 당연한 문화생활도 이곳 노인들에게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2014년도에 실버작은도서관이 개관했을 때 내장산실버아파트에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이용자들의 문화향



유욕구는 점점 높아지게 되었다. 한정된 운영비로는 새롭고 질 높은 문화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뜻 깊은 소식이 들어왔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에 선정이 된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해 강사분들과 첫 만남을 갖고 일정을 조율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수준 높은 활동과 프로그램이라 '과연 어르신들이 잘 따라와 주실까?'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드디어 4월에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첫 활동이 시작되었다. 오치근 작가와 함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개구리네 한술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을 들어주시고 그림그리기 활동에서도 서툴지만 끝까지 활동을 마무리 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 위명화 강사와 함께한 '울퉁불퉁 돌맹이의 변신-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에서는 돌맹이에 각자의 생각을 담은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어려워 하셨지만 마무리된 작품을 보며 뿌듯해 하셨다.

6월 김연 명창의 '전래동화 속의 판소리, 우리 소리, 우리 삶'은 작은도서관을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환호소리와 박수소리로 떠들썩한 하루가 되었다.

8월 강숙연 강사의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서양미술사!', 사실 이 활동이 가장 걱정이 되었다. 어르신들이 과연 서양미술사라는 주제로 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활동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서양미술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세계사와 연계해서 활동을 해주시니 어르신들이 너무 만족하셨고, 어떤 분은 계속 활동을 해주시면 안되냐는 말씀까지 하셨다.



9월 이은경 강사의 '책 속의 주인공은 나야 나!'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바느질을 하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완성된 작품을 서로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다.

10월 마지막 프로그램인 송기영 기타리스트의 '클래식 기타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은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클래식기타 연주와 마무리 활동으로 함께 기타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마무리 하였다. 2019년 매월 마지막 주는 실버작은도서관에 문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을 타고 올 한해 순항(順航)을 하며 2019년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실버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문화의 바람을 가슴 속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여생을 '순풍에 돛 단듯' 하시고 계속해서 실버작은도서관과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낌없이주는나무 작은도서관

호남

작지만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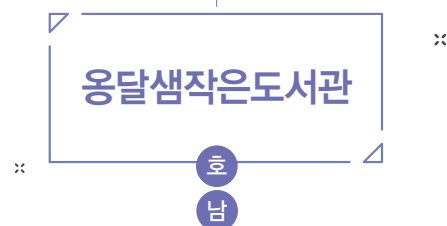
작은 것에 대해 그 가치를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된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큰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시해 왔다. 그러나 가치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고 소중하다.

작은도서관 자그마한 공간에서 너무 많지 않은 이웃들이 작은 음악회를 갖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지역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꾸준히 노력해오신 연주자를 모시고 삶과 음악 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연주를 듣고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낌없이주는나무 작은도서관에서 송기영 클래식기타 연주자를 모시고 개최한 ‘클래식기타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은 일상에 지친 이웃들에게 쉼과 치유와 잔잔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연주자의 자전적 이야기와 함께 클래식 기타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해주어서 클래식 기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한번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도 했다. 방송이나 음반 등에서 가끔 들었던 ‘로망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을 해설과 함께 생음악으로 연주를 들으면서 모처럼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이웃들이 가까이서 함께 문화예술을 나누는 작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을 마치며...



◎ 웅달샘 작은도서관 소개

웅달샘 작은도서관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인후한신희플러스 아파트 사립 작은도서관이다. 2008년도에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였고, 20명이 넘는 자원활동가와 사서를 배치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서 공간 및 문화정보제공을 통한 문화적 욕구 해소, 정서 함양 및 교양 프로그램 제공으로 올바른 도서 정보제공과 독서 문화 동아리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아파트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따뜻한 작은도서관이다.



◎ ‘2019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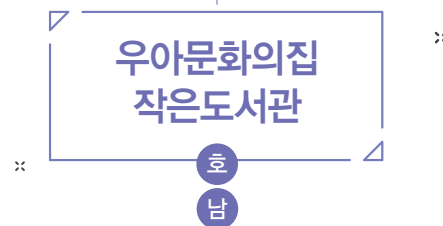
2019년 4월 26일 어느 따뜻한 봄날,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첫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 날이다. 이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간절하게 기다렸던 문화가 있는 날! 그 기다림의 설렘만큼 첫 프로그램은 어떤 강사님이 오실지, 어떻게 진행될지 무척 궁금하고 기대되었다.

강사님의 첫 인상은 너무 좋으셨다. 하지만 목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진행이 잘 될까 걱정이 되었다. 끝이어나만큼 기대에 부푼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서관에 들어온다. ‘선생님~ 오늘 책놀이 하죠?’ 라고 묻는 귀여운 초등학교 아이들. 프로그램 참가하는 아이들과 구경 오신 엄마들로 인해 금세 도서관이 북적북적 해졌다.

드디어 진행되는 전래놀이 시간. 강사님과 아이들의 참여로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빗그림으로 ‘뒤집힌 호랑이’ 책을 함께 읽으며 커다란 호랑이 탈도 써보고, 엽장수도 되어보고 북치는 사람도 되어보고, 홀라후프로 호랑이 똥구멍도 만들어 보며 이야기 보따리 속에 모두가 빠지게 되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술래잡기, 똥구멍으로 빠져 나가기는 엄마들도 함께 참여하여 신나게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공부와 학원에 지친 아이들에게 친구들 엄마와 함께 전래놀이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제공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사님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큰 에너지에 반하는 멋진 시간이었다.





Classic Guitar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던 우리 도서관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전문가를 기다리는 것을 큰 낙으로 여기며 3월부터 정신없이 달려와 선선한 가을 바람 부는 9월, 마지막 순서로 클래식 기타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여행”을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가을엔 특히 연주회가 많아 바쁜 와중에도 시간 조율을 통해 모시게 된 송기영 선생님은 깔끔한 흰색 수트에 은발의 중후한 멋을 풍기시며 반들반들 윤기 나는 멋진 클래식 기타를 메고 오셨다.



기타에 관심 있는 문화의집 기타반 회원들과 음악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중장년층 분들이 모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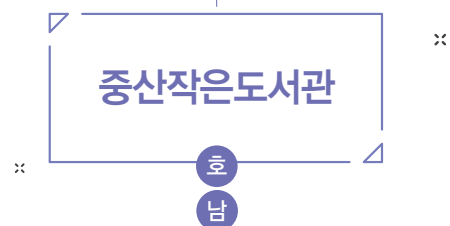
연령대가 비슷하다보니 서로 자라온 시절 이야기 그리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섞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어린 시절 동요로 들었던 ‘등대지기’, ‘섬집아기’를 시작으로, 연주를 따라 부르며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이어서 상송으로 익숙한 ‘사랑의 기쁨’과 금지된 장난의 주제곡이기도 한 ‘사랑의 로망스’ 바로 이어서 스페인의 춤곡인 ‘카나리오스’를 빠른 템포의 스트로크 연주법으로 차레로 감상해 볼 수 있었다.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았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트레몰로 주법으로 들으며 애잔하고 낭만적 멜로디의 기타연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동에 젖어드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기타반 입문하신 분들과 초급반 분들이 있다 보니, 질의 시간에는 연주법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송기영 선생님의 친절하고도 너무 좋았다. 앵콜곡으로는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여러 방식의 편곡으로 들려주셨다.

행사 끝난 후엔 작은도서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멋진 연주를 무료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만족해하시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지역의 사랑방으로써 자꾸 가고 싶은 작은도서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명나게 노는 아이들!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름다운 중산공원에 중산작은도서관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사에 참여해준 초등학교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이야기를 전한다.

전래 동화 「뒤집힌 호랑이」와 함께 노래와 율동, 퀴즈 맞추기로 몸 풀기를 한 후 신나게 놀아보았다. 4~8명이 한 모듬이 되어 손을 잡고 둥글게 둘러서서 뒤집는 놀이를 시작으로 〈호랑이 뱃속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떻게 뒤집을까, 뒤집으면서 뒤엎키진 않을까 걱정도 잠시 아이들은 힘을 합해 뒤집는 놀이를 거뜬히 해 내고는 신기한 듯 좋아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와!’ 하면서 스스로 뿌듯해했다.



〈호랑이 뱃속 놀이〉는 바닥에 꼬불꼬불 호랑이 뱃속을 그려놓고 두 모듬으로 나누어 밖에 있는 팀이 안에 있는 팀을 밖으로 끌어내는 놀이인데 호랑이 뱃속에 있는 모듬은 호랑이 입에서 출발해 똥구멍 찍고 돌아오면 이기는 놀이다. 몸을 많이 쓰는 놀이라 휴대폰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을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끌려가지 않게 서로 잡아주며 도와주고 밖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팀을 끌어내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으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얼마나 신명나게 노는지 모른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이에 흠뻑 빠졌다. 놀다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이렇게 잘 노는 아이들인데 학원에, 폰 놀이에 빠져 놀 시간이 없었나보다. 놀이마당을 펼쳐놓으니 어찌나 신명나게 뛰고 즐겁게 논다. 즐거운 전래놀이를 한바탕 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고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풍성한 한 해를 보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행사를 진행하느라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 부분도 지원이 된다면 더욱 따뜻하고 인정미 넘치는 진행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싶다. 감사합니다.



책마루
어린이작은도서관

호남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책마루 작은도서관!



전주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은 비영리법인 '책마루 동무들'에서 위탁운영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2009년 7월 24일에 개관한 책마루는 올해 드디어 10살이 되었다. 그동안 책마루는 어린이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과 함께 호흡하며 지내왔다. 그간 많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왔으며, 올해는 '누구에게나 책으로 말을 건네는 도서관!'을 목표로 삼았다. 영유아들이 아장아장 도서관 나들이를 올 수 있도록 도서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영유아 품앗이 모듬을 꾸리도록 이끌었고 책이 좋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를 운영해보고 인근 초등학교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또한, 책과 멀어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해 주제전시를 하고 비경쟁



독서토론을 진행한 기억도 난다. 마지막으로 책마루에서 영유아 품앗이 모듬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동아리로 나아가고, 또 지역의 자원 활동가로 성장하는 분들과 함께 해온 1년이었다.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사업은 이처럼 지역과 끈끈한 연대로 성장해온 책마루와 사업 목적이 같아 신청하게 되었고, 선정 후에는 담당자로서 강사님들과의 연락,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준비와 기록을 남기기까지 여러 과정을 힘이 닿는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역시 첫 경험. 첫 시작은 위명화 강사님이었다. 강사님의 요청으로 베아트리체 알레마나의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라는 그림책을 내가 읽어주었는데 사실 그전에 재밌게 들려드리기 위해 혼자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모른다. 활동을 보조하며 덩달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돌멩이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내가 고른 동그란 돌멩이를 만져보니 별거 아닌 돌멩이였지만 별 것이 되어버린 이것이 귀하게 느껴졌었다. 참여한 이용자들은 할아버지부터 유치원생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칠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할아버지의 소감이 기억에 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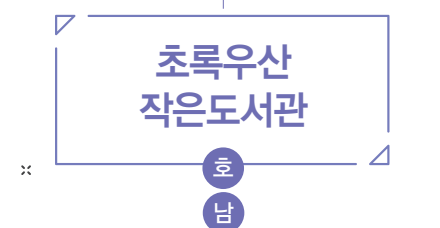
두 번째 프로그램은 윤일호 강사님이었다. 강사님은 실제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고 계시면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들을 재밌게 풀어주셨다. 이야기는 어른들은 물론 또래 아이들에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 속에 주장하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녹여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쓴 주장하는 글을 보여주셨는데 그 글들이 재치 있고 귀여웠다. 주장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배우면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글쓰기는 사실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한 가지를 더 꼽아보자면 개구리네 한솔밥을 보여주신 오치근 강사님이 생각난다. 가장 좋았던 점은 그림책에 실린 원화를 보여주셨다는 것이다. 활동 시작 전 일찍 오신 강사님은 벽에 원화들을 붙여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붙이면서 보니 한 점 한



점, 아름다운 꽃과 풀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는 개구리가 인상 깊었다. 이 활동 또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지만 모두들 붓을 들고 먹으로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다.

참여인원이 많은 달도, 적은 달도 있었지만 참여한 분들은 활동을 재밌게 들었다며 이야기 해주실 때 내가 칭찬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재밌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한 우리 사서들과 관장님, 열과 성을 다해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해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초록우산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후기



초록우산 작은도서관은 전주 흑석골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다. 조금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가기 힘든 지역주민들에게 독서 및 문화 활동 등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시립만큼 넓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움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다. 워크숍 때부터 모든 강사님과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협회 담당자님, 참가 도서관 관장님, 사서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열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초록우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방문해주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새로움을 드리고자



진행한 활동이었지만 매일 3월부터 10월까지 마지막 주에 한 회 차씩 거듭할 때마다 ‘오늘 강사님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참가자들을 이끌어 나가실까?’라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는 담장자의 입장, 참가자의 입장이 되어 함께하였다.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달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떤 달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보니 자녀를 위해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부모님이 성인대상 프로그램에는 본인이 참가하시면서 더욱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월에 진행했던 ‘그림책에 빠진 그림자극’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능기부까지 연결되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초등학교 독서동아리 어머니들이 그림자극을 배워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극을 하고 싶다며 신청해주셨다.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모습은 서툴지만 극에 사용되는 재료를 열심히 만드시는 어머니들, 나레이션과 상황극을 처음 해보시지만 강사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소품을 다루는 모습을 재연해보시려는 모습 등 나는 이용자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포터하면서 같이 뿌듯함을 느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꾸준히 독서동아리 어머니들이 나와 강사님과 소통하며 공연에 사용되는 노래나 도구에 대해서 물어보시며 자신들만의 활동을 만들어 가시려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넓혀가는 점이 좋았으며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단순히 흥미유발거리가 아닌 이용자에게 보람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활동이었다.



보목꿈터 작은도서관

제
주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제주 서귀포 남쪽에 위치한 보목마을의 ‘꿈터작은도서관’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학부모님들이라 도서관에서도 주로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계획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방이고 더욱이 제주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과 내용 구성, 강사진 섭외에 한계가 있기도하다. 그래서 제주작은도서관협회를 통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문화가 있는 날 공지가 왔을 땐 이것이다! 싶을 정도로 반가웠다.

서울에서 하는 워크숍을 참석하기 위해 새벽 첫 차를 타고 비행기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강행군이었지만 오랜만의 서울 방문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에 피곤함도 못

제
주



느낄 정도였다. 죽 늘어서 인사와 프로그램 소개를 하는 작가님들을 보며 행여나 잊어버릴까 봐 메모를 하며 ‘와~저분이랑은 꼭 하고 싶다’, ‘저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구나’, ‘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궁금증을 더 갖게 되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강사진 구성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우리가 원한 강사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더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첫 활동을 해 주셨던 **‘업사이클링-안선화 작가님’** 활동은 학부모대상으로 진행 했는데 버려지는 그림책을 재탄생 시키는 방법에 대해 아낌없이 알려주셔서 만족도가 참 높았다. 그림책을 종이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코팅이 많이 되어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깝기도 했다.

6월의 강무홍 작가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옮김을 하신 분이라 더욱 친숙 하게 느껴졌는데, 이야기꾼답게 우리 역사를 쉽게 알려주셔서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웠고 같이 활동을 참여한 엄마들이 어쩔 저렇게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시냐며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7월엔 제주도 설문대도서관에 계신 **안수일 선생님**이 오셔서 사라져 가는 제주어로 된 동화책을 읽고 나서 우리 고장과 제주의 관광지, 유적지등을 알아보고 제주도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고장의 유적, 관광지등을 다시 각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흠을 만지는 활동을 해서 참 즐거워했던 기억이 난다.

9월에 오신 김성진 선생님은 마침 활동하기로 했던 도서 ‘엄마사용설명서’가 2019 서귀포 시민의 책 중 아동도서 부문에 선정이 되어 있어 이미 책을 읽어 내용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많았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장 행복해 할 때는 언제인가 등 9가지 특징으로 세세하게 가족구성원에 대해 적어보았는데 아마도 늘 곁에 있는 가족에 대해 그렇게 자세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활동이었다.

10월엔 박채란 작가님이 오셔서 도서 ‘까매서 안 더워’를 읽고 다문화 가정에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 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 책 표지 보는 방법, 판권 보는 방법, 작가가 책 한권을 쓰고 얼마를 버는지 실용적인 정보를 질의응답을 하면서 알려주셔서 아이들의 귀가 번쩍었던 시간이었다. 아마도 책을 그냥 읽기만 했지 만들어 지는 과정이 어떠한지 이 책이 몇 번째로

수정을 거쳐 나오게 된 책인지 알 지 못해 재미있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특히 한권의 책으로 작가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이야기 할 땐 셈을 하며 계산을 하기도 해서 웃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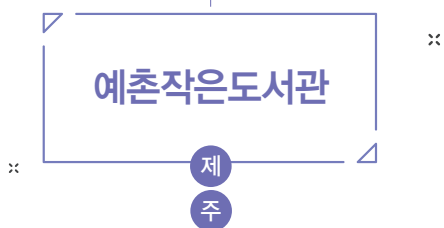
11월엔 박정선 작가님이 오셔서 그림자놀이 활동을 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선생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막대 준비물을 직접 챙겨 오셔서 더 감사하기도 했다.

그림자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 때는 다소 지루해하던 아이들이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그림자놀이를 할 땐 너무나 신나 해서 저도 같이 어울려 재미있게 놀았던 활동이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아이처럼 신나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제주도에도 물론 좋으신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작가님들을 모시기엔 한계가 있어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 할 때 막연함을 느끼곤 했다. 그래서 했던 프로그램을 해가 바뀌어 다른 학년에 적용시키는 등 약간은 구태의연함이 있기도 했는데 올해 덕분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 신선한 충격이기도 하고 다른 활동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비로 여비를 들여 일부러 제주까지 와 주신 작가님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마치며...



서귀포 남원읍 중산간마을 신레1리에 위치한 예촌작은도서관.

지역주민들의 문화감수성을 충족해주기 위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2012년 2월 개관했다.

지난 **5월 안선화 선생님**의 팝업북 만들기를 시작으로 11월 박정선 작가의 그림자는 내친구 까지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으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팝업북에 참여자들은 한번 더 활동할 수 없다는 문의가 쇄도해서 본부에 알아보기까지 했다. 후유증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그림책을 다 찢을 기세로 팝업북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었다.



6월 강무홍 작가의 역사여행은 어머니들의 호응이 좋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정세를 선조의 지혜를 빌려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7월엔 강영미 작가의 이딘 꽃자왈 책을 읽고, 거미줄 만들기를 해 보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제주도의 강한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휴가철, 폭염에도 아빠까지 함께 해 줘서 뿌듯한 시간이었다.

9월엔 김성진 작가의 엄마사용법 책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참여자들이 책을 다 가져와서 사인회도 갖는 등 작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게 뿌듯했다.

10월엔 박채란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누구나 글을 쓰고 싶어하고, 글을 통해 위로받고 공감 받고 싶어한다는 걸 알았다. 엄마들이 자기 살아 온 얘기를 글로 쓰면서 자존감이 회복 되어지는것을 느꼈다.

11월엔 박정선 작가의 그림자는 내친구 책을 읽고 과학원리를 쉽게 배울수 있는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든 강사님들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이고, 활동을 놀이처럼 재밌게 해주셔서 호응도가 좋았다.

다음 기회에도 꼭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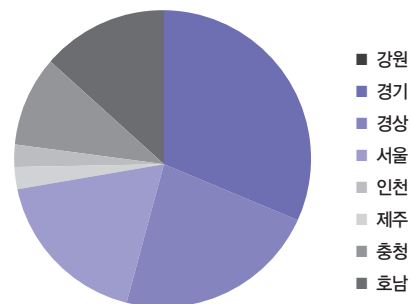
기 간 : 2019년 3월~12월

대 상 :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참여도서관 및 참여자

조사방법 : 설문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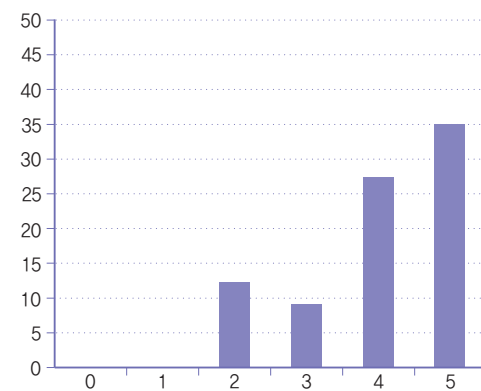
01 지역을 골라주세요.



지 역	명수	응답율
강원	0	0%
경기	26	31.3%
경상	19	22.9%
서울	15	18.1%
인천	2	2.4%
제주	2	2.4%
충청	8	9.6%
호남	11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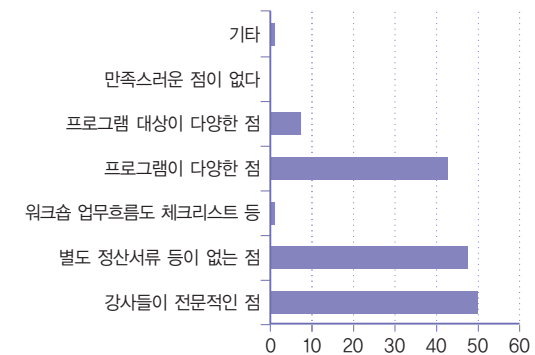
02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활동 만족도



만족도 점수	명수	응답율
0	0	0%
1	0	0%
2	13	10.1%
3	9	5.1%
4	26	37.6%
5	35	47.2%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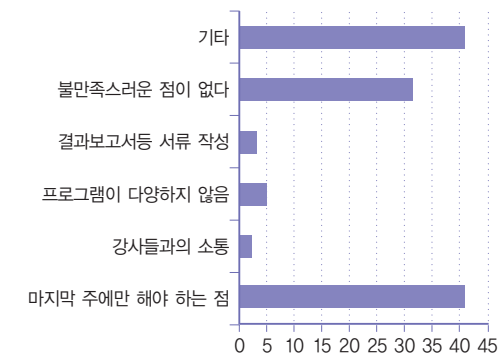
03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설문 내용	명수	응답율
강사들이 전문적인 점	50	60.2%
별도 정산서류 등이 없는 점	48	57.8%
워크숍 업무흐름도 체크리스트 등	1	1.2%
프로그램이 다양한 점	42	50.6%
프로그램 대상이 다양한 점	8	9.6%
만족스러운 점이 없다	0	0%
기타	1	1.2%



04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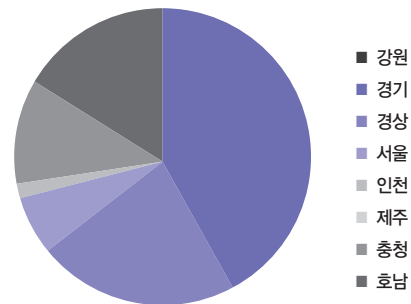
설문 내용	명수	응답율
마지막 주에만 해야 하는 점	41	49.4%
강사들과의 소통	2	2.4%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음	5	6%
결과보고서등 서류 작성	3	3.6%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다	32	38.6%
기타	16	19.3%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진행과정 설문조사

기 간 : 2019년 3월~12월
대 상 :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참여강사
조사방법 : 설문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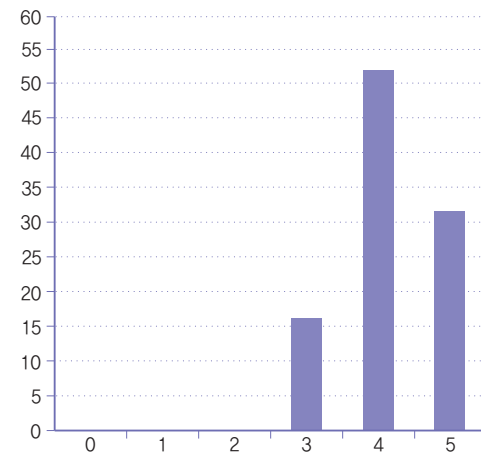
01 지역을 골라주세요.



지 역	명수	응답율
강원	0	0%
경기	26	41.9%
경상	14	22.6%
서울	4	6.5%
인천	1	1.6%
제주	0	0%
충청	0	0%
호남	10	16.1%



02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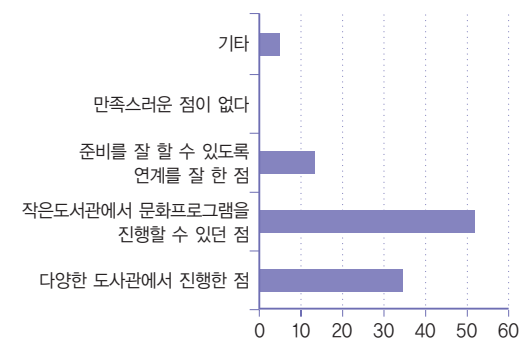


만족도 점수	명수	응답율
0	0	0%
1	0	0%
2	0	0%
3	11	15.2%
4	30	52.7%
5	22	32.1%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진행과정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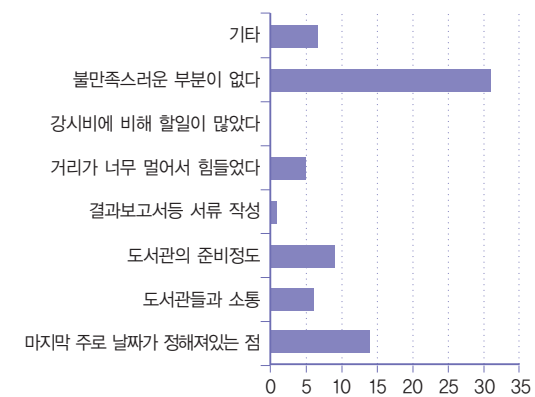
03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설문 내용	명수	응답율
다양한 도서관에서 진행한 점	34	54.8%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던 점	51	82.3%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한 점	12	19.4%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던 점	51	82.3%
만족스러운 점이 없다	0	0%
기타	5	8.1%



04 어떤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습니까?



설문 내용	명수	응답율
마지막 주로 날씨가 정해져있는 점	14	22.6%
도서관들과 소통	6	9.7%
도서관의 준비정도	9	14.5%
결과보고서등 서류 작성	1	1.6%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었다	5	8.1%
강시비에 비해 할일이 많았다	0	0%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	31	50%
기타	7	11.3%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결과 자료집

발행일 | 2019년 12월 31일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

제 작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홈페이지. www.smalllib.org

발간등록번호 12-1371748-000063-01

ISBN 979-11-6357-194-0 03020



비매품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한
'2019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결과 자료집입니다.



